

'대만 실리콘밸리'서 영감 얻은 허창수 9 

 '네이버 통장' 내년 출시 12

## 카카오페이·토스 '10% 캐시백' 이전 못쓴다

금융당국 "여전법 위반 소지"...핀테크업체 출혈 마케팅 제동  
최근 5년간 할인 혜택 등에 2186억 집행...작년에만 1028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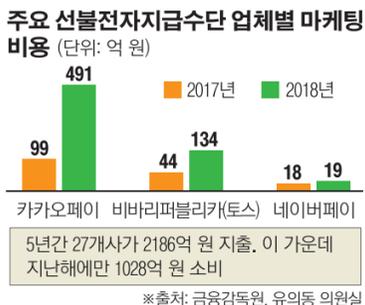
카카오페이·토스·페이코 등 지급결제 핀테크 업체들의 '10% 캐시백'과 같은 대규모 마케팅에 제동이 걸렸다. 금융당국이 '플랫폼 소비자 확보 전쟁' 중인 핀테크 업체들이 막대한 마케팅 비용을 쏟아 붓는 등 여전전문업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3면

31일 금융당국은 최근 유권해석을 통해 "신용카드가 아닌 결제수단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제공되는 혜택이, 신용카드 결제 고객에게 제공되는 혜택보다 유리하면 여전전문업법 제19조 1항 위반 소지가 있

다"고 제시했다. 질의 핵심은 '결제대행업체가 간편 결제를 이용해 결제하는 고객에게 통상 신용카드 회원에게 주는 혜택을 초과하면 여전법 위반이냐'였다.

금융위는 이같은 해석을 통해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페이, 토스, 페이코 등 간편결제 사업자의 과도한 출혈 마케팅을 차단하겠다는 복안이다. 시장에서는 과도한 마케팅 경쟁이 핀테크 업체의 내실을 악화시켜 결국 고객의 피해로 이어진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여전법 제19조 1항은 결제대행업체를



포함한 신용카드 가맹점이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불리한 대우'에는 가격 차별뿐만 아니라 포인트 적립과 할인 혜택, 쿠폰 지급 등 모든 경제적 혜택이 결제수단에 따라 달리 지급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해당 여전법을) 뒤집어 보면 카드를 이용할 때보다 (다른 결제수단의) 결제 혜택이 더 높으면 이 법의 위반 소지가 있다"며 "다른 결제수단에는 체크카드나 계좌이체 방식의 간편결제도 다 적용된다"고 말했다. 카카오와 네이버, 토스 등 주요 간편결제 사업자는 모두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으로 등록돼 있다. 지난달 21일 기준 전자금융업자는 239개 업종의 142개사, 이 가운데 PG 등록사는 109곳이다.

이번 유권해석 이후 주요 간편결제사의 과도한 출혈 마케팅 경쟁에 제동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5년간 선불전자지급수단업 41개사 중 27개

사가 마케팅 비용으로 2186억 원을 지출했고, 그중 1028억 원이 지난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422억 원 규모와 비교하면 두 배 이상 증가한 셈이다. 카카오페이가 491억 원, 토스 운영사 비바리퍼블리카는 134억 원을 이용했다.

이들 사업자는 시장 확대를 위해 최대 100% 캐시백과 할인 혜택을 제공했다. 하지만 카드업체는 수수료 인하 여파로 마케팅 비용 축소가 불가피해 '역차별' 논란이 일었다. 특히, 핀테크 업체와 달리 카드사는 '흑자상품' 출시 허용과 내부 통제 강화 등 규제 논란이 계속됐다. 하지만, 이번 유권해석을 계기로 간편결제업 사업자의 마케팅 공세가 약해지면 카드업체가 '기술이진 운동장'에서 벗어날 전망이다. 정용욱 기자 dragon@

## 3호선 운정·9호선 미사 연장 수도권 출퇴근 30분대로 단축

정부 '광역교통 2030 비전'  
통행료·환승시간 30% 줄여  
강변북로 등 지하도 건설

수도권 서부지역에 광역급행철도(GTX)가 추가되고 상습정체구간인 강변북로나 올림픽대로 등에는 지하 40m에 지하도로를 뚫는 방안이 본격 검토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는 31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광역교통 2030' 비전을 발표했다.

이날 대광위는 광역교통 2030 비전을 통해 광역거점 간 통행시간을 30분대로 단축하고 통행비용은 최대 30% 절감하며 환승시간은 30% 줄이는 3대 목표를 제시했다. ▶관련기사 4면

우선 내년 하반기까지 수도권 서부지역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GTX 신규 노선 설치 방안을 확정·발표한다. GTX-D 노선이 신설되는 셈이다.

지하철 3호선 대화~운정, 9호선 강일

~미사 구간을 연장하고 인천2호선을 신안산선으로 연결하는 방안이 본격 추진된다. 김포한강선은 검단으로 연결한다. 고양선을 일산 식사지구까지 추가 연장하거나 서울 6·9호선을 동북권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하기 시작했다.

하단~녹산선 왕영 연장과 동남권, 대구 2호선 성주 연장, 대구 3호선 동명 연장, 광주~나주, 광주~화순 등에 광역철도를 확충하고 충청권(신탄진~계룡), 대구권(구미~경산), 부산·울산권(일광~태화강)에선 기존 철도를 광역철도로 운행하거나 열차를 늘린다. 서울지하철 4호선(과천선)에는 시설 개량을 통해 급행열차를 투입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광역교통 2030" 비전 선포는 대한민국 광역교통 정책의 미래 10년 청사진을 제시하는 것이자 본격적 출발을 알리는 신호탄"이라며 "교통지옥에 시달리는 일 없이 여유 있는 아침을 맞고, 가족과 함께 저녁 시간을 보내며 보다 행복한 일상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곽도훈 기자 soqood@



'코리아세일페스타' 막 올랐다  
국내 최대 규모 쇼핑 행사인 '2019 코리아세일페스타'를 하루 앞둔 31일 성윤모(앞줄 왼쪽 두 번째부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홍보모델인 방송민 강호동, 김연화 2019 코리아세일페스타 추진위원회 위원장 등이 서울 중구 명동 일대에서 행사 홍보를 하고 있다. 올해 코리아세일페스타는 1일부터 22일까지 전국 참여업체 매장과 온라인에서 동시에 진행되며, 650여 개 유통·제조·서비스 업체가 업체별로 할인행사를 펼친다. ▶관련기사 13면  
신태현 기자 holjja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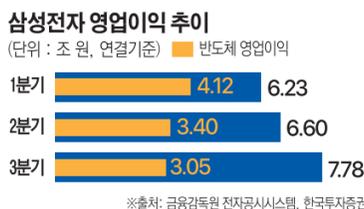
## "고맙다, 갤럭시10" 삼성 영업의 7兆 재탈환

3분기 매출 1년 만에 60조대  
내년 메모리 수요 회복 기대  
"새 폴더블폰 시장 선도할 것"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사업 실적 개선에 힘입어 분기 영업이익 7조 원대를 회복했다. 3분기 연결 기준으로 매출 62조 원, 영업이익 7조7800억 원을 올렸다.

내년 메모리 반도체 경기가 회복되고, 폴더블 스마트폰 등 새로운 성장 모멘텀이 빛을 발한다면 다시 한번 분기 영업이익 10조 원 돌파가 가능하다는 기대도 나온다. ▶관련기사 9면

삼성전자는 31일 실적 발표 후 열린 콘퍼런스콜에서 "낸드플래시 재고가 3분기 때 정상화됐고, 4분기에는 가격이 반등할 것"이라며 "D램 재고 역시 전 분기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해 내년 상반기엔 정상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5G(5세대 이동통신) 본격화 등으로 내년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늘어날 전망이어서, 재고가 정상화하면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삼성전자의 3분기 실적을 견인한 스마트폰은 폴더블폰과 5G를 통한 추가 성장 모멘텀이 기대된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폴드 초기 물량 매진을 통해 폴더블폰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봤다"면서 "새로운 폴더블폰 라인업을 선보여 시장을 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다양한 가격대의 5G 스마트폰을 선보이고 국가별 상용화 일정에 맞춰 사업자와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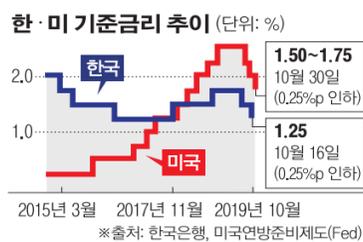
특히 스마트폰 외주 생산을 통한 수익성 확보에도 나선다. 130달러 이하 저가 모델은 외주 생산으로 가격을 낮춰 소비자 접근도를 높이고, 회사의 수익성도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외주 생산 물량 확대에 관해 결정된 건 없다"며 "협력회사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디스플레이 사업은 충남 아산 8.5세대 QD(퀀텀닷) 라인 전환을 시작으로 국내 라인 대부분을 QD 라인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초기에는 월 3만 장 규모로 시작하고 기술 완성도를 높여가는데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투자도 이어갈 방침이다. 올해 3분기까지 시설에 투자한 액수는 16조 8000억 원으로, 4분기에도 12조 2000억 원을 추가로 투입한다. 송영록 기자 syr@

## 美 연준, 올해 세 번째 금리 인하

0.25%p 내려...당분간 동결 시사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올해 들어 세 번째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했다. 이로써 미국 기준금리는 1.50~1.75%로 0.25%포인트 낮아졌다. 다만 연준은 이번 회의를 끝으로 금리 인하 행보를 일시 중단하고, 당분간 관망세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관련기사 6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연준은 이날 이틀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마치고 9월 16일 기준금리를 1.75~2.00%에서 1.50~1.75%로 0.25%포인트 인하한다고



발표했다. 7월과 9월에 이어 올해 세 번째 금리 인하다. FOMC 성명은 9월 FOMC와 큰 차이는 없었다. 성명은 "가계지출이 강력한 속도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기업 설비투자과 수출은 여전히 약하다"고 진단했다. 배준호 기자 baejh94@

# 분양가 상한제 비웃는 시장... 강남 '3.3㎡ 당 1억' 시대

반포 '아크로 리버파크' 34평형 34억에 팔려  
 '래미안 퍼스티지' '래미안 대치 팰리스' 평당 1억 육박  
 공급 감소 우려... 강남 신축 아파트 중심 수요 급증

"이대로 두면 강남이 3.3㎡(1평)당 1억 원이 될 판입니다."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 적용하겠다고 발표한 다음 날인 8월 13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한 발언이다. 그런데 이 말이 현실이 됐다. 서울 반포동 '아크로 리버파크' 아파트가 또다시 3.3㎡당 1억 원에 거래된 것이다. 집값을 잡겠다고 내놓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이 오히려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모양새다.

정부 의도와 달리 강남권 주요 지역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매매값이 치솟고 있는 가운데 이마저도 매물이 없어 팔지 못하는 상황이 연출되면서 3.3㎡당 1억 원(공급면적 기준) 거래 사례가 강남 전역으

로 확산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31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9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면적 84㎡(34평형)가 34억 원에 팔렸다. 한강 조망이 가능한 16층짜리 아파트다. 앞서 8월에도 같은 단지 전용면적 59.95㎡(24평형)가 3.3㎡당 1억 원에 육박하는 23억9800만 원(12층)에 거래됐다.

인근 J공인중개사 대표는 "아직 모든 주택형의 가격이 그렇게 오른 것은 아니지만 한강변이 보이는 로열층을 중심으로 가격이 치솟고 있다"며 "3.3㎡당 1억 원에 육박하는 매물도 잡으려는 매수자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3.3㎡당 1억 원을 넘어서는 단지가 추가

## 서울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아파트 거래 이력 (단위: 원)

\*전용면적: 84.95㎡, 기간 2019년 1월 초~현재

계약일	층	거래금액
10월 9일	16	34억(최고)
9월 4일	6	27억2000만
7월 25일	10	32억
7월 17일	10	26억5000만
6월 20일	18	27억
6월 16일	7	29억8000만



로 나올 가능성도 크다. 아크로 리버파크 뿐 아니라 반포 대장주로 함께 꼽히는 '래미안 퍼스티지' 전용 59㎡도 7월 21억 7000만 원에 거래됐고,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 대치 팰리스' 전용 59㎡도 최근 19억 9000만 원에 팔렸다. 이 아파트는 현재 23억~23억5000만 원을 호가한다.

집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지만 이마저도 매물이 없는 상황이다. 서초구 잠원동 A공인중개사 관계자는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가격에다 사려는 사람은 많은데 매물이 없다"며 "이대로 가다간 3.3㎡당 1억 원을 넘어서는 아파트가 넘쳐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택지로 확대 적용키로 한 것이 집값을 올린 가장 큰 이유라고 입을 모은다. 공급 부족으로 새 아파트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면서 강남권 신축 아파트로 수요가 몰리고 있다는 것이다.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에 따른 신규 주택 공급 감소 우려로 아크로 리버파크와 같은 신축 아파트로 수요가 많이 몰리고 있다"며 "강남권 새 아파트의 경우 시장 상황뿐 아니라 아파트 자체의 프리미엄도 커 당분간 집값 상승세가 이어질 것 같다"고 내다봤다.

다만 정부가 서울 집값, 특히 강남권 아파트값 억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어 가격 상승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지난해 8월에도 국토부는 아크로 리버파크 전용 59㎡가 24억5000만 원에 거래됐다는 루머가 나돌자 직접 조사에 나서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정부가 서울 일부 지역에서 가격이 급등한 고가 아파트에 대해 자금조달계획서를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히는 등 시장에 대한 간섭이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최근 급등세를 타고 있는 강남권 새 아파트가 정부의 자금 조달 전수조사의 타깃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문선영 기자 moon@

## KT '28GHz 기업전용 5G 네트워크' 세계 첫 개발

KT가 28GHz 대역 주파수를 사용해 기업전용 초저지연 5G 네트워크 기술(일명 FAST.NET) 시연을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KT 5G 오픈랩에서 세계 최초로 성공했다.

5G 'FAST.NET' 기술은 '단말-네트워크-서비스'까지 전체 데이터 전송을 왕복 10ms(밀리세컨드·1ms=1/1000초) 이하의 지연 내에 전송하기 위한 KT의 초저지연 인프라 기술이다. 향후 자율주행 자동차와 스마트 공장 자동화 관제 등을 실현하기 위한 기업용 5G 전용 네트워크의 핵심적인 기술이다.

5G FAST.NET 시연에서는 세계 최초로 국내 28GHz 대역을 지원하는 5G 기지

### 5G MEC 기술로 무선 전송 지연 시간 5/1000초까지 단축 스마트 공장·자율주행차 등 기업전용 5G 시장 경쟁력 확보

국 장비와 단말을 사용해 실제 무선 환경에서 최소 5ms, 평균 8ms 수준의 초저지연 데이터 전송을 선보였다. 5G 표준 MEC(Mobile Edge Computing) 규격을 기반으로 하는 코어 네트워크 장비와 연동을 통해 실제 테스트했다.

현재 상용 서비스 중인 3.5GHz 대역의 5G 네트워크에서는 10~20ms 수준의 지연이 발생한다. 이번에 선보인 KT FAST.NET에서는 28GHz의 초고주파 신호를 활용해 기존 3.5GHz 대역에서 0.5ms였던

무선 전송시간 단위를 1/4 수준인 0.125ms로 낮췄다. 또한 무선 및 유선 전송 구간에서의 지연 요소를 추가적으로 개선해 전체 지연 시간을 5ms까지 단축했다.

이번에 이러한 FAST.NET 기술을 28GHz 밀리미터파 시스템에 확대 적용하고 5G 표준 MEC 기술을 코어에 선제적으로 적용해 전체 왕복 지연 시간을 1/2 수준으로 다시 단축하는 데 성공한 것이다. 향후 기지국과 단말의 추가 성능 개선을 통해 평균 5ms 이하 수준까지 왕복 지연 시간

을 낮출 예정이다.

이러한 5G FAST.NET 기술을 기업전용 5G 네트워크에 적용되면 차량 간 운행 상태 정보 전송과 HD맵 데이터 전송 등 자율주행 자동차에 필수적인 네트워크 서비스가 보다 안전해지고, 스마트 공장에서의 로봇 제어, 머신비전을 활용한 실시간 공장관제 등이 5G 네트워크 환경에서 실현된다. 특히 KT는 5G 기반 자율주행자동차 실증을 위해 대구 알파시티에 5G FAST.NET 기술을 적용해 연말까지 필드 검증을 완료한다. 내년부터는 5G 기반 제조공장 등 기업전용 5G 서비스 전반에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재훈 기자 yes@



KT 연구원들이 28GHz 초저지연 기업전용 5G 네트워크인 'FAST.NET' 기술을 개발해 시연하고 있다. 사진제공 KT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글로벌 일자리 창출 선도

바이어 발굴
해외투자 진출

**무역·투자**의 모든 것,  
**KOTRA**와 상담하세요!

☎ 1600-7119

전 세계 129개 무역관이 도와드립니다.

수출애로 상담
투자유치 지원

글로벌 비즈니스 지원으로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KOTRA가 되겠습니다.

**kotr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무역·투자 종합 상담  
☎ 1600-7119

# ‘페이 錢爭’ 휴전하나... ‘제로페이 예외’ 형평성 논란

금융당국 ‘캐시백 여전법 위반’ 유권해석... 업계 영향은

금융당국이 카카오페이·토스·페이코 등 지급결제 핀테크 업체들의 과도한 마케팅 비용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최근 주요 간편결제 사업자는 ‘최대 100% 캐시백’ 혜택을 앞다퉈 제공하고, 기존 카드사보다 더 높은 할인율을 무기로 시장 확대에 열을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지급결제 핀테크 업체들의 마케팅 활동이 ‘여신전문업법 제19조 1항 위반 소지가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에 마케팅 비용 축소 압박을 받는 카드업계와의 역할 분담 문제는 해소될 전망이다. 장기적으로는 기업 활동 자체를 규제하는 현 상황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비바리퍼블리카가 운영 중인 토스는 자체 선불충전식 카드를 내놓고 활발한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토스 게릴라 캐시백’ 행사는 특정 요일·시간대 사용액을 100% 돌려주며 공세를 펼치고 있다. 지난달에만 카페와 패스트푸드점, 택시비 영역에서 캐시백 행사를 진행했다. 상품 출시 초기에는 결제 시 무작위로 선정해 결제금액 전액을 돌려 주기도 했다.

카카오페이는 자체 금액 충전 사용액에 따라 결제 금액의 최대 100%를 돌려주는 행사를 진행 중이다. 예약충전 고객에게는 추첨을 통해 최대 1000만 원을 지급하는 행사도 한다. 이 밖에 네이버는 11월 1일자로 금융 전문 회사 ‘네이버파이낸셜’을 분사해 금융 시장에 뛰어든다. 네이버파이낸셜은 네이버페이의 강점을 활용해 온라인과 현금 결제시장에 적극적으로 뛰어 들어 예정이어서 파격적인 마케팅이 예상된다. 기존 카드사 입장에서 불가능한 서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 잡나**

**최대 100% 게릴라성 캐시백 등 간편결제업계 마케팅 공세 약화 중소 카드사 수수료 수입 ‘숨통’**

**업계 “근본적 해결책 아니다”**

**“여전법, 신용카드 우대 제도 간편결제업계서 문제 삼을 수도 양측 마케팅 총량 제한 옳지 않다”**

**여전법 개정안 국회 통과 관건**

**정부 주도 제로페이 적용 제외 정책 페이 비교 우위 논란 여지**

비스다. 때문에 회사별로 플랫폼 소비자를 확보하려는 움직임으로 마케팅이 과열되는 양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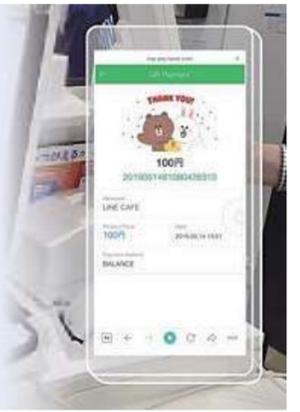
이런 상황에서 금융위가 유권해석에서 제 동장치를 마련한 만큼 시장의 변화가 주목된다. 금융위는 “신용카드가 아닌 결제수단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제공되는 혜택이, 신용카드 결제 고객에게 제공되는 혜택보다 유리하면 여신전문업법 제19조 1항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카드수수료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중소 카드사와 지방은행 계열 카드는 간편결제업에 앞세운 전자금융업계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싸워야 했다. 하지만, 이번 유권해석을 계기로 간편결제업계 마케팅 공세가 약화된다면 중소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1항 유권해석

질의 요지	여전법상 결제대행업체가 신용카드 이외의 결제수단을 이용해 결제하는 고객에게 신용카드 회원에게 통상적으로 제공되는 혜택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혜택 제공 시 여전법 위반 여부.
회신안	신용카드가 아닌 결제수단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제공되는 혜택이 신용카드 결제 고객에게 제공되는 혜택보다 유리하면 여전법 위반 소지 있음.
주요 내용	제19조 1항은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도록 해, 여기에 가격차별뿐만 아니라 포인트적립, 할인혜택, 쿠폰지급 등 경제적 혜택이 결제수단에 따라 달리 지급되는 경우 포함.

## 주요 간편결제 사업자 마케팅 현황

토스	‘토스 게릴라 캐시백’ 행사 : 특정 요일·시간대 사용액 100% 캐시백
카카오페이	카카오페이 리워드 : 결제 금액에 따라 최대 100%를 돌려줌, 충전 금액에 따라 최대 1000만 원 지급 행사 등
네이버페이	11월 1일 ‘네이버 파이낸스’ 분사 후 네이버페이 기반 마케팅 실시 예정



카드사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올해 3분기 은행계 카드사 실적을 살펴보면 소형 카드사인 하나카드는 전년 대비 43.2% 감소한 162억 원, 누적 순이익은 37.8% 감소한 498억 원을 기록했다. 반면 상위사인 신한카드 누적 순이익은 전년 대비 3.9% 증가한 4111억 원으로 집계됐다. 카드업계는 카드업 자체가 위기를 맞은 상황에서 새 경쟁자의 등장으로 업계 내부에서도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

다만, 금융당국의 카드사 마케팅 제한

자체가 모순으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관련 여전법은) 가맹점과 협의로 하는 것이지만 당장은 신용카드를 우대해주는 제도이므로 간편결제사업자 쪽에서 우대를 문제 삼을 수 있다”며 “원래 카드사 마케팅도 제한받으면 안 되지만 받는 상황이므로 (양측의) 마케팅 총량을 제한하는 것은 모두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회에서는 정부 주도 간편결제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여전법 제19조

1항을 개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월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는 기존 조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비용 결제수단을 이용하는 거래에 대해 우대하는 것은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로 개정하는 안을 발의했다. 해당 안은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만약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정책 페이가 비교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만큼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정용욱 기자 dragon@

## 신입생 키우고 재학생 뒷전 핀테크 산업 육성 역차별

금융당국, 신규 사업자 육성 치중 기존 사업자 규제 완화보다 강화 내년 예산도 핀테크 지원에 무게

금융당국의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한 첫 번째 키워드는 ‘규제혁신’이다. 하지만 신규 사업자 육성에 치중하다 보니 기존 사업자 역차별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이 금융지형의 새 판을 짜는 과정인 만큼 세심한 조율이 필요하다는 게 시장의 중론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금융당국의 정책 핵심 과제는 단연 혁신금융이다. 9월 금융위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편성안은 혁신금융과 포용 금융 지원을 우선하겠다고 명시했다. 주요 예산 편성 사업으로는 혁신모험펀드, 산업 구조 고도화와 함께 핀테크 지원이 최우선 과제로 꼽혔다.

하지만, 이 가운데 기존 은행과 보험사, 카드사 등 금융권 지원사업은 찾아볼 수 없다. 또 신규 핀테크 금융사 육성 지원책은 많지만, 기존 사업자 규제는 완화보다 강화에 초점이 맞춰진 경우가 많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당장 올림픽에 나갈 선수를 뽑아야 하는데 (금융당국은) 기존 선수들을 더 잘 훈련하는 방식이 아니라, 신인 선수를 발굴해서 올림픽에 내보내는 정책을 펼친다”고 말했다.

대표적으로, 금융사에 나눠 보관된 개인 신용정보를 한 곳에서 조회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사업의 경우 금융사의 불만이 크다. 마이데이터 사업의 핵심인 범금융권 데이터 오픈 API 신규 사업자에게 누적 데이터를 고스란히 정보만 내주고 얻을 것이 별로 없고, 오히려 시장 혼란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또 금융당국이 금융보다 혁신에 방점을 찍으면서 기존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제3인터넷은행 신규 인가를 추진했던 키움 컨소시엄은 1차 평가에서 ‘혁신성’ 부문에서 지적을 받은 뒤 결국 최종 신청을 포기했다.

대외적으로는 ‘회사의 전략적 판단’이라고 신청 포기 이유를 밝혔지만, 내부적으로 혁신성 부문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최종 신청을 포기했다는 해석이 많다. 이후 인터넷은행 신청은 사실상 토스 컨소시엄 단독 신청으로 흥행몰이에 실패했다.

이밖에 카드업계는 간편결제 사업자의 공격적 마케팅과 제로페이 단말기 무상지원 서비스에 대한 유권해석을 지켜만 보는 상황이다. 같은 시기 카드업계는 수수료 인하 후속 대책으로 마케팅 비용 축소와 함께 신규 카드 상품 수익성 분석, 내부통제 강화 등의 과제를 떠안았다. 당시 카드업계는 ‘하던 것도 못 하게 하는 상황’이라며 핀테크 업체와의 역차별 문제를 지적했다. 정용욱 기자 dragon@

# 석유불법유통 없는, 잘~ 나가는 대한민국!

석유불법유통은 국민의 권익과 안전을 위협하고, 사회를 멍들게 합니다.  
한국석유관리원의 빈틈없는 석유관리 시스템은  
석유시장의 질서를 바로 세워 맑고 건강한 사회를 만듭니다.

**석유불법유통이란?** 가짜석유·품질기준부합 제품 판매 행위, 차량에 등유를 주유하는 행위, 배달 방식으로 차량에 주유하는 행위, 정량미달 판매 행위 등 그 수법이 다양합니다.

**석유불법유통 신고 및 포상금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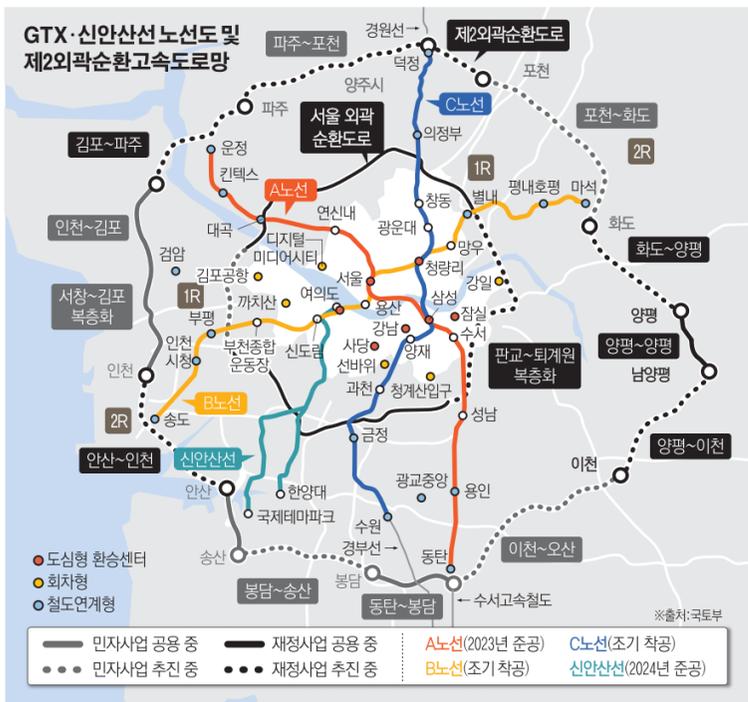
**오일콜센터: 1588-5166**

\*가짜석유 제조 200만원~1,000만원    \*가짜석유 판매 10만원~100만원  
 \*정량미달 판매행위 20만원    \*품질저하 LPG 제조 및 판매행위 50만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고객센터 ▶ 신고방법안내 / 포상금 안내 참조

**K Petro**  
한국석유관리원

〈서창~김포, 판교~퇴계원〉

# 수도권 서부에 GTX-D 신설...순환고속도 복층화 검토



**‘광역교통 2030’ 비전**  
신설 노선 급행 비율 16%→35%  
GTX-D 노선 내년 하반기 발표  
제2순환고속도로 2026년 개통  
수십개 규모 재원 대책은 없어

국토부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31일 발표한 ‘광역교통 2030’은 주요 거점을 30분대에 연결하는 광역철도망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 발표한 사업 외에도 새로 포함된 사업은 서울 6·9호선 연장 등 9개에 달한다. 이에 따라 수십조 원에 달하는 재원 대책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토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수도권의 인구 대비 도시·광역 철도 연장은 뉴욕, 파리, 런던과 같은 세계적인 대도시권에 비해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자가용 의존도가 58%로 매우 높고 그 결과 간선도로의 피크시간대 속도는 시속

20km를 넘지 못하고 있다.

광역교통 2030 주요 내용을 보면 기존 4호선과 인덕원~동탄 등 신설 노선은 급행으로 건설해 급행비율을 현재 16%에서 35%로 확대한다. 수도권 서부에 가칭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D노선을 내년 하반기까지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D노선 외에 더 추가될 가능성도 있다.

GTX 개통에 맞춰 버스노선도 전면 개편해 급행철도 중심의 광역교통망을 구축한다. 또 성남, 대전 2호선, 위례 신도시 트램 등 신규 대중교통 수단을 적극 도입하고 시내에는 트램, 외곽은 일반 노선이 이용하는 트램-트레노도 검토한다.

제1순환고속도로의 교통흐름 개선을 위해 상습정체 구간인 서창~김포, 판교~퇴계원의 복층화를 검토하고 제2순환고속도로는 2026년까지 개통한다. 주요 간선의 상습정체 구간에는 대심도 지하도로 신설도 검토키로 했다. 자동차는 지하로, 대중교통은 지상으로 이용하는 식이다.

광역버스(M버스)는 2022년까지 전 노선 예약제로 확대하고 지하철 시스템을 버스에 도입한 S-BRT를 3기 신도시에 구축한다. 향후 고속 전용차로 등으로 속도와 수송능력을 갖춘 고속 GTX 도입도 검토한다.

아울러 신도시 개발 등을 할 때 지구 지정 단계부터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신도시 초기 입주단계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광역교통특별대책 지구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번 계획은 고질적인 광역교통문제를 해결하고 교통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이다. 다만 수십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재원 대책은 발표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다. 대공위 관계자는 이번 계획에 따른 재원 문제와 관련해 “국비와 지방비 매칭, 민간투자 사업도 있고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른 분담금 활용 등이 가능해 나중에 상위 계획에 담겨야 얼마나 들어갈지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세종=곽도훈 기자 soqood@

## 투자 바닥 다졌지만 생산·소비 감소...경기 회복은 ‘아직’

감소를 거듭하던 투자가 바닥을 다지고 반등하는 모습이다. 다만 순환적 측면에서 회복일 뿐, 기초적 측면에선 당분간 경기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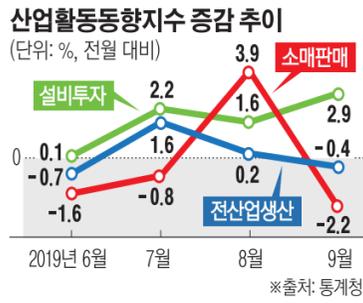
통계청이 31일 발표한 ‘9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9월 설비투자는 전월보다 2.9% 증가했다. 4개월 연속 증가세다. 건설투자도 건설기성(시공실적, 불변)은 2.7% 줄었으나, 건설수주(경상)는 철도·궤도, 토지조성 등 토목에서 53.4% 늘며 전년 동월보다 24.7% 증가했다.

지난해 3월부터 감소세를 지속하던 설비투자는 올해 3월부터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3월 이후 전월 대비로 설비투자가 감소한 건 5월(-6.8%) 한 차례뿐이다. 건

**통계청 ‘9월 산업활동동향’**  
설비투자 2.9%·건설투자 25% ↑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0.1P 상승

설수주는 4월(39.5%)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를 보였다. 투자 증가에 힘입어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보다 0.1포인트(P) 오르며 3월(0.1P) 이후 6개월 만에 반등했다. 김보경 통계청 산업동향과장은 “설비투자는 전반적으로 기저효과가 사라져 소폭이지만 증가하는 모습”이라며 “최근에는 기계장비와 반도체도 대규모는 아니지만 투자가 꾸준히 이뤄져 양호한 흐름”이라고 평가했다.

서비스업생산과 소매판매가 각각



2.9%, 2.2% 감소했지만, 여기에는 명절 특수와 기상 여건이 반영됐다. 지난해 9월 말이었던 추석 연휴가 올해에는 9월 초로 앞당겨지면서 성수품 구입이 8월로 앞당겨졌고, 9월 잦은 태풍으로 간절기 의류 판매가 부진했다는 게 통계청의 설명이다.

단 전반적인 경기 흐름을 개선세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 과거 건설수주 부진의 영향으로 건설기성이 조정 중에 있고, 광공업생산 중 제조업은 일부 산업에서 재고가 늘고 생산능력이 감소하는 등 부진을 겪고 있어서다.

무엇보다 세계 경기 부진과 함께 국내 경기도 성장동력이 떨어지는 추세다.

이근테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원은 “경기 흐름을 순환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동안 설비·건설투자와 수출액이 크게 줄었기 때문에 반등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단기적으로 설비투자를 줄였던 기업들도 생산은 유지해야 하니 다시 투자를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 수소충전소 복층 허용 유원지 ‘VR영화’ 가능 신산업 분야 33건 규제 해소

내년 4월부터 복층형 수소충전소 건설이 가능해진다. 충전소를 건설하려는 사업자는 제한된 입지를 효율적으로 활용, 부지매입비 등 투자 비용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 유원시설의 가상현실(VR) 시뮬레이터에서 영화 체험이 가능해지고, 인공지능(AI) 의료기기 소프트웨어에 대한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된다.

정부는 31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과제’ 33건을 논의·확정했다. 이번에 발굴한 과제들은 신성장동력 산업인 수소차(5건), 가상현실(9건), 의료기기(11건) 분야에 초점을 맞췄다.

우선 정부는 수소충전소의 복층형 건설을 허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수소충전소는 지상에만 설치하게 돼 있어 복층형으로 짓는 것이 아예 불가능했으나 이번 규제 해소로 부지면적이 줄어 부지 매입비 등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정부는 내년 4월까지 연구용역을 통해 지표면에 설치해야 할 시설과 복층으로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를 구체화해 규제 완화에 나설 계획이다. 종전에는 저장식 수소충전소만 설치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제조식 수소충전소 설치도 허용된다.

이번 규제 해소로 수소충전소 확대에 속도가 더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2022년까지 전국 주요 도시에 일반 충전소 190기, 버스 전용충전소 60기 등 250기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2030년까지 누적 660기를 구축해 주요 도시에서 20분 내, 고속도로에서 75km 내 충전소 이용이 가능하도록 배치하고, 2040년에는 누적 1200기를 구축해 이를 15분, 50km 이내로 단축할 예정이다.

정부는 내년 3월부터 유원시설에 설치된 VR 시뮬레이터에서 연령별 등급을 받은 VR 영화도 허용할 계획이다. 종전에는 VR 시뮬레이터에서 전체이용가 등급의 게임물만 제공이 가능했지만 영화도 허용해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가 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AI 소프트웨어가 장착된 기기도 의료기기로 인정해 단 한 번의 인허가 절차만 진행하도록 관련 절차를 간소화했다.

세종=노승길 기자 noga813@

## 1년세 보조금 부정수급 21억

지난 1년간 적발된 부정수급 보조금이 2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인 ‘e나라도움’을 이용해 지난해 하반기와 올해 상반기 집행된 보조금을 중앙부처·지장자치단체에서 자체 확인·점검한 결과 108건(21억 원)을 가속 간 거래, 허위거래 및 거래증빙 미비 등으로 적발해 전액 환수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유형별 부정수급 건수는 보조사업자 가속 간 거래 28건(15억 원), 보조금 전용카드 결제취소·세금계산서 구매취소 21건(4억 원), 문화·스포츠 바우처 부적정 사용 44건(500만 원) 등이었다.

적발된 주요 사례를 보면 A 씨는 다수의 보조사업자와 공모해 약기, 융합장비 대여 등의 거래 사실을 꾸미고 보조금 총 7000만 원을 편취했다. B 씨는 서류를 위조해 유령회사를 만든 후 산업용 사물인터넷 기반 안전검증 시스템 구축 관련 장비구매를 허위로 꾸며 총 5억 원을 받았다. C 씨는 지침에 명시된 계약절차를 무시하고 보조사업자 소유의 농업법인체와 수익계약을 체결하고 과다집행하는 등의 방식으로 보조금 2억1000만 원을 초과 수급했다.

기재부는 “이번 실적은 e나라도움의 부정징수 탐지시스템(SFDS)이 가동된 지 1년여 만의 결과로, 탐지시스템 운영 경험이 쌓이면서 점차 적발 실적이 높아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했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금강산 어떻게 하나** 김연철(오른쪽 첫 번째) 통일부 장관이 3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금강산관광 사업자인 현대아산의 배국환 사장, 한국관광공사의 안영배 사장과 함께 북한의 남측 시설 철거 요구 등 관련 문제를 협의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 3분기 중앙재정 집행률 78%...지방은 63%

**정부 “연내 전액 집행할 것”**

3분기 중앙재정 집행률이 8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방재정 집행률은 상대적으로 저조했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유은철 2차관 주재로 2019년도 ‘제13차 재정관리 점검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2019년 3분기 재정 집행실적 및 4분기 집행률 제고방안’ 등을 보고받았다.

먼저 9월 말까지 중앙재정 예산현액 475조6000억 원 중 372조8000억 원(78.4%)이 집행된 것으로 집계됐다. 단 지방재정은 368조8000억 원 중 232조7000억 원(63.1%), 지방교육재정은 86조3000억 원 중 62조 원(71.9%)이 집행돼 상대적으로 집행률이 낮았다.

10월 22일 기준 추가경정예산은 5조8000억 원 중 4조9000억 원(84.1%)이 집행됐다. 각 부처가 제출한 실적행액은 3

조5000억 원(59.8%)이었다. 기재부는 “재정집행은 중앙부처 자금교부 이후 사업 시행자 집행까지 불가피하게 시차가 존재하므로 국고출납 기준인 집행실적과 실적행 간에는 차이가 발생한다”며 “22일 기준 추경예산의 실적행률은 59.8%로 이는 추경이 통과된 이후 집행기간이 3개월이 채 안된 점을 고려하면 정상적인 집행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구 차관은 “전 부처는 가용 예산을 전액 집행한다는 각오로 연말까지 집행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 반환점 文정부... “개혁·복지 OK, 경제·인사 NO”

## 리얼미터 여론조사

일자리·혁신성장 기대 이하

‘조국 사태’에 인사 부적절 지적

19% “권력기관 개혁 지지”

의료·주거·노후정책은 호평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다음 달 9일 반환점을 앞둔 가운데 국민들은 개혁과 복지정책에 후한 점수를 준 반면, 경제정책과 인사를 부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31일 리얼미터에 따르면 tbs 의뢰로 지난달 30일 19세 이상 성인 502명에게 실시한 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P))에서 지난 2년 반 동안 문재인 정부가 잘못된 정책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는 ‘일자리 창출, 혁신 성장 등 경제정책’이 16.6%로 가장 많았다. 일자리 창출은 문 대통령의 제1 국정과제라는 점에서 정부에 뼈아픈 대목이다.

경제정책에 이어서는 ‘장차관 임명 등

인사정책’이 14.2%로 뒤를 이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이 민심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다음으로 개혁(10.9%), 양극화 완화(7.5%), 외교(5.1%), 복지(3.1%) 정책 등이 잘못된 정책으로 지목됐다.

문재인 정부가 잘한 정책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는 ‘사회부조리, 권력기관 등 개혁정책’이라는 응답이 18.9%, ‘기본생활·의료·주거·노후 등 복지정책’이라는 응답이 15.5%를 기록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남북관계 등 한반도 평화·안보(8.5%)’, ‘다자·양자 등 외교의 외교(8.1%)’, ‘소득 불균형 등 양극화 완화(5.4%)’, ‘일자리 창출, 혁신 성장 등 경제(3.9%)’, ‘장차관 임명 등 인사(1.8%)’ 정책 순으로 나타났다.

정책에 대한 응답자들의 판단은 세부적인 지역·계층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경기·인천과 호남, 서울, 부산·울산·경남(PK), 40대와 30대, 50대, 진보층과 중도층,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가장 잘한 정책으로 ‘개혁정책’을 제일 많이 꼽았다. 이와 다르게 충청권과 대구·경북(TK), 60대 이상

과 20대, 보수층, 자유한국당 지지층과 무당층은 ‘복지정책’을 많이 꼽았다.

잘못한 정책에 대한 판단도 지역·계층별로 달랐다. PK와 충청권, TK, 경기·인천, 20대와 50대, 40대, 중도층, 무당층에서는 ‘경제정책’을 지적했다. 반면 호남과 60대 이상, 한국당 지지층에서는 ‘인사정책’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서울과 30대, 보수층에서는 ‘한반도 평화·안보’, 진보층과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개혁정책’을 가장 잘못된 정책으로 꼽았다. 진보층의 경우 현 정부가 잘한 정책과 잘못된 정책 모두 ‘개혁’을 꼽았다는 점이 눈에 띈다.

이 밖에도 특징적인 부분은 잘한 정책과 잘못된 정책 모두 ‘없다’는 응답 비중이 높았다는 점이다. 이번 조사에서 잘한 정책과 잘못된 정책이 ‘없다’고 답한 사람은 각각 33.2%, 21.0%에 달해 사실상 각각 1위를 차지한 문항이었다.

이 같은 결과는 설문조사에 응하면서도 정부 정책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고 있는 ‘중간 계층’이 많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유충현 기자 lamuziq@



“어머니, 편히 쉬세요”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부산 남천성당에서 모친 고 강함옥 여사의 운구 행렬 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왼쪽은 김정숙 여사. 한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전날인 30일 조의문을 보내왔다. 연합뉴스

## ‘P2P법’ 834일 만에 국회 통과

올 개인간 대출 6조... 자기자본 5억 있어야 영업 가능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개인들끼리 대출 거래를 하는 이른바 ‘P2P(개인간) 대출(Peer-to-peer lending)’도 앞으로 금융당국이 관리한다. 국회가 31일 이른바 ‘P2P법’을 가결하면서 이용자 보호 체계가 마련됐다.

이 법은 P2P 대출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별도의 규율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P2P 대출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투자자 자금을 모집해 차입자에게 공급하는 형태의 대출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제정법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했다. 소위 P2P법이다. 재석 의원 229명 중 찬성 227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이 법안의 제안 설명에 따르면, P2P 대출 시장의 누적 대출액 규모는 2015년 말 373억 원에서 올해 6월 말 6조2521억 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법에서는 투자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 등 P2P 대출업에 대한 법적 규제 근거가 미비하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앞으로는 P2P 대출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으로 규정되고, 이 사업을 운영하려면 최소 자기자본 5억 원 이상이라는 기준을 갖춰야 한다.

또 자기자금 대출은 모집금액의 80% 이하 범위에서 해야 한다. 업자는 대출 금액과 금리, 수수료, 연계투자 위험성, 수익률 등 정보를 투자자에게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알기 쉽게 제공해야 한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파산하거나 회생 절차를 밟게 될 경우, 약관 위반 행위 등의 경우에 피해자 보호를 위한 규정도 마련됐다. 이로써 ‘P2P금융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법제화가 마무리됐다. 2017년 7월 관련 법안이 발의된 이후 834일 만의 결실이다.

P2P금융법은 지난 2년간 국회에 계류돼 있다가 올해 하반기부터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8월 정무위원회 법안 소위,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고 지난달 24일 법제사법위원회가 법안을 가결했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 심상정 “조국 국면 질책 많이 받아...공수처 시급”

###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31일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지난 두 달 동안 조국 국면에서 제 평생 처음으로 많은 국민의 질책을 받았다”며 “국민의 애정 어린 비판과 격려를 겸허히 받겠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특히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이른바 ‘데스노트’에 올리지 않은 정의당의 결정에 대한 일각의 비판에 대해 “특권 정치 교체를 위해 불가피하게 제도개혁을 선택한 것임을 왜 몰라 주냐고 항변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제 짧은 생각이었다”며 “질책은 아무리 절실한 제도개혁이라도 일관되게 지켜온 원칙과 가치에 앞설 수 없음을 일깨우는 죽비 소리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평등 타파·특권정치 교체로부터 시

작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심 대표는 국회 특권을 내려놓기에 대한 여야의 동조를 호소했다.

아울러 국회의원고 고위공직자 자녀 입시비리 조사를 위한 특별법 제정안, 최고 임금을 제한하는 일명 ‘살전고양이법’, 비동의 간음죄 도입법의 통과를 촉구했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된 선거제 개혁 법안에 대해선 “법안이 통과되면 국민을 닮은 국회로 한 걸음 전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안을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을 향해서는 “기득권 유지를 위해 개혁을 거부해온 ‘갑그릇 반색’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에 대해서도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살 때 타. 팔 때 타. 투자 타이밍이 더 유익하다. 티레이더

투자 타이밍을 알려준다

이웃한 투자

유안타증권 元大證券

티레이더 www.tRadar.co.kr | 고객센터 1588-2600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당사는 금융투자상품의 투자대상, 판매방법, 수수료 및 보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반드시 충분한 설명을 듣고 가입하시기 전에 반드시 (간이)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금융투자상품은 운용결과에 따라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당사 온라인 주식매매수수료는 0.066% 등이며 (해외주식 수수료는 총괄 0.3%, 상해A 0.3%) 기타수수료 및 매매제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당사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티레이더, 티레이더펀드 서비스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을 돕기 위한 보조 서비스로 수익달성을 반드시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9-62호(2019.02.28)

# 칠레 APEC 정상회의 취소... 美·中 무역협정에 '불똥'

'50원'에 폭발한 시위 격화... 국제회의 취소 초유의 사태  
산티아고서 보자던 트럼프·시진핑 담판 일정 안갯속

칠레 정부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를 불과 17일 남기고 전격 취소했다. 지하철 요금 30페소(약 50원) 인상으로 촉발된 대규모 시위가 결국 국제회의 취소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로 이어진 것이다. 이에 따라 칠레에서 1단계 무역협정을 마무리 지으려던 미국과 중국의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세바스티안 피네라 칠레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열어 "법과 질서의 회복에 집중하기 위해 APEC 정상회의와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5) 개최를 취소하는 힘든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이 결정으로 APEC과 COP에 생길 문제와 불편에 깊은 유감을 전한다"며 "대통령은 그 어떤 것보다 항상 자국민이 우선"이라고 덧붙였다.

칠레가 '국제회의 취소'라는 사상 초유의 결정을 내린 건 지하철 요금 인상으로

촉발된 시위 사태가 좀처럼 진정되지 않아서다. 칠레 국민들은 지하철 요금 인상을 계기로 불평등, 양극화 등 그동안 쌓였던 분노를 터뜨렸다. 대규모 시위로 인해 사망자까지 발생했고, 화재로 인한 재산 피해 등 칠레 사회는 혼돈에 빠졌다.

이에 칠레 정부는 지하철 요금 인상 계획 철회, 연금 및 임금 인상, 개각 등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놨지만 시민들의 분노를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었고, 결국 국제회의 취소로까지 이어졌다.

1989년 창설된 APEC은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아시아태평양 21개국이 참여하는 경제협력체다. 매년 회원국에서 정상회의를 개최해왔으며, 올해는 11월 16~17일 칠레 수도 산티아고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이곳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등이 참석하기로 돼 있었다.

문제는 이번 회의가 미국과 중국, 일본

과 한국 등 무역전쟁을 펼치고 있는 국가들 입장에서 매우 의미 있는 기회였다는 점이다. 지금 당장 대체지를 찾는다 해도 각국 정상들이 모이는 국제회의 특성상 일정을 다시 잡는 게 쉽지 않다. 올해 회의가 열린다 해도 일정 연기는 불가피하다.

이에 미·중, 한·일 무역 문제의 불확실성도 높아졌다. 미국과 중국은 지난달 11일 고위급 무역협상에서 도출한 '1단계 합의안'에 대한 서명을 이번 APEC으로 잡고 있었다. 1단계 서명이 끝나면 즉각 2단계 협상에 돌입하기로 하면서, 지난 15개월간 세계 경제를 위협하던 무역전쟁의 끝이 눈앞에 보이던 상황이었다.

다만 APEC 정상회의 개최 무산에도 백악관이 당초 계획대로 합의안에 서명할 것이라는 뜻을 밝히면서 우려를 다소 잠재웠다. 호진 기틀리 백악관 부대변인은 "우리는 같은 시간 프레임 안에 중국과 역사적인 합의를 마무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폭스뉴스는 중국이 마카오에서 미중 정상회담을 만날 것을 제안하는 한편, 미국도 다른 장소를 검토 중이라고 보도, 성사 여부가 주목된다. 변효선 기자 hsbyun@

## 美 연준 '보험성 금리 인하' 마침표

"매파 전향은 아냐"... 완화 기조 유지에 시장 안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보험성' 기준금리 인하에 일단 마침표를 찍었다. 연준의 금리 인하는 중단은 시장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제롬 파월(사진) 연준 의장이 '매파'로 전향했다는 인식을 차단하고자 금리 인상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히는 등 완화적 입장을 유지하면서 시장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고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전했다.

연준은 이날 끝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종전보다 0.25%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파월 의장은 FOMC 후 기자회견에서 "경제 상황에 대해 들어오는 정보가 우리의 전망과 광범위하게 일치하는 한 현 통화정책 기조는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 세 번째인 이번 금리 인하에 대해 "미국 경제를 강하게 유지하고 현재 진행형인 위험에 대해 보험을 걸기 위해 이 방법을 취했다"고 설명했다.

연준 정책에 대한 시장의 선부른 예상을 방지하고자 파월 의장은 "경제전망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사안이 발생하면 우리는 그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며 "정책은 미리 방향을 정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이미 연준이 이날 결정을 끝으로 올해 금리 인하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이에 연준이 다시 지난해까지 지속된 금리 인상 기조로 돌아설지에 시장의 관심이 쏠렸다. 파월 의장은 금리를 인상하려면 상당한 물가상승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나타내면서 투자자들을 안심시켰다.

아울러 파월 의장은 연준의 현재 정책 기조가 '완화'나 '중립' 중 어느 쪽에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경기하강 리스크가 계속되는 상황을



고려하면 완화 기조가 적절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재차 언급해 매파로 돌아설 것이라는 시장의 우려를 해소했다.

이에 장기금리인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전날의 1.84%에서 1.78%로 하락하고, 뉴욕외환시장에서 달러화 강세가 억제됐다. 뉴욕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오르면서 S&P500지수는 이틀째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마침 이날 발표된 미국의 3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도 연율 1.9%로, 전 분기의 2.0%에서는 소폭 하락했지만 시장 예상인 1.6%보다는 양호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미중 무역전쟁이 끝난 상황은 아니고 연준 위원 간의 견도 여전해 향후 통화정책 전망은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FOMC 결정에서 투표권이 있는 연준 위원 10명 중 2명이 금리 동결을 주장하면서 성명 채택에 반대표를 던졌다. 파월 의장이 지난해 2월 취임한 이후 이번까지 벌써 네 차례나 금리 결정에서 만장일치가 나오지 않았다. 그만큼 연준 위원들도 경제 전망에 확신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의미다.

배준호 기자 baehj94@



칠레 반정부 시위대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수도 산티아고에서 세바스티안 피네라 칠레 대통령을 향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지하철 요금 30페소(약 50원) 인상으로 촉발된 칠레 국민들의 분노는 대규모 시위로 불길이 번지면서 결국 '국제회의 취소'라는 사상 초유의 결과를 냈다. 이날 피네라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열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5) 개최를 취소한다고 발표했다. 산티아고/AP연합뉴스

## 트위터 "정치광고 금지... 돈 아닌 노력으로 승부해야"

내년 대선 의식 트럼프 캠프 반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애용하는 소셜미디어 트위터가 이달부터 전 세계에서 정치 광고 게재를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허위 정보 등을 포함한 정치 광고 문제로 페이스북에 대한 비판이 확산하는 가운데 같은 소셜미디어로서 자정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잭 도시 트위터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정치적 메시지는 금전이 아니라 '팔로'나 '리트윗'이라는 사람들의 결단을 통해 달는 것이라고 우리는 믿는다. 금전을 지불하고 정치적 메시지를 확산하는 것은 예기치 않은 문제를 낳는다. 한쪽이 광고를 이용하면 사람들의 결정에 관계없이 광고주

가 겨냥한 대상에게 강제적으로 도달한다. (사람들의) 결정은 금전에 의해 훼손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도시는 또 "이것은 언론 자유의 문제가 아니다. 도달(reach)을 얻기 위해 돈을 지불하는 행위에 대한 것이다. 돈을 주고 정치적 메시지를 확산하는 것은 현재의 민주주의 제도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일단 후퇴할 가치가 있다"고 언급했다. 도시 CEO는 정치 광고 금지에 대한 트윗을 11개나 올렸다.

트위터는 15일까지 새로운 정책에 대한 약관을 공개하고, 22일부터 전 세계에서 이를 실시할 방침이다. 유권자 등록을 촉구하는 광고 등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 모든 정치 광고를 게재하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이번 결정으로 트위터의 실적에 미

치는 타격이 크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트위터는 지난주 실적 발표 콘퍼런스콜에서 2018년 중간선거 당시 정치 광고 매출이 300만 달러 미만이었다고 밝혔다.

트위터의 정치 광고 게재 중단 방침에 트럼프 진영은 강하게 반발했다. 내년 미국 대선을 앞두고 가장 유력한 캠페인 수단 중 하나를 잃게 생겼기 때문이다. 트럼프 진영은 성명에서 "큰 수의 가능성을 외면하는 바보 같은 결정"이라며 "보수 진영에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라고 비난했다.

소셜미디어에 있어서 정치 광고는 큰 수입원 중 하나다. 그러나 지난 대선에서 러시아가 미국 사회의 분열을 부추기는 게시물 등으로 개입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정치 광고에 대한 비판이 높아졌다.

김서영 기자 0jung2@

## 美 서머타임 3일 해제... 다시 불거진 논란

워싱턴 등 7개 주는 영구 적용 추진 반대파 "시간 변경 노인건강 악영향"

3일(현지시간) 미국의 일광절약시간제(서머타임) 해제를 앞두고 '일광 절약'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부상했다.

USA투데이에 따르면 서머타임이 도입된 지 이미 수십 년이 됐지만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서머타임은 3일 새벽 2시를 기해 해제된다. 이 시각에 맞춰 시계바늘(시침)을 시계 반대방향으로 한 시간 뒤로 돌려지게 된다. 즉 새벽 2시가 새벽 1시로 조정되며, 낮 시간도 한 시간 줄어들게 된다.

미국의 모든 주가 서머타임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 애리조나주는 미국에서 평균 기온이 가장 높은 주라는 특성상 서머타임에서 제외된다. 하와이와 미국령 괌과 버진아일랜드, 푸에르토리코도 서머타임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애리조나에서도 나바호 인디언 보호구역은 서머타임을 적용한다.

반대로 앨라배마와 아칸소, 플로리다, 네바다, 오리건, 테네시, 워싱턴 등 7개 주는 영구적인 서머타임 적용을 추진, 관련 결의안도 통과된 상태다. 그러나 서머타임 관련 규정을 변경하려면 연방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미국 내 뉴잉글랜드 지역으로 불리는 메인과 뉴햄프셔, 버몬트, 매사추세츠, 로드아일랜드, 코네티컷 등 북동부 6개 주는 서머타임보다 중요한 것이 시간대 변경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동부 표준시보다 1시간 이른 대서양 표준시를 적용하면 자신의 주에서 효과적으로 일광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논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3월 트위터에 "영구적인 서머타임 절약을 나에게서 OK"라는 트윗을 날리기도 했다.

서머타임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1년에 인위적으로 두 차례 시간을 변경하면 노인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뇌졸중과 심장병 위험을 높인다고 주장한다.

배준호 기자 baehj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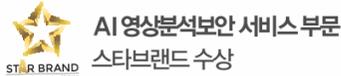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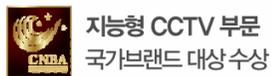


# 24시간 지켜주는 눈



## GiGAeyes

침입 감지 시, 실시간 영상분석으로  
알아서 출동하는 지능형 출동 보안서비스



끊김 없는 FULL HD  
선명한 200만 화소  
FHD 영상



안전한 원격저장  
화재, 도난, 해킹 등에 의한  
영상 유실 걱정 끝



지능형 영상분석  
침입/이탈/배회감지는 물론,  
카운팅 등 마케팅 분석까지



깔끔한 매장 인테리어  
영상저장장치/주장치가 없어,  
인테리어 훼손 걱정 끝



KT 통신상품 결합  
유무선 통신상품과 결합 시  
할인 혜택 제공



상품문의/신청 1522-0123



# 사기전화 차단 '기업銀 피싱스톱' 은행권 대표 혁신 서비스로 선정

**제1회 정부혁신 박람회 출품**  
보이스피싱 피해 31억 예방 성과  
행안부 심사단 우수사례로 꼽아  
22~24일 금융위와 체험부스 운영



IBK 피싱스톱의 보이스피싱 분석 화면. 사진제공 IBK기업은행

IBK기업은행이 혁신 서비스 제공 은행으로 선정돼 은행권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 정부혁신 박람회'에 참여한다. 기업은행은 금융사기 전화를 실시간으로 차단하는 'IBK 피싱스톱' 서비스를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출품했다.

31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11월 22일부터 24일까지 행정안전부가 주최하는 '제1회 대한민국 정부혁신 박람회'가 DDP(동대문디자인플라자) 알뜰터에서 열린다. 해당 행사에는 전시 부스 54개가 마련되고, 8종의 부대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기업은행은 8종의 부대 행사 중 하나인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IBK 피싱스톱 서비스를 출품했다. 해당 경진대회에서 우수 서비스로 선정된 기관에는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장관상이 각각 4개, 4개, 8개 등 총 16개의 상이 수

치도 지니고 있으면서, 국민이 체감하기에 혁신적인 서비스를 골랐다고 설명했다.

기업은행이 만든 IBK 피싱스톱 앱은 통화 도중 보이스피싱 사기 확률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경고 음성과 진동으로 알려준다. 올해 3월부터 고객과 직원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했고, 총 339건의 보이스피싱 의심 전화를 탐지해 약 30억8000만원의 피해를 예방했다.

올해 8월부터 정식 서비스를 시작했고, 지난달 23일 기준 IBK 피싱스톱 앱 누적 설치자 수는 2만2044명, 누적 앱 이용 통화 건수는 23만1779건, 경고 알림 송출 건수는 631건을 기록했다. 기업은행 고객이 아니어도 구글의 플레이스토어에서 IBK 피싱스톱을 내려받은 금융 소비자는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기업은행은 후후앤컴퍼니와 협업을 통해 스팸차단 앱인 '후후'를 업데이트하면 IBK 피싱스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시중은행 중 이런 보이스피싱 차단 앱을 설치한 은행은 기업은행이 처음이다"면서 "기업은행 고객이 아니라도 국민들이 보이스피싱으로 피해를 입을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나경연 기자 contest@

여된다. 기업은행은 박람회에서 금융위원회와 공동으로 부스를 운영할 예정이며, IBK 피싱스톱 앱을 국민이 직접 체험해보는 체험형 부스로 구성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해당 박람회 부스 운영 대상 기관은 행안부 심사단이 심사 후 선정했다. 행안부는 지난달부터 정부혁신 박람회 TF를 꾸리고 외부 심사위원을 영입해 종합적인 심사를 진행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금융위가 여러 은행의 혁신 사례를 올렸지만, 내부 TF 위원들이 엄격한 심사를 통해 기업은행 서비스를 혁신 서비스로 최종 선택했다"면서 "사회적가

# 방문규 신임 수은 행장이 취임식 前 노조 만난 까닭

**금융인사이트**

방 행장, 官 출신·업력 전무  
임추위 개최 없이 제청·임명  
깜깜이 인사에 뿔난 노조  
출근길 막고 자격 검증 촉구



방문규 신임 수출입은행장이 지난달 29일 임명 이후, 노동조합의 출근 제지로 취임식이 지연되고 있다. 방행장은 공식적으로 임명된 직후 취임식을 열고자 했으나 노조 측 제안으로 아직 취임 날짜를 확정하지 않았다.

방행장은 국제청을 거쳐 잠시 농림식품부에 근무한 경력을 제외하고 줄곧 기획재정부에 몸담은 관료 출신이다. 공공기관은 물론 금융업계에는 전혀 관련 경력이 없다는 게 노조의 평가다. 사실상 노조는 방행장에게 자격을 묻는 것이다.

방행장은 주로 기획예산처와 기획재정부에서 대부분의 관료 생활을 지냈다. 서기관·사무관 시절부터 예산청과 과학예산, 국고국 회계총괄과에서 예산 업무를 맡았다. 이후에도 기획예산처 재정정책과장과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업무를 전담할 정도로 해당 부문이 공직 생활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방행장은 임명 첫날도 본사에 출근하지 않고 외부에서 업무 보고를 받았다. 방행장의 임명을 반대하는 노조의 태도에는 '깜깜이 인사'에 대한 불만도 자리한다. 그간 노조는 임원추천위원회를 열어 수은 행장 후보자를 검증하자고 요청했으나 이뤄지지 않았

다. 임추위를 열면 수은을 잘 아는 사람으로 선정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기타공공기관인 수은은 임추위를 반드시 열지 않아도 된다. 2008년 진동수 전 위원장이 임추위를 거쳐 수은 행장에 임명된 바 있다. 이후 수은 행장은 매번 임추위가 생략된 채 제청·임명됐다.

특히 노조가 행장의 자격을 검증하려는 이유는 수은을 영전의 단계로 인식하는 탓에 수은을 잘 모르는 인사가 임명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진동수·최종구 전 위원장을 비롯해 은성수 현 위원장까지 수은을 거쳐 금융위원회 수장이 됐다.

현재 수은은 서울 여의도 본사 사옥 1층에 '깜깜이 인사에 반대한다'는 현수막을 걸고 행장의 출근을 막고 있다.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을 제외하고 이덕훈 전 행장과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4~5일간의 출근 제지를 당했다. 이후 노조와 대화 후에 공식 취임식을 열었다. 방행장이 노조와 가장 먼저 접촉한 이유다. 향후 방행장의 업무 파악 단계에 따라 취임식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박찬산 기자 jinsan@  
나경연 기자 contest@



"농협銀, 2021년 홍콩지점 개설" 이대훈(왼쪽 첫 번째) 농협은행장이 지난달 30일 서울 중구 농협은행 본사에서 스티븐 필립스 홍콩투자점장과 면담하고 있다. 사진제공 NH농협은행

<하나은행장>

# '배달의 민족' 만난 지성규... 맞춤형 서비스 고도화 '전략 행보'

김봉진 대표와 협력 사업 논의  
오픈뱅킹 시대 경쟁력 확보 초석

지성규 KEB하나은행장이 오픈뱅킹 서비스가 시작되는 첫날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 김봉진 대표를 만났다. 자사 앱 '하나원큐'의 고객맞춤형 서비스를 고도화하기 위한 전략적인 행보로 풀이된다. 오픈뱅킹이 도입되면서 하나의 은행 앱으로 모든 은행 계좌 업무를 볼 수 있게 됐다. 서비스에 뒤처지는 앱은 고객의 스마트폰에서 가차없이 삭제된다. 경쟁사가 가입자를 유지할 수도 있지만, 주 거래고객을 잃을 수 있는 기회이자 위기다.

3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행장은 지난달 30일 오전 김 대표를 만나 티타임을 가졌다. 은행장이 기업인을 만나는 일은

통상적인 일이다. 하지만, 시가상 지행장이 김 대표를 만난 것은 여러모로 의미가 있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짧은 만남이었지만, 지행장은 김 대표와 금융과 배달업의 협력 사업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맞춤형 고객전략'을 통해 오픈뱅킹 경쟁에서 경쟁사들보다 한발 앞서가겠다는 의도가 담겨있다.

실제로 지행장은 그동안 배달의 민족을 업계 1위로 만든 정교한 소비자 패턴 분석력에 관심을 보였다. 지행장이 배달의 민족이 운영하는 고객 맞춤형 주문 메뉴 추천 알고리즘 방식을 하나은행 금융 서비스에 적용하기 위해 의견을 교환했다는 후문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사업제휴를 추진하기 위해 만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자세

한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경쟁사인 신한은행은 8월 카이스트와 손잡고 한발 앞서 자체 AI 알고리즘 기술 개발에 나선 상태다. 신한금융그룹은 국내 금융사 최초로 카이스트와 금융 특화 AI만 연구하는 전문센터를 열었다. 여기서 개발된 소비패턴·알고리즘을 개발해 은행·카드 등 영업현장 반영할 계획이다.

사업협력과 관련해 배달의 민족 측은 "우리는행이 주거래 은행이었는데 최근 하나은행도 추가했다. 사업적인 내용보다는 서로 안부 정도 주고받는 티미팅을 했을 뿐"이라고 말을 아꼈다.

한편, KEB하나은행은 1월 배달의 민족과 제휴를 통해 연 0.5% 우대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간편 대출 상품 '이지페이론'을 출시하는 등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김범근 기자 nova@

# 토스 "전 회사 연봉의 1.5배 드려요"

인행 도전에 경력직 모집 사활  
첫 월급일 보너스로 최대 1억

제3인터넷은행에 출사표를 던진 토스가 인재 확보를 위해 파격적인 보상을 내걸었다.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는 경력 입사자에게 전 회사 연봉의 1.5배를 제인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여기에 전 회사 연봉에 준하는 금액을 입사 후 첫 월급일에 보너스로 일시 지급한다. 최고 한도는 1억 원이다. 보너스는 돈이 아닌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으로 받을 수도 있다. 다만 입사 1년 이내 퇴사할 경우혜

택이 취소된다. 채용 부문은 △비즈니스 제휴 △디자인 △전략 △인사 △회계 등이다. 앞서 토스는 올해 초에도 재직자 연봉을 1.5배 인상했다. 전 직원에게 당시 기업가치 기준 1억 원 상당의 스톡옵션도 제공했다.

현재 토스는 출퇴근 시간을 스스로 조절하는 자율 출퇴근제와 사용에 제한이 없는 원격 근무제를 운영 중이다. 휴가를 다녀올 때도 승인받을 필요가 없다. 회사 목표 달성 시 전 구성원은 동일 비율의 인센티브를 받는다.

이승건 대표는 "불필요한 것에 신경 쓰지 않고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런 보상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박선현 기자 sunhyun@

# 올 상반기 보험사기 4134억

올해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 금액이 전년 대비 소폭 증가했다. 대부분 자동차 보험사기였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4134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34억 원 증가(3.4%)했다.

같은 기간 적발 인원은 4407명 증가(11.4%)한 4만3094명으로 집계됐다. 2017년 상반기 이후(4만4141명 적발) 역대 2번째로 많은 인원이다.

유형별로는 허위·과다 사고가 3130억 원(75.7%)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

했다.

손해보험을 이용한 보험사기는 3732억 원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110억 원(3%) 늘었다. 이 기간 자동차 보험사기(93억 원)가 5% 증가한 탓이다.

장기손해보험을 이용한 보험사기는 2015년 이후 높은 증가율을 지속하며 지난해 처음으로 자동차보험 적발 금액을 추월했으나, 최근 들어 둔화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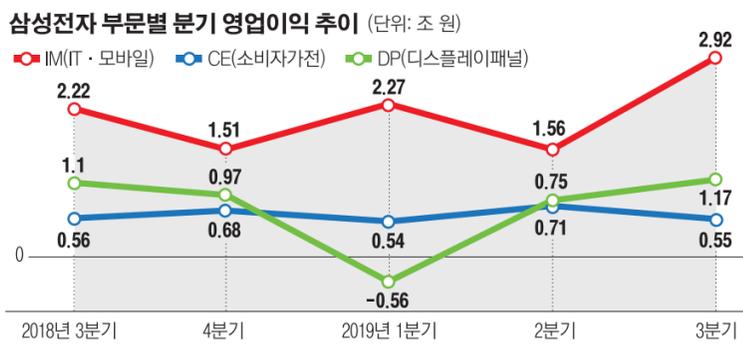
혐의자 성비는 남성이 68.3%(2만9429명), 여성은 20.7%(1만3665명)로 전년도와 비슷했다. 이들의 직업은 회사원(19.7%), 전업주부(10.4%), 무직·일용직(9.3%) 순이었다. 서지연 기자 sjy@

# 삼성 '반도체 보릿고개' 스마트폰이 구했다

반도체 3Q 영업이익 3조 톱걸이  
인텔 이어 TSMC에도 뒤져  
스마트폰 2.9조 '기대 이상'  
점유율도 60개국서 올라

삼성전자가 거둔 3분기 영업이익 7조 7800억 원은 시장 기대치를 웃도는 성적이다. 메모리반도체 가격 하락으로 반도체 사업 실적이 전년 대비 크게 줄었지만, 스마트폰 부문에서 깜짝 실적을 기록하며 전체 실적을 선방했다.

반도체 사업은 3분기에 매출 17조5900억 원, 영업이익 3조500억 원을 올렸다. 지난해 같은 기간 사상 최대 영업이익(13조6500억 원)을 냈던 것과 비교하면 초라한 성적표다. 2분기 영업이익 3조 4000억 원으로 11분기 만에 처음 4조 원을 밑돈 데 이어 이번에는 3조 원을 간신히 넘겼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메모리의 경우 전반적인 업황 약세 속에 가격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 이익이 감소했고, 시스템LSI도 모바일AP 제품의 판가 하락으로 전년 대비 이익이 줄었다"고 말했다.

특히 삼성전자가 인텔에 글로벌 반도체 1위 자리를 반납한 데 이어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 TSMC에도 추월당했다. 1위 인텔과의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고 있으며, 아래에서는 TSMC가

삼성을 바짝 추격하는 모양새다.

TSMC는 3분기 영업이익이 1079억 대만달러(약 4조1300억 원)로, 창사 이래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 TSMC 영업이익은 삼성전자 반도체에 1조 원 가까이 앞섰다.

3분기 누적 기준으로 보면 TSMC의 영업이익은 2485억 대만달러(약 9조5100억 원)로, 삼성반도체(10조5700억 원)를 근소한 차이로 추격하고 있다.

3분기 삼성전자 실적을 이끈 건 스마트폰 사업이다. 스마트폰 사업을 담당하는 IM(IT·모바일) 부문은 매출 29조2500억 원, 영업이익 2조9200억 원을 기록했다. 애초 증권가에서는 2조 원 초·중반대 영업이익을 예상했는데, 기대치를 많이 상회했다.

2분기 IM 부문 영업이익은 갤럭시S10 판매가 둔화하면서 1조5600억 원까지 떨어졌는데, 갤럭시노트10 출시 효과로 3분기 영업이익이 전 분기보다 1조 원 이상 올랐다. 작년 3분기 영업이익(2조2200억 원)과 비교했을 때도 크게 증가해 작년 1분기(3조7700억 원) 이후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에 따르면 갤럭시노트10이 출시된 8월 삼성전자는 조사 대상 국가 90여 개국 중 60여 개국에서 전년 대비 점유율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디스플레이 사업 역시 3분기 영업이익 1조1000억 원으로 호조세를 보였다.

LCD사업 침체에도 불구하고 중소형 OLED 가동률 확대와 생산성 향상 등에 따른 원가 절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이익이 증가했다.

TV와 생활가전을 담당하는 소비자 가전(CE) 부문은 영업이익 5500억 원으로 작년 동기와 큰 차이가 없었다.

다만 QLED TV 등의 판매 호조에도 불구하고 LCD TV의 가격 경쟁이 심화하면서 전 분기와 작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이 줄었다. 생활가전에서는 비스포크 냉장고 등 맞춤형 가전이 인기를 얻으면서 실적 개선으로 이어졌다는 게 회사의 설명이다.

TV 사업은 통상 연말 마케팅 비용 증가로 4분기 영업이익률이 낮아지지만, 프리미엄 TV 판매 비중 확대로 대응하겠다는 전략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내년에도 8K TV 라인업을 강화해 시장의 본격 성장을 주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영록 기자 syr@  
권태성 기자 tskwon@

## 포스코 연말 행사 '기업시민 페스티벌'로 탈바꿈

IP 페스티벌 17년 만에 업그레이드... '기업시민' 성과 공유

포스코가 매년 연말에 진행하던 전사적 행사인 'IP(Innovation POSCO) 페스티벌'을 17년 만에 폐지하고 '기업시민 페스티벌'을 새롭게 개최한다. 이번 페스티벌을 통해 최정우(사진) 포스코 회장이 경영이념으로 실천해 온 기업시민 행보의 피날레를 장식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새롭게 바꿨다. 포스코가 2002년부터 매년 개최하는 IP 페스티벌은 해마다 1700여명의 임직원이 참석하는 포스코 그룹의 전사적 행사

다. 혁신 관련 주제를 통해 1년간의 혁신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우수 프로젝트에 대해 포상하고 스토리를 들려주는 자리다. 2017년에는 '세상을 움직이는 변화-Innovation for Smart'로, 2016년에는 '함께하는 혁신, Go Together' 주제로 각

각 개최했다. 업계에서는 올해 페스티벌 명칭에 '기업시민'이 더해지는 만큼 행사 내용도 달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 페스티벌이 혁신 활동 성과와 내년도 혁신 방향을 공유하는 성격이 강했다면, 올해 열리는 '기업시민 페스티벌'은 최정우 회장의 취임 이후 포스코가 보여준 기업시민의 가치와 성과를 나누는 자리가 될 것이라 전망된다.

포스코는 최 회장 취임 이후 줄곧 '기업시민' 페달을 밟아왔다. 지난해 12월 기업시민 활동의 방향을 논의하는 자문기구인 '기업시민실'을 만든 데 이어 올해 7월에는 기업시민 실천 원칙을 담은 '기업시민헌장'을 발표하기도 했다. 김기송 기자 kissong@

현대자동차는 31일 서울 광화문에서 고속형 경찰 수소전기버스 1대를 공개하고, 경찰수소버스 보급 확대를 위한 협약(MOU)을 체결했다. 사진은 현대차가 이날 첫선을 보인 고속형 경찰 수소전기버스. 사진제공 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는 31일 서울 광화문에서 고속형 경찰 수소전기버스 1대를 공개하고, 경찰수소버스 보급 확대를 위한 협약(MOU)을 체결했다. 사진은 현대차가 이날 첫선을 보인 고속형 경찰 수소전기버스. 사진제공 현대자동차

## SK이노, 영업이익 60% 줄었지만...배터리 손실 개선

3분기 정유 부진, 비정유로 버티

SK이노베이션이 정유사업 부진으로 수익성이 급감했다.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국제유가 하락 등의 악재를 만나며 정유부문은 실적 악화를 면치 못한 것이다.

하지만 비(非)정유사업이 정유사업의 부진을 상쇄하면서 실적 지지대 역할을 했다. 화학, 운할유 등 비정유사업의 확대가 정유 업황의 변동성을 잡으며 추가 실적 악화를 막았다.

특히 신성장동력인 배터리 사업이 손실 폭을 3개 분기 연속 줄이는데 성공하며 정상 궤도로 안정화 가능성을 보여줬다.

SK이노베이션은 3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3301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0.5% 감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같은 기

간 매출액은 12조3725억 원으로 17.3% 줄었으며 당기순이익은 1742억 원으로 62.1% 급감했다. 전 분기 대비로는 영업이익은 33.7%, 매출액은 5.6% 감소했으며, 당기순이익은 3.1% 증가했다.

사업 부문별로 보면 3분기 석유사업은 유가 하락에 따른 재고 관련 손실 증가로 전 분기 대비 2134억 원 감소한 659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화학·운할유사업의 경우는 계속된 글로벌 신·증설 및 경기 둔화 여파로 3분기에 도 포함세 시황이 이어졌다.

석유개발사업은 2분기 페루 광구 정기 보수 이후 3분기 가동 정상화에도 불구하고, 운영비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전 분기 대비 25억 원 감소한 485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배터리사업 역시 손실폭이 줄어드는 고무적인 결과가 나왔다. 배터리사업은 재고 관련 손실 감소 및 매출 증가 영향으로 전 분기 대비 244억 원 개선된 427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올 들어 배터리 사업 부문의 적자폭이 지속적으로 줄어들면서 본격적으로 수익을 낼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배터리사업은 내년 초 헝가리, 중국 공장의 상업생산도 예정돼 있어 실적 개선세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소재사업은 리튬이온배터리분리막(LiBS) 판매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일시적 운영비용 증가로 전 분기 대비 19억 원 감소한 254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4분기 총액 증평 LiBS공장 12·13호기 양산이 시작되면 소재사업 실적 기여도는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김유진 기자 eugene@

## LG전자, SW 국제 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

LG전자는 자사 소프트웨어(SW) 공인 시험소가 최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 표준인 산하의 한국인정기구(KOLAS)로부터 소프트웨어 분야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받았다고 31일 밝혔다.

LG전자는 "국내 제조업체 가운데 소프트웨어 분야의 국제공인시험기관을 갖춘 곳은 LG전자가 유일하다"고 강조했다.

LG전자 소프트웨어 공인시험소는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의 품질 측정에 관한 국제표준 ISO/IEC 25023에 따라 기능 적합성, 성능 효율성, 호환성, 사용성 등을 시험해 공인시험성적서를 발급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 공인시험소에서 발행하는 공인시험성적서는 국제인정기구 상호인정협정(ILAC-MRA)에 따라 미국, 유럽, 일

본 등 70여 개국 시험기관에서 상호 인정되며 국제적으로 동등한 효력과 공신력을 지닌다.

박일평 LG전자 CTO(사장)는 "그동안 플랫폼 오픈, 인공지능 서비스 확장, 분야별 전문가 육성 등 소프트웨어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기능이 많아지고 점점 더 복잡해지는 소프트웨어의 품질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공인시험소 인정을 추진했다"고 강조했다. 현영대 기자 yeongdai@

## '대만 실리콘밸리'서 영감 얻은 허창수

GS 사장단 타이베이 회의 "글로벌 혁신 DNA 배워야" 美 벤처 투자법인 설립키로



허창수 GS 회장이 대만 혁신기업 TM로봇의 로봇 시연을 보고 있다. 사진제공 GS

허창수 GS 회장을 비롯한 GS 사장단이 대만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igital Transformation) 시대에 맞는 글로벌 시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미국 실리콘밸리에 벤처 투자법인 설립도 추진키로 했다.

이 자리에서 허 회장은 기존의 성장 방식이 한계에 다다른 만큼 '아시아 실리콘밸리'를 조성하고 있는 대만의 혁신기업처럼 새로운 방식의 성장동력을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GS그룹은 지난달 30~31일 이틀간 대만 타이베이에서 사장단회의를 열어 글로벌 기업의 혁신 DNA를 배워 GS의 역량으로 만들어 가는 데 집중하기로 했다. GS는 2011년부터 성장에 기대되는 해외 시장에서 매년 사장단 회의를 개최해오고 있다.

허 회장은 회의에서 "GS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열린 학습과 경험의 축적을 통해 한계를 극복하며 글로벌 전략을 추진해 왔다"며 "글로벌 시장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쌓기 위해서는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바

이오 등 신기술을 앞세워 아시아 실리콘밸리의 꿈을 이루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는 대만의 혁신 기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의 흐름에 맞춰 열린 마음으로 글로벌 기업의 혁신 DNA를 배워 우리의 역량으로 삼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 GS 사장단은 벤처 투자 환경 및 동향에 대한 깊이 있게 논의를 통해 미국 실리콘밸리에 벤처 투자법인 설립을 추진키로 했다. GS는 글로벌 사업 트렌드에 발맞춰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기 위한 세부안을 마련, 내년 상반기 중 벤처 투자법인 설립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유진 기자 eugene@

# 현대차, 中 인적쇄신...중국통 대신 전략통 택했다

이광국 국내본부장, 中 총괄 사장으로 승진  
연구소장엔 中 폭스바겐 출신 파투쉬카 영입  
정의선 부회장, 중장기 비전으로 도약 복안

정의선 현대차그룹 총괄수석부회장이 중국 시장을 대상으로 대대적 인적쇄신에 나섰다.

그동안 이른바 '관시(關係·관계)'로 통하는 '현지통'을 앞세웠던 반면, 이제는 전략과 기술에 집중하겠다는 전략적 판단으로 풀이된다.

현대자동차그룹은 31일 현대·기아차 중국사업총괄에 현대차 국내사업본부장인 이광국 부사장을 사장으로 승진 임명했다고 밝혔다. 또 폭스바겐 중국 연구개발(R&D) 담당을 지낸 스벤 파투쉬카(Sven Mirko Patuschka)를 현대·기아차 중국기술연구소 연구소장으로 영입했다.

이번 인사는 글로벌 자동차 산업의 최대 격전지인 중국 시장에서 리더십 변화를 통해 현지 대응력과 경쟁력을 제고하고 재도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차원으로 분석된



이광국 中 총괄사장 파투쉬카 中 연구소장

다. 최근 중국사업 부문 조직개편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인사로, 리더십 체계를 한층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최근 현대·기아차는 중국사업 부진 타개를 위한 조직개편과 리더십 변화 등 행보를 지속하고 있다. 4월 중국사업 임직원을 중국으로 전진 배치한 데 이어 8월에는 중국 지주사 중심의 강력한 의사결정 체계를 갖추기 위한 조직 재정비를 마쳤다.

또한 9월에는 동평위에다가이가 판매



현대차의 중국 전략형 SUV ix25.

사진제공 현대차

및 관리 역량이 검증된 리펑(李峰) 총경리를 임명한 바 있다. 기아차가 현지인을 중국법인 CEO로 선임한 것은 처음이다.

무엇보다 이른바 관시로 통했던 현지통 인물 대신, 전략과 기술로 승부하겠다는 정 부회장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분석된다.

정몽구 회장이 글로벌 경영을 앞세워 초기 중국사업을 확대하던 당시에는 설영홍 중국사업담당 부회장이 전략을 이끌었다. 이른바 관시가 통하는 중국시장에서 초기

시장 확대를 주도한 인물이다. 반면 이제 그룹의 경영전략과 기술력을 앞세워 현지 시장 회복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신임 중국사업 책임자인 이광국 사장은 독일, 영국 등 풍부한 해외사업 경험과 다양한 대내외 네트워크,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보유한 적임자로 평가된다. 국내 사업본부장을 지낸 동안에는 성공적 신차 론칭과 차별화된 마케팅, 고객과의 소통 활동 등 현대자동차의 판매 및 브랜드 혁신을

이끌었다. 이 같은 활동 덕분에 정 부회장의 신임이 두터웠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광국 사장은 앞으로 현대·기아차 중국사업을 총괄하며 판매 증대를 통한 사업 경쟁력 강화와 브랜드 가치 제고, 중장기 비전 수립 및 사업 전략 구체화 등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현대·기아차 중국기술연구소장을 맡게 된 스벤 파투쉬카 연구소장은 10여 년간 쌓은 중국시장에 대한 전문지식과 통찰력을 바탕으로 중국 현지 모델들의 경쟁력을 한 단계 더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스벤 파투쉬카 소장은 중국 시장 특성을 반영한 차량개발 전략과 방향성을 수립하고 현지 전략 모델 개발 업무를 총괄하며 중국사업 재도약을 위한 R&D 경쟁력 제고에 앞장서게 된다. 특히 현대·기아차가 중국시장에서 '스마트모빌리티 솔루션 제공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빌리티 혁신을 주도할 계획이다.

한편, 현대차 국내사업본부장은 경영지원본부장 장재훈 부사장이 겸직한다. 기존 중국사업총괄 이병호 사장은 고문으로 위촉됐다. 김준형 기자 junior@

Wenger®

Swiss Made

Watches

3 Year Warranty

Seaforce Chrono

01.0643.111

**A Swiss Company since 1893**

**WENGER®**

wenger.co.kr

KOI COMPANY Co.,Ltd. 02)6403-2112

## “해운업 세계 지원, 10년 전으로 역행”

“EU·日 해운 우대정책 펴는데  
韓, 조세혜택 폐지·감소”

해양수산개발원 보고서 지적

정부가 마련한 국내 기간산업인 해운업에 대한 조세제도가 10년 전으로 역행하고 있다. EU, 일본 등 해운 주요국들이 글로벌 금융위기로 불황이 지속된 지난 10년간 신규 세제 지원 정책을 수립하는 동안 우리 정부는 지원 규모를 축소하고, 관련 정책은 폐지했다.

31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이 최근 발표한 ‘해운조세제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해운업계는 조세 지원정책의 일환으로 오랜 기간 선박특별상각제도 확대, 선박 대체취득특례, 외국자회사합산세제, 중소기업 투자 촉진 세제 제도 등을 요구 왔지만 실제 개선된 정책은 거의 없었다.

해운회사의 선박은 유형 고정자산으로 인정돼 세법상 감가상각(선박특별상각제도)이 허용된다. 고속상각이 이뤄질 경우 선박 한 척당 2억~3억 원에 달하는 법인세가 추가로 감면될 수 있다.

문제는 우리나라 감가상각 정률법 상각률(0.182)이 주요국 대비 낮다는 점이다. 영국과 노르웨이는 0.20, 덴마크의 경우 0.21의 상각률이 적용되고 있다. 글로벌

경쟁을 위해서는 타국과 동등한 수준이 되어야 한다는 게 업계 주장이다.

선박대체취득특례제는 자산 매각 시 그 가격을 실제 매도가보다 낮게 설정, 자산 처분이익에 대해 발생하는 법인세를 감면(압축기장)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2008년 세계 해운 불황으로 EU, 일본 등 해운 주요국들이 도입한 우대세제 정책인 이 제도를 우리나라는 2009년 폐지했다. 다른 혜택들과 중복된다는 이유에서다.

외국자회사합산세제 역시 다른 해운 주요국과 비슷한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 자회사에서 발생한 소득을 배당소득으로 인식해 특별상각 및 압축기장을 허용하고 있지 않다.

중소기업 투자촉진 세제의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됐다. 정부(기획재정부)는 올해부터 신규 설비투자(지나해 7월 이후)에 대해 가속상각(상각률 인상)을 적용기로 했다. 하지만 장기간 불황으로 중소기업의 발주는 거의 없는 상황이며, 대부분 적자를 내고 있어 사실상 법인세도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비용절감을 위해 안간힘을 쓰는 선사들을 위한 실질적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유미 기자 jscs508@

## 르노삼성·LG화학, 전기차 폐배터리 ESS 활용 맞손

르노삼성자동차가 LG화학과의 업무협약(MOU)을 맺고 국내 전기차 폐배터리를 활용한 에너지저장장치(ESS; Energy Storage System) 개발 사업에 협력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르노삼성은 우선 전기차 SM3 Z.E. 폐배터리 40대를 LG화학에 제공하고, LG화학은 받은 폐배터리를 새로운 ESS 개발에 활용할 계획이다.

LG화학은 전기차 폐배터리에 최적화된 ESS를 2021년까지 구축 및 시험 운영할 예정이다.

르노삼성은 SM3 Z.E.를 비롯해 향후

초소형 전기차 르노 트위지 및 이후 출시 예정인 전기차의 폐배터리도 이번 사업에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전기차에 사용되는 배터리는 다양한 가혹 환경에서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 안정성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폐배터리를 ESS로 재활용할 경우 기존 전기차 고객의 배터리 교체 비용 절감 효과 역시 기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전기차 판매량 증가세에 맞춰 향후 늘어날 폐배터리에 대한 재사용 방안 연구가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다.

김준형 기자 junior@

# 보험, 아직도 따로 컨설팅 받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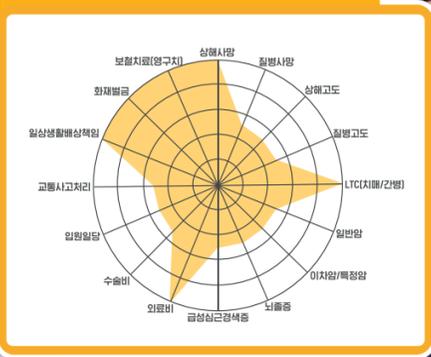
## KB종합금융컨설턴트

KB는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을 한 번에 상담할 수 있는  
종합금융컨설턴트가 있는 특별한 보험이니까  
보장분석시스템을 통한 전문성과 통합관리의 노하우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딱 맞는 안심을 설계하는 보험

### 보험은 역시 KB입니다



내게 딱 맞는 컨설팅을 빠르고 정확하게!  
**KB 보장분석시스템**



• 주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17 KB손해보험 빌딩 [www.kbinsure.co.kr](http://www.kbinsure.co.kr) • 고객센터: 1544-0114  
 •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2길 28 KB 금융타워 [www.kbli.co.kr](http://www.kbli.co.kr) • 고객센터: 1588-9922

## KB 손해보험 | KB 생명보험

# SKT, 非무선 매출 쑥쑥... '뉴 ICT기업' 변신 착착

3분기 매출 4조5612억 9% ↑... 영업이익 3021억 0.7% ↓  
미디어·보안·커머스 사업 등 非무선 매출 비중 45% 넘어  
5G 가입자 확대 힘입어 무선 매출 8분기 만에 상승 전환

SK텔레콤이 이동통신사를 넘어 뉴 정 보통신기술(ICT) 기업으로 빠르게 변모하고 있다.

31일 SK텔레콤은 3분기 매출에서 비무선(이동전화) 매출 비중이 45%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미디어, 보안, 커머스 사업 비중이 커지고 있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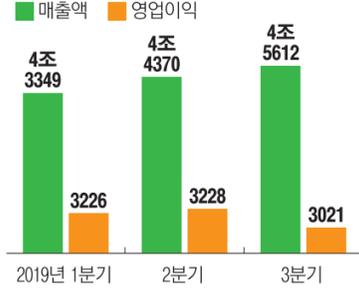
SK텔레콤이 올해 3분기 연결 재무제표 기준으로 매출 4조5612억 원, 영업이익 3021억 원, 순이익 2744억 원의 실적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과 비교하면 연결 기준 매출은 9.0% 늘었고, 영업이익은 0.7% 감소해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순이익은

전 분기 대비 5.9% 상승했지만 전년 동기 대비로는 73.9% 줄었다.

무선(이동전화) 매출은 전년보다 0.1% 증가해 8분기 만에 전년 동기 대비 상승 전환했다. 무선 매출은 5G 가입자 확대로 2조4864억 원을 기록해 전년 대비 0.1%, 전 분기 대비로는 2.1% 증가했다. SK텔레콤 5G 가입자는 9월 말 기준 154만 명을 넘어섰다.

SK텔레콤은 고객가치 혁신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시행한 결과 3분기에도 1.0%의 낮은 해지율을 달성했으며, 2019년 '한국산업의 고객만족도(KCSI)' 조사에서

SK텔레콤 실적 추이 (단위: 억 원)



22년 연속 이동통신 부문 1위에 올랐다.

반면 별도 기준 영업이익은 5G 마케팅비, 네트워크 투자비 증가로 2528억 원을 기록해 전년 대비 18.6%, 전 분기 대비로는 8.2% 각각 감소했다.

눈에 띄는 점은 SK텔레콤 3분기 연결 매출 가운데 비무선(이동전화) 매출 비중은 45%를 넘어섰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미디어, 보안, 커머스 사업이 실적을 견인하고 있으며, SK텔레콤이 이동통신사를 넘어 New ICT 기업으로 빠르게 변모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평가했다.

미디어 사업은 IPTV 매출의 견조한 성장세를 기반으로 '종합 미디어 서비스'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3분기 IPTV 매출은 3337억 원으로 전년 대비 14.0%, 전 분기 대비 3.6% 각각 상승했다.

SK텔레콤은 '옥수수'와 방송3사의 '폭(POOQ)'을 통합해 9월 새 OTT 서비스 '웨이브(wave)'를 출범했으며, 2023년까지 유료 가입자 500만 명을 확보하고 글로벌 시장에 단계적으로 진출하겠다는 포부다. 또한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합병을 추진하며 정부 인허가 절차를 밟고 있다. 두 회사의 합병 심의는 6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진행된다.

보안 사업 매출은 ADT캡스와 SK인포

섹의 성장에 힘입어 전 분기 대비 3.0% 증가한 3060억 원을 기록했다. ADT캡스와 SK인포섹은 다양한 신규 IoT 서비스를 꾸준히 선보이며 매출을 확대하고 있다.

커머스 사업 매출은 11번가 수익성 중심 경영과 SK스토어의 매출 증가로 인해 1885억 원을 달성했다. 영업이익은 15억 원으로 3분기 연속 흑자를 달성했다.

SK텔레콤은 New ICT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최근 카카오와 3000억 원 규모의 지분을 교환하고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기도 했다. 양사는 통신, 커머스, 디지털 콘텐츠, 미래 ICT 4대 분야에서 긴밀하게 협력할 계획이다.

윤풍영 SK텔레콤 코퍼레이트센터장은 "카카오와 협력을 발표했듯 전략위 협력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뉴 ICT 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이재훈 기자 yes@

## '네이버 통장' 내년 출시...금융시장 공략 본격화

오늘 '네이버 파이낸셜' 출범  
주식·보험 등 금융상품 출시  
후불 결제 서비스도 검토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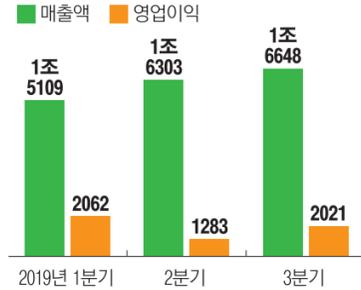
3분기 영업이익 8.9% 줄었지만  
매출 1조6648억... 19% 경증

네이버가 1일 '네이버 파이낸셜'을 설립하고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결제 서비스로 성장하겠다고 밝혔다. 내년에는 통장을 비롯한 다양한 금융상품도 출시할 계획이다.

네이버는 31일 진행된 2019년도 3분기 실적 발표 콘퍼런스콜에서 "네이버 파이낸셜 설립 후 2~3년간 금융 상품 출시를 계획 중"이라며 "내년 '네이버 통장'을 출시하고 주식·보험 등 금융상품도 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네이버 파이낸셜은 네이버 사업부문 중 네이버페이 CIC(사내독립기업)를 물적

네이버 실적 추이 (단위: 억 원)



분할 형태로 분사해 새로 설립하는 법인이자다. 네이버파이낸셜은 생활 금융 플랫폼으로의 변화를 시작한 테크핀 시장에서 본격적인 금융서비스를 만들어갈 계획이다.

최인혁 네이버 파이낸셜 대표는 "네이버 페이가 가지고 있는 결제의 강점을 활용해 쇼핑과 밀접하게 연계한 후불 결제 서비스도 고려 중"이라며 "네이버 파이낸셜은 커머스 플랫폼 기반의 결제 서비스를 중심으로 성장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뿐만 아니라 클라우드 부문에서도 금융서비스와의 연계를 추진하고 있다. 네이버는 클라우드 3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증가하며 계획한 대로 성장하고 있다.

한성숙 네이버 대표는 "9월 중 금융 클라우드 구축을 완료해 금융 클라우드 시장 공략을 시작했다"며 "금융 클라우드 존은 코스콤과 협력한 결과로 국내 망 분리 등 규정을 완벽하게 준수했다"고 말했다.

한편 네이버는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2021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9% 감소했지만 같은 기간 매출액은 1조6648억 원으로 19.1% 증가하며 반등에 성공했다. 사업 부문별 매출액을 살펴보면 비즈니스 플랫폼이 7193억 원으로 43%를 차지했으며 라인 및 기타 플랫폼은 6220억 원으로 38%를 나타냈다. 이외에도 광고 1527억 원(9%), IT플랫폼 1163억 원(7%), 콘텐츠 서비스 545억 원(3%) 등이다.

조성준 기자 tiatio@

### 개성공단기업인, 현재 앞 한달째 1인 시위

## “개성공단 내일이라도 열리면 달리 뛰서라도 들어가겠다”

“공단 폐쇄 위험” 헌법소원  
3년 반 지나도 감감무소식  
“빨리 결정해 달라” 호소

“개성공단이 내일이라도 다시 열리면 달려서라도 올라갈 겁니다.” 개성공단기업협회 소속 주방용품 제조업체 신영스텐의 김성선(58) 관리부장은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다. 31일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만난 김씨는 개성공단 중단에 대한 위헌 확인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었다.

개성공단기업협회의 1인 시위는 릴레이 형식으로 10월 1일부터 진행돼 이달 1일자로 한 달을 맞았다. 정기집 개성공단기업협회장이 첫 번째 시위자로 나서 이날까지 이어진 시위는 평일 오전 8시 반부터 오후 6시 반까지 진행된다. 시위는 11월 말까지로 예정돼 있으며 연장 여부는 검토 중이다.

개성공단 폐쇄가 신영스텐 직원 한 명 한 명에게 충격이었던 이유는 신영스텐이 당시 물량의 99%를 개성공단에서 생산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김 부장은 "사장님은 더 하셨습니다, 당시 저도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는 기분이었다"고 회상했다.

폐쇄 뒤 신영스텐은 남북경협 보험금으로 피해를 일부 보상받았다. 그러나 김 부장은 "개성공단에 생산 물량을 거의 다 의존했기 때문에 회사는 기계 설비를 마련하는 데 보험금을 다 쓸 수밖에 없었고, 매출액은 현재 회복했다고 해도 당시의 반토박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매출액이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회사의 대출 신용도 떨어졌다. 김 부장이 개성공단이 재개하면 "달려서 뛰서라도" 들어가겠다고 말한 배경이다.

10월 1일 릴레이 1인 시위 시작 당시보다 현재 개성공단기업협회의 상황은 더 안 좋아졌다. 김정은 북한 국



김성선 신영스텐 관리부장이 31일 서울 중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무위원장직이 최근 금강산을 현지 지도하던 중 '남측 시설을 싹 들어내라'고 지시한 것이 알려지면서다. 개성공단 재개 여부가 불투명한 가운데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시름은 더 깊어졌다.

정 회장은 북측의 금강산 시설 철거 발언에 관해 이날 "우리가 뒤늦게 감지했을 뿐 북한은 올봄부터 한국이 자주적으로 무언가를 결정할 수 없다고 생각한 것 같다"고 밝혔다. 즉, 올해 초부터 정부가 남북 관계 개선에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개성공단기업협회는 2016년 5월 헌법재판소에 개성공단 중단에 대한 위헌 확인 헌법소원 심판청구(2016헌마364)를 했다.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가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는 헌법소원이다. 그러나 3년 반째 헌법재판소는 판결을 내리지 않고 있다.

정 회장은 "헌법소원은 우리나라가 법치 국가인지, 사람 입맛대로 통치할 수 있는 인치 국가인지를 판단해 달라는 의미"라며 "법치주의 국가라면 폐쇄 조치가 위헌으로 판결될 것임을 의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개성공단 폐쇄가 위헌이라고 판결이 나온다면 재개의 명분이 더 뚜렷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지민 기자 aaaa3469@

## “게임으로 쉽고 재밌게”... ‘코딩 전도사’ 나선 넥슨

넥슨 청소년 프로그래밍 챌린지 인기 게임 콘텐츠 활용 큰 호응  
4년간 참가자 1만6900여 명

10월 26일 판교 넥슨 사옥에서 열린 제4회 넥슨 청소년 프로그래밍 챌린지(이하 NYPC)의 결과는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다. 전주호성중학교 2학년 반딧불(15)군이 고등학생 참가자들을 제치고 역대 최연소 대상을 차지한 것. 뿐만 아니라 12~14세 부문에서는 초등학생들도 당당히 수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는 등 저연령 참가자들의 약진이 특히 두드러졌다.

이 같은 결과는 코딩 경험의 문턱을 낮추고 한 명의 학생이라도 더 코딩을 재밌게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NYPC의 기획 의도와 일맥상통한다. 확대된 저연령에서 코딩에 관심을 갖는 저연령층이 증가했고, 좋은 결과로도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이다.

코딩은 지난해 중학교 필수 교육과정에 포함되었을 뿐 아니라 올해부터는 초등학교



'제4회 넥슨 청소년 프로그래밍 챌린지'의 본선 대회 수상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넥슨

교 5·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도 연간 17시간 이상의 교육이 의무화되는 등 미래를 위한 알아야 할 필수 언어로 손꼽힌다. NYPC는 이렇듯 대두되고 있는 코딩의 중요성에 비해 일반 학생들의 접근이나 경험 기회가 많지 않다는 점에 주목, 청소년들에게 익숙한 넥슨 브랜드를 활용해 코딩 경험의 문턱을 낮추고자 기획했다. NYPC는 넥슨이 오랜 기간 게임 개발을 통해 쌓아온 기술 분야 노하우와 이를 바탕으로 한 창의적 문제를 출제해 2016년 첫 대회부터 청소년 및 학부모들의 큰 호

응을 얻어왔다. NYPC에서 출제되는 문제가 일반 코딩 대회 문제와 다른 점은 넥슨이 서비스하는 인기 게임의 콘텐츠를 활용하거나, 실제 게임 개발 또는 서비스에서 마주할 수 있는 상황을 적용한 점이다. 올해 NYPC에서도 트라하, 메이플스토리, 카트라이더, 마비노기, 마비노기 영웅전 등 넥슨의 다양한 게임들을 소재로 삼은 문제들이 출제됐다. 한편, 지난 4년간 NYPC에 참여한 누적 예선 참가자 수는 올해로 약 1만 6900명을 돌파했다. 조성준 기자 tiatio@



# 막오른 '한국판 블랙' 코리아세일페스타 최대 80%... 한 달간 역대급 할인

600개사 참가 국내 최대 규모 롯데그룹 10개사 블랙 페스타 신세계 내일부터 롯데이진행 공정위 특약 매입 지침 연기에 백화점 3사 할인 행사도 기대

대한민국 쇼핑 대축제가 11월 개막한다. 코리아세일페스타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는 총 600개의 유통 및 제조 업체가 참가하는 국내 최대 규모다. 특히 11월 초반에는 광군제 수요를 선점하기 위한 이커머스 업체들의 공세가 눈에 띈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규모 유통업체의 판촉비 부담성 지침이 연기되면서 11월 중순 이후에는 백화점들의 할인 이벤트도 기대되는 상황이다.

롯데그룹은 10개의 유통 계열사들이 1일부터 7일까지 7일간 '롯데 블랙 페스타'를 진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올해가 3번째인 이번 행사에는 롯데그룹은 10개 유통 계열사를 동원해 총 1조 원 규모의 물량을 준비했다. 롯데백화점은 오프포인트 모바일 복권 이벤트를 진행하고, 롯데마트는 신선식품과 생활용품 등 총 600억 원 물량의 상품을 최대 50% 할인 판매한다.

신세계그룹은 2일을 '대한민국 썸데이'로 정하고, 대한민국 대표 쇼핑 축제의 날로 선보이기로 했다. 이번 행사는 신세계백화점과 이마트를 비롯해 SSG닷컴, 이마트24, 까사미아 등 18개 신세계그룹 계

열사가 참여하는 초대형 이벤트다. 대표 행사는 유명 와인, 현금처럼 쓸 수 있는 SSG머니, 게이밍 마우스 등을 득템 가능한 '럭키박스' 이벤트다.

홈플러스 역시 27일까지 전 카테고리에서 걸쳐 역대급 세일인 '블랙버스터'를 개최한다.

무엇보다 적극적인 곳은 이커머스 업체다. G마켓과 옥션, G9는 12일까지 연중 최대 쇼핑 축제 '빅스마일데이'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는 판매 스토어 1만여 개가 참여하고, 총 2500만 개의 상품을 선보인다. 할인 규모는 역대급이다. 스마일클럽 고객에게는 기본적으로 '20% 할인쿠폰' 2장을 제공하는데, 최대치로 활용할 경우 사이트별 최대 169만 원씩 총 500만 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11번가는 1일부터 11일까지 총 1713개 브랜드와 함께 역대급 최강의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십일절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위메프도 1일 전 구매고객을 대상으로 50% 적립해주는 '블랙위메프데이'를 열고, H몰은 타미힐피거와 DKNY, 캄빈클라인 등 FW 신상품을 최대 40% 할인한다. SSG닷컴은 행사 기간 내내 최대 80%까지 상시 할인판매를 진행해 '썸데이' 행사의 열기를 이어갈 계획이다.

올해는 편의점도 11월 쇼핑 축제에 적극 동참한다. CU는 11일부터 17일까지 '블랙위크데이' 이벤트를 진행해 최대 규모인 1000개 상품을 대상으로 1+1, 2+1 덤 행사를 연다. GS25는 11월 한 달간 '하나터데이'를 연다. 행사 상품은 역대 최대 규모

인 1500여 종이다. 세븐일레븐과 미니스톱은 1+1 및 2+1 행사로 참여한다.

이번 코리아세일페스타에서 눈에 띄는 점은 이커머스와 대형마트, 편의점의 공세가 매섭다는 점이다. 이들이 행사에 적극적인 이유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판촉보상 지침이 거론된다. 백화점업체가 공정위와의 힘겨투기로 코리아세일페스타 참여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먹을 파이가 더욱 커졌기 때문이다.

공정위가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유통업 분야의 특약 매입 거래에 관한 부당성 심사지침'은 유통업자가 정기 세일 등 행사를 진행할 때 납품업체에 가격 할인을 물어줘야 한다. 대형마트는 직매입 비중이 커 개정에 따른 타격이 크지 않고, 편의점과 온라인 업체는 대규모 유통업체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지만 공정위가 31일 적용하기로 했던 판촉보상을 내년 1월로 연기하기로 하면서 백화점들의 할인 공세 규모도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통상 백화점 할인은 한 달 전 납품업체와의 협의를 거쳐 결정하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11월 초는 광군제 등에 대비해 수요를 선점하기 위한 온라인 업체들의 행사가 몰려 있고, 백화점들은 연말 할인 행사와 이어지는 것을 선호해 11월 중순 이후 행사가 많다"면서 "공정위 이슈가 해소되면서 지난 추석 부진했던 오프라인 업체들이 실적을 만회하기 위해 행사 규모를 확대시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남주현 기자 jooh@

## 전자담배협회, 액상형 전자담배 규제 반발

# “졸속정책에 시장 음성화 우려 하이브리드 제품도 규제하라”

정부의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중단 권고가 오히려 국민 건강을 위협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전자담배산업협회(이하 전자담배협회)는 31일 서울시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자제 권고 관련 대국민 공개토론과 공청회 개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액상을 직접 제조하는 소비자 증가로 국민 건강은 더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협회는 정부의 액상형 전자담배 대응책이 관련 산업의 극단적인 음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또 사용자제 권고에 따라 소비자 상당수가 궤멸적으로 회귀하거나 '강제형 소비자(직접

지난달 27일 서울 시내 한 편의점에 액상형 전자담배 줄과 시드의 일부제품 판매 중단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이투데이 DB

자담배는 판매하지 않는다'고 발표한 후 대다수분이 없는 액상형 전자담배 소비자 중 환자가 발생했다며 사용중단을 권고했다"며 "정부의 사용중단 근거가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는 해당 환자의 CT 사진에서 폐습윤 및 기타 피해가 발생했는지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 “가향물질, 폐질환 관련 없어 정부 사용 중단 근거 대야” 대국민 공개토론 개최 촉구

액상을 제조하는 형태)로 전락할 우려를 제기했다.

전자담배협회는 액상뿐만 아니라 액상과 궤련을 함께 사용하는 궤련형 하이브리드 제품 또한 사용중지 권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시중에 유통되는 궤련형 하이브리드 제품은 KT&G의 릴 하이브리드가 유일하다.

전자담배협회는 “식약처 발표를 통해 궤련형 전자담배에 발암물질과 더불어 다량의 타르가 발견됐다. 또 궤련형 전자담배의 증기는 액상형 전자담배보다 더 유해하다”며 “국민 건강을 위해서라면 당장 궤련형 하이브리드 제품까지 사용중지 권고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내 폐질환 의심환자에 대한 보다 정확한 데이터를 공개할 것도 촉구했다. 전자담배협회는 “복지부장관이 국내에서는 대다 수분이 있는 액상형 전

전자담배협회는 가향물질과 폐질환은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전자담배협회는 “미국 CDC와 FDA 발표에서 언급된 것처럼 가향 물질은 폐질환과 관련이 없다”며 “미국 내 가향담배 금지는 청소년 흡연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전자담배협회는 이외에도 연초와 액상형 전자담배의 유해성 비교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자담배협회는 “(액상형 전자담배가) 연초담배보다 덜 유해하다는 증거는 전 세계 많은 연구자료를 통해 입증됐다. 국내에서도 식약처에서 2017년 발표한 궤련담배 및 전자담배 유해성 분 함량량 발표결과가 있다”며 “이토록 명백히 전자담배보다 연초담배가 유해한 증거가 있음에도 국민건강을 지키는 명목으로 액상형 전자담배만을 규제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안경무 기자 noglasses@

## 빼빼로데이 '찬바람'

### NO재팬·대형마트 의무휴업 겹쳐

빼빼로데이 '대목'을 앞두고 유통업체에 비상이 걸렸다.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이어지는 가운데 일본 과자에서 유래된 빼빼로를 전면에 내세우기가 부담되는 데다, 올해는 빼빼로데이 전날이 대부분의 대형마트 의무 휴업인 둘째 주 일요일이라는 악재가 겹쳤기 때문이다.

31일 유통업체에 따르면 올해 대부분의 유통업체들은 빼빼로데이 마케팅을 축소하기로 결정했다. 빼빼로데이 행사보다는 코리아세일페스타 일환으로 열리는 자체 행사나 대입수확능력시험 이벤트를 우선하는 분위기다.

편의점 GS25는 빼빼로데이 이벤트를 '하나터데이' 이벤트 중 하나로 축소해 운영한다. 빼빼로데이와 관련한 플래카드나 공식 홍보물도 제작하지 않는다.

CU 역시 11월 메인 행사로 '블랙위크'를 정하고 빼빼로데이는 메인 행사와 별개

### 빼빼로데이 기간 과자 매출 비중

(단위: %, 한 해 과자 매출 중 11월 1~5일 차지 비율)



로 진행하기로 했다. 빼빼로의 원조로 알려진 일본 회사의 '포키'와 '프린'은 행사 품목에서 제외했다.

지난해 CU가 'DIY 리본'과 '액션토키 빼빼로' 등을 출시하고, 미니스톱이 '헬로키티'와 함께 협업한 상품을 내놓는 마케팅을 펼쳤던 것과 확연한 온도차다.

편의점들이 빼빼로데이 행사를 소극적으로 홍보하는 이유는 일본 불매운동 여파 때문이다. 일본 과자에서 유래된 빼빼로데이를 앞세웠다가는 자칫 잘못하면 불매운

동의 대상으로 지목될 것을 우려해서다.

대형마트는 더 암울하다. 일본 제품 불매운동에 의무 휴업이라는 악재가 겹쳤다. 올해 11월 11일은 월요일로 전날은 대부분의 대형마트가 의무휴업에 돌입하는 둘째 주 일요일이다.

대형마트나 편의점의 빼빼로데이 매출은 평일이나 휴일이나에 따라 실적 차이가 크다. 이마트의 경우 금요일이었던 2016년 빼빼로데이 과자 매출(11월 5~11일)은 1년 전체 과자 매출의 3.29%를 보였지만, 토요일과 일요일이던 2017년과 지난해 매출 비중은 각각 3.03%와 2.85%로 내려앉았다. 빼빼로데이 구매도가 높은 직장인과 학생의 수요가 줄었기 때문이다.

이마트 관계자는 “빼빼로데이 행사는 최대한 축소해 진행할 방침”이라며 “대신 수능 관련 초콜릿 등 과자류 행사를 확대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형마트 중 롯데마트만이 13일까지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빼빼로데이 행사를 열고 할인혜택과 상품권 증정 이벤트를 연다. 롯데마트 역시 롯데제과와 관계사다.

남주현 기자 jooh@

## 빈티지 컵에 아침을 따라 마셔요

### 아침햇살 기획세트 한정 판매

웅진식품은 '아침햇살 빈티지 컵'이 포함된 '아침햇살 기획세트'를 한정 판매한다고 31일 밝혔다.

'아침햇살의 빈티지 컵 기획세트'는 지난해 2000세트가 판매 개시 5시간 만에 완판되는 등 소비자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웅진식품은 “최근 레트로 열풍에 힘입어 올해에도 손스러운 듯 투박한 컬러와 로고를 담은 아침햇살 빈티지 유리컵 세트를 선보이게 됐다”고 설명했다.

웅진식품의 아침햇살 빈티지 컵은 투명한 유리컵에 '아침을 먹자'와 '99 올해의 히트상품' 등의 문구가 복고풍의 서체로 적혀 있다.

올해는 보다 빈티지 느낌을 살리기 위해 지난해 버전에서 손잡이를 없애고, 컵 사이즈를 키워 흡파 효율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웅진식품은 1일부터 11번가의 '십일절 페스티벌'에서 아침햇살 빈티지 컵 기획 세트 2000개를 한정 판매한다. 기획 세트



사진제공 웅진식품

는 아침햇살 340ml 12입과 빈티지 컵으로 구성됐으며 가격은 1만900원이다.

장문영 웅진식품 아침햇살 담당 브랜드 매니저는 “지난해 아침햇살 빈티지 컵이 흡파효율을 중심으로 SNS에서 큰 화제가 되는 등 레트로 바람이 이어지고 있다”며 “단순히 옛날의 손스러운 컵이 아닌 추억과 흥미로움을 선사하는 아침햇살 빈티지 컵으로 색다른 즐거움을 느껴 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경무 기자 noglasses@

# 대기업만 파는 리포트... 삼성전자 '124건'·스몰캡 '0건'

## 증권사 리포트 빈부격차

투자 판단 재료로 사용되지만  
대형사 쏠림 현상 심화  
대상 범위 "중소기업 확대" 요구  
금투업계 "인력 부족에 어렵다"

증권사 리포트 종목 현황				증권사 리포트 업종 현황			
종목명	리포트 수	업종	구분	리포트 수(건)	종목 수(개)		
삼성전자	124건	전기전자	코스피	152	1397		
LG화학	105건	화학	코스피	102	674		
SK하이닉스	101건	전기전자	코스피	79	1375		
LG전자	97건	전기전자	코스피	46	818		
삼성전기	97건	전기전자	코스피	40	894		
SK텔레콤	94건	통신업	코스피	35	488		
S-Oil	94건	화학	코스피				

※출처: 에프엔가이드

증권사 리포트의 대기업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대상 범위를 중소기업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지만 금융투자업계는 '인력 부족'을 이유로 어렵다는 반응이다.

31일 에프엔가이드에 따르면 7월 이후 석 달간 나온 증권사 종목 리포트는 총 9910건이다. 이 중 코스피 종목 리포트가 7520건으로 코스닥(2390건)에 비해 4배 가까이 많았다. 보고서가 1회 이상 나온 상장사는 총 804개사(코스피 357사, 코스

닥 447사)로 전체 상장사의 각각 46%, 34% 수준이다.

이 기간 삼성전자 리포트가 124건으로 가장 많았고 LG화학(105건), SK하이닉스(101건), LG전자(97건), 삼성전기(97건), SK텔레콤(94건), S-Oil(94건), 포스코(91건)가 뒤를 이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5위(우선주 제외) 종목에 대한 리포트만 1115건에 달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리포트가 과잉 공급되는 동안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상장사 1271개(코스피 416개, 코스닥 855개)는 리포트가 한 건도 나오지 않았다.

투자자들이 기업 투자 판단 재료로 증권사를 가장 많이 활용하는 만큼 종목 간 빈부격차가 커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코스닥에서도 스튜디오드래곤(61건),

CJ ENM(51건), 파라다이스(48건), 펄어비스(45건), GS홈쇼핑(31건), 에스에프에이(31건), 컴투스(29건), JYP Ent(28건), 매일유업(28건) 등 대형사 쏠림 현상이 나타났다. 시가총액 상위 15위 종목에 대한 리포트만 373건에 달했다.

금융투자업계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인력부족'을 꼽는다. 고태봉 하이투자증권 센터장은 "소형사까지 커버할 인력의 여유가 없다"며 "증권사도 영업을 해야 하는데 120개만 커버해도 애널리스트 6~7명이 10개씩 맡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형사를 커버했을 때 시가총액이 작아지면 효율도 그만큼 줄기 때문에 대형사를 중심으로 분석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업종별 격차도 두드러졌다. 같은 기간 언급된 상장사 804개사 중 반도체와 바이오 종목이 각각 152개사, 102개사 달했다. 이어 화학(79개사), 유통(46개사), 서비스(40개사), 금융(35개사), 음식료

(31개사), 디지털(21개사)이 뒤를 이었다. 증권사들이 새로운 종목과 업종 발굴에 소홀하다는 비난 여론도 커지고 있다.

반도체와 바이오주에 대한 리포트가 대부분 호재만 다뤘다는 점도 주목할 점이다. 가장 최근(지난달 28일)에 나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한미약품과 유한양행 모두 실적 회복을 전망하는 리포트였다. 반면 상장폐지 약재를 맞이한 코오롱생명과학이나 '팩스백' 임상3상에 실패한 신라젠을 다룬 리포트는 3개월간 단 한 건도 나오지 않았다.

구용욱 미래에셋대우 센터장은 "대형사의 경우 대부분의 업종을 취급하고 있지만 중소형사의 경우 업종을 특정해 작성하기도 한다"며 "정보를 취득하기 어려운 점도 있고 투자자 수요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주요 산업 비중이 높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윤기쁨 기자 modest12@  
이다원 기자 leedw@

## 인터뷰 기동호 코리아에셋투자증권 대표

### “베트남 IB시장 진출로 ‘제2 도약’ 첫발”

12년 만에 상장 앞뒤... IB·채권·전략육성 사업분야 투자 확대

'자본잠식률 1위→자기자본이익률(ROE) 1위'. 12년 만에 상장 증권사로 시장의 주목을 받는 코리아에셋투자증권의 성장 지표다. 2013년 완전자본잠식에 빠져 있던 회사를 기동호 대표가 재창업하면서 그해 흑자로 돌려냈고, 7년 연속 흑자 행진을 해오고 있다. 지난 2분기에는 국내 증권사 중 가장 높은 27.4%의 ROE를 기록했다.

기 대표는 11월 코리아에셋투자증권을 상장시켜 투자은행(IB)과 채권, 전략육성 사업 분야에 대한 투자를 통해 제2의 도약을 이루겠다는 목표다.

서울 여의도 코리아에셋투자증권 사옥에서 이투데이와 만난 기동호 대표는 "대내외 환경이 우호적이지만은 않지만, 제2의 도약을 위해서는 지금 자본 확충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ROE가 업계 최상위권이고 매출도 지속해서 늘어나고 있어 어려운 환경이지만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해주리라 기대하고 있다"고 상장을 앞둔 소회를 밝혔다.

코리아에셋투자증권은 2013년 재창업 당시 기업 체질 개선을 통해 리테일 영업을 대폭 축소하고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과감히 폐지했다. 대신 IB와

채권사업에 힘을 쏟았다. 신재생에너지 금융과 중소벤처기업금융, 대체투자(AI), 헤지펀드,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의 미래 성장동력 사업에 적극 도전했다.

그는 "기업공개로 들어 올 160억 원가량의 자기자본 확충 중 절반은 IB와 채권에서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데 쓰였다. 나머지 50%는 미래 성장동력 사업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 대표는 아직 배가 고프다. 국내에서는 IB(전체 수익의 50%)와 채권(30%) 특화 증권사로 인정받지만,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기업공개가 꼭 필요한 이



기동호 코리아에셋투자증권 대표가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사무실에서 이투데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고이탄 기자 photoeran@

유이기도 하다. 그는 공모자금을 기반으로 해외 IB시장으로 영토를 넓힐 생각이다.

그가 가장 관심을 두고 지켜보고 곳은 베트남이다. 이미 발판은 마련했다. 올해 베트남 2위 은행인 베트남투자개발은행(BIDV)의 자회사인 자산운용사 NIAD와 베트남 투자사업 협력과 전략적 파트너 관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기 대표는 "당장 글로벌 IB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기는 힘들다. 베트남은 '우물안 개구리'가 세상으로 나가는 첫발이 될 것이다"면서 "우선 베트남 시장에서 성장 토대를 마련하고, 인도네시아 등으로 영토를 넓힐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현지 법인을 만드는 방법도 있고, 현지 금융기관과 M&A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기 대표는 상장 후 목표에 대해 "발품을 팔아서 좋은 물건을 찾아 구조화하는 제조회사의 개념과 남들이 도전하기 전에 가장 먼저 시장을 개척하고 뛰어드는 벤처 마인드를 동시에 가진 회사가 되는 것"이라며 "당치로는 1위가 아니지만, 질적으로는 1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예린 기자 yerin2837@

www.douzone.com

# 인공지능 ERP

## 업무를 스스로 처리하다!

**회사 밖에서 급한 임무가 생기면 어떡하지?**  
언제 어디서나 어떤 기기로도 실시간 업무 진행이 가능한 스마트워크

**회계처리 쉬운 방법 없을까?**  
거래내역 자동수집, 자동분계, 자동입력하고 회계 및 데이터 오류까지 자동 검증

**우리 회사 경영 상황을 분석할 수 있을까?**  
ERP에 축적된 데이터를 기업에서 필요한 형태로 수정할 수 있는 분석을 제공

**믿을 만한 거래처인가?**  
거래처 신용상태 실시간 모니터링 서비스 제공

더존 iCUBE가 더욱 스마트해졌습니다.  
클라우드 인프라와 빅데이터 처리기술, 기계학습 방법론 및 데이터닝 응용 알고리즘을 구현한 인공지능 ERP, 더존 iCUBE  
기업의 업무는 이제 국내 유일 인공지능 ERP, 더존 iCUBE에 맡기십시오.

**기업용 ERP**

- 회계관리, 인사·급여관리, 영업관리
- 무역관리, 구매·재재관리, 생산관리
- 와주관리, 서비스관리, 경영정보관리
- 공사현장관리

더존 iCUBE  
더존 iCUBE Cloud Edition

**비영리법인 및 공공기관용 ERP**

- 예산관리, 자산관리, 후원자관리
- 회계관리, 인사·급여관리, 경영정보관리
- 영업관리, 구매·재재관리, 생산관리

더존 iCUBE G20  
더존 iCUBE G20 Cloud Edition

# 오너家 개인회사 '디디고' 매출 절반 내부거래

## '임상실패' 강스템바이오텍 최대주주 매도에 주가 '뚝'

### 중견그룹 일감돌보기

#### LIG그룹

LG가(家) 방계그룹인 LIG그룹의 오너 일가가 LG는 물론 사돈 그룹인 GS그룹 계열사들과의 내부거래를 활용해 개인회사를 키우고 있다. 디스플레이 패널 장비 업체인 인베니아의 최대주주 일가와 그들이 소유한 디디고 얘기다.

LIG그룹은 LG그룹 내 계열 분리 첫 번째 주자로 고 구인회 LG그룹 창업주의 동생인 구철회 LIG그룹 창업주(LG 창업고문)에서 출발한다. 계열 분리 당시 LIG손해보험을 필두로 금융과 방위, 건설, IT 등의 사업 영역을 갖고 있었지만 2014년 말 LIG손해보험을 매각하면서 LIG넥스원을 중심으로 그룹이 재편됐다. 현재는 그룹 내 27개 계열사가 있으며 LIG넥스원과 인베니아가 상장해 있다. 작년 말 기준 그룹의 총자산은 3조 원에서 조금 못 미친다. 그룹 주력사인 LIG넥스원은 LIG가 46.36%의 지분을 보유한 최대주주다. 또

#### 디디고 실적 및 내부거래 추이

	2016년	2017년	2018년
매출	627억	824억	398억
영업이익	11억	19억	-4억
내부거래	435억	640억	241억
비율	69.4%	77.7%	60.6%



### LG-GS 거래처 두고 매출 급성장 일감 규제 후 내부거래 소폭 줄어 국제청, 오너가 겨냥 특별세무조사

LIG는 구자원 회장의 장남인 구분상 전 부회장이 56.2%의 지분을 갖고 있다. LIG그룹에서 일감 몰아주기 중심에 있는 회사는 인베니아와 디디고다. 두 회사는 구철회 창업주의 4남인 구자준 전 LIG손해보험 회장 일가가 보유한 개인회사다. 인베니아는 애초 그룹 계열사가 아니었지만 2008년 LIG그룹이 기존 인베니아 주주로부터 지분을 매입하면서 편입됐다. 현재 구 전 회장(6.07%)을 비롯해 두 아

들인 구동범 사장과 구동진 부사장이 각각 8.5%, 기타 특수관계인을 포함해 27.94%의 지분을 확보하고 있다. 디스플레이 장비업체인 인베니아는 설립 초기부터 LG디스플레이와 상당한 거래 관계에 있었다. 아울러 LIG그룹 소속 계열사와의 거래보다는 범LG그룹 계열사와의 거래 의존도가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면서 일감 몰아주기에는 분류되지 않는다. 하지만 전략구매관리(MRO) 업체인 디디고는 주요 매출처가 인베니아와 인베니아브이인 탓에 저축 대상이다. 디디고는 두 회사 외에 GS홈쇼핑과 LG유플러스 등 LG가 비롯해 GS 계열사도

거래처로 두고 있다. 이 회사는 구동범·동진 형제가 50%씩 지분을 갖고 있으며 2007년 설립됐다. 종전까지는 외부감사 대상이 아니어서 배일에 가려져 있었지만 2017년 최초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주주현황과 내부거래 등이 공개됐다.

최근 10년간 디디고의 매출 추이를 보면 2009~2011년 매출이 200억~400억 원대로 성장하다 일감 규제가 본격화하면서 2012~2014년까지는 300억 원대로 정체됐다. 그러다 2015년부터 재차 성장세를 이어가 2017년에는 824억 원으로 최고치를 찍은 뒤 지난해 398억 원으로 재차 축소됐다. 당시 내부거래 비율은 77.7%였으며 작년에는 60.6%로 소폭 줄었다. 최근 2년간 7억여 원의 배당도 했다.

한편 LIG그룹은 최근 국제청의 특별세무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너 일가를 겨냥한 일감 몰아주기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조남호 기자 spdran@

오후 5시에 제공하는 유료정보서비스 이 기사는 channel FIVE에 게재됐습니다

강스템바이오텍 최대주주인 강경선 이사회장이 연일 보유지분 매도에 나서고 있다. 주력 파이프라인의 임상시험 실패 여파로 주가 하락이 이어지는 가운데 주식 담보 비율을 맞추기 위해 저가 매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최대주주의 반대매매는 막았지만, 해당 물량이 장내로 쏟아지면서 주가하락을 부추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강스템바이오텍 최대주주인 강경선 이사회의장은 보유주식 62만1445주를 8205원, 600주를 9650원에 장내매도해 51억 원가량을 현금화했다고 공시했다. 강 의장은 해당 자금을 이용해 주식 담보계약 1건을 해지했다고 밝혔다. 해소된 담보제공 주식 수는 112만1996주로, 담보설정금액은 78억2000만 원 수준이었다. 기존 담보제공 계약 건수는 3건에서 2건으로 줄었다.

회사 측은 이번 주식 담보계약 일부 상환으로 담보 제공 주식수를 제외해도 203만 주를 보유하고 있어 담보권이 전부 실행되더라도 최대주주 변경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했다.

이정희 기자 ljh@

# 코리아나 '장남 경영체제' 가닥

## 3남매 지분구도에서... 장녀·차남 보유 주식 잇단 매도

### 유학수 사장 최대주주로 올라서

코스닥 상장사 코리아나화장품(이하 코리아나)의 3남매 지분구도에 변화가 일고 있다. 8월 장남 유학수 코리아나 사장이 최대주주로 올라선 데 이어 지난달에는 차남과의 지분 격차도 확대됐다.

3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유민수 스위치코퍼레이션 대표는 최근 자신이 보유한 코리아나 지분 19만5891주(0.49%)를 증여세 납부 및 차입금 상환 등을 목적으로 장내 매도했다. 이로써 유 대표의 지분은 3.24%에서 2.75%로 떨어졌다.

앞서 2015년 4월 아버지 유상욱 코리아나 회장은 아들·손자에게 360만 주의 지분을 증여했다. 당시 장남 유학수 사장과 장녀 유승희 코리아나미술관 관장은 각각 100만 주를, 차남 유민수 대표는 77만 주를 증여받았고, 최대주주도 유상욱 회장에서 유학수 사장(6.35%)으로 변경됐다.

증여 공시가 나던 당일 기준 유학수 사장이 증여받은 규모는 약 100억 원 수준이다. 당시 현행법에 따라 50%의 증여세가 부과되면서 50억 원가량의 세금이 유 사장에게 매겨졌다. 다른 남매들에게도 지분만큼 할당된 증여세가 부과됐다.

이에 유 사장은 약 2년 뒤인 2017년 5월 지분 70만 주를 주당 7120원에 매도해 49억8400만 원의 현금을 취득, 증여세를 완납했다. 완납과 함께 지분율이 떨어져 최대주주 자리는 동생 유민수 대표로 바뀌게 된다. 그럼에도 당시엔 3남매가 모두 4%의 지분율을 보유 중이어서 2세대의 경영권의 향방에 대해선 좀처럼 가늠하기 어려웠다.

3남매의 지분 간 격차가 본격적으로 벌어진 것은 올해부터다. 장남과 딸리 유관장과 유대표는 여전히 증여세 납부와 주식 담보대출 일부 상환 등을 이유로 지분을 조금씩 매도하고 있다. 이들은 현재 국제청의 연부연납제를 통해 증여세를 나눠 내고 있다. 연부연납은 담보를 제공하는 대신 향후 5년간 세금을 나눠낼 수 있는 제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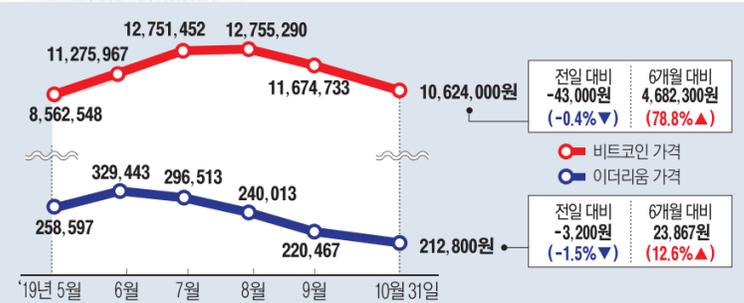
그 결과 8월 들어선 유민수 대표가 10만2349주를 매도, 최대주주는 다시 유학수 사장으로 변경됐다. 유 대표는 이달 들어서도 매도를 이어 갔고 현재까지 유학수 사장은 4.49%, 유승희 관장은 3.92%, 유민수 대표는 2.75%의 지분을 보유하게 됐다.

고대영 기자 kodae0@

오후 5시에 제공하는 유료정보서비스 이 기사는 channel FIVE에 게재됐습니다

### bithumb 빗썸

빗썸 지수 (2019년 10월 31일 17:00, KST)



전 세계 1등 가상화폐 거래소

# Musical Cogh

## VINCENT van

빈센트 반 고흐

★★★★★

“고흐의 불꽃이 마극한 아름다움과 과감했던 인생을 보살피는 기쁨이었을 것” -채지영

“대단한 암스테르담에 위치한 빈 고흐 미술관에 있어보는 동안 차가운 물리법칙은 항상처럼 무대 위에서...” -민지

“장엄한 아이디어와 무대엔 미소를 퍼부리는 기술이 만나 더 큰 감동을 선사합니다”

**뮤지컬 빈센트 반 고흐 5주년!**

1차 티켓오픈 10.30(수) 11:00 인터파크, 예스24

조기예매 30% 할인

---

왕은 눈을 잃고, 백성들은 눈을 뜨다

# 세종 1446

2019.10.3 - 12.1 국립중앙박물관 극장 용

전석매진, 전석기립박수의 감동! 한국인이란 꼭 봐야 할 뮤지컬!

대망의 마지막 티켓오픈 특별할인! 11.4(월) 14:46 인터파크 예스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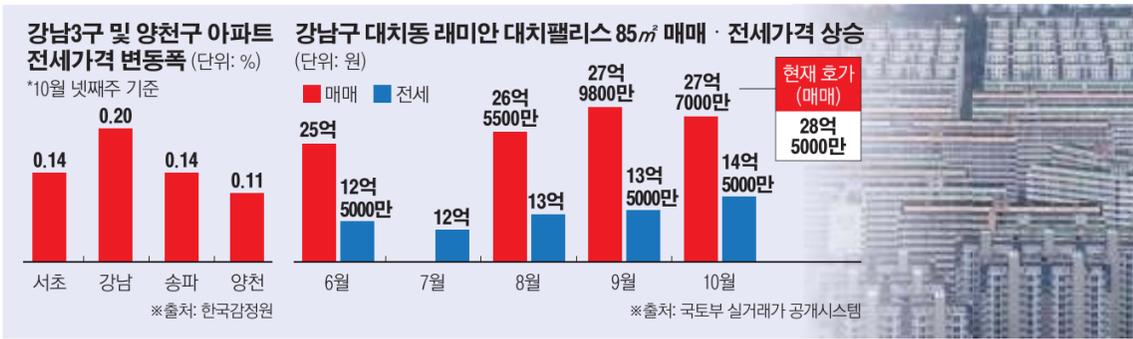
# 자사고 폐지·정시 확대에... 들쭉이는 강남·목동 집값

명문학군 배정받으려 문의 '빚발' 매물 안 나오니 호가만 계속 올라 강남4구 아파트 매매가 0.12% ↑ 대치동 전셋값 한 달 새 1억 '쑈쑈'

"하루 빨리 이곳으로 들어오려는 수요자들의 시세 문의 전화가 최근 부쩍 많아졌어요. 매물은 없는데 호가는 오르고, 매물이 나오더라도 당장 사겠다는 대기자도 적지 않습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D공인 관계자)

자사고(자율형 사립고)·특목고 폐지와 대입 정시 확대 소식에 강남 집값이 또 다시 한바탕 들쭉이고 있다. 강남구 대치동 일대 공인중개소들에는 명문대 진학률이 높은 유명 학교에 배정받으려는 학군 수요자들의 문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다.

자사고 폐지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부동산시장으로의 유동성 유입 등으로 매물이 이미 자취를 감춘 상황에서



강남 8학군 부활 가능성이라는 재료가 집값 상승의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 모양새다. 정시 비율이 어느 선으로 확정되는 사교육 과열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강남과 목동 등 교육 특구지역 아파트값이 가파른 상승세를 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31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번주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 아파트 매매가격은 0.12% 상승했다. 강남·서초구가 각각 0.1%, 0.12% 올랐고, 송파구는

0.13% 뛰었다. 강남4구는 전셋값도 0.13% 오르며 강세를 보였다. 특히 이 기간 강남구(0.2%)는 서울에서 전셋값이 가장 많이 올랐다.

학원가가 밀집해 사교육 1번지로 통하는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 대치팰리스' 전용면적 59㎡ 호가는 현재 23억 원을 넘어섰다. 7월 실거래가인 19억9000만원보다 무려 3억 원 이상 올랐다. 이 단지 전용 85㎡는 최근 27억9800만원에 거래됐다. 현재 호가는 28억5000만원까지 올라 있다.

두 달 전 25억5000만 원에 거래된 '대치 sk뷰' 전용 84㎡는 현재 1억 원이 오른 26억5000만 원에 시세를 형성하고 있다. 인근 '래미안 대치하이스턴' 전용 84㎡도 8월 실거래가(22억5000만원)에서 역시 1억 원이 오른 상태다.

전셋값도 상승세다. 지난달 13억5000만 원 수준이었던 래미안 대치팰리스 전용 85㎡ 전세가격은 이달 14억5000만 원에 거래됐다. 한 달 새 전세금이 무려 1억 원이나 오른 것이다. 기존에 살고 있던 전세

세입자들은 이미 이 가격에 전세를 갱신하고 있다고 한다. 대치동 J공인 관계자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새 집 선호 현상이 극심해지면서 아파트값이 많이 오른 상황에서 자사고 폐지와 대입 정시 확대 여파에 전셋값마저 요동치고 있다"고 전했다.

또다른 사교육 특구인 양천구 목동도 상황은 비슷하다. 목동 신시가지 8단지에서 지난달 9억 원에 거래된 전용 55㎡는 현재 9억4000만~9억7000만 원을 호가하고 있다. 한 달 만에 집값이 7000만 원까지 오른 것이다.

양지영 양지영 R&C 연구소 대표는 "교육 정책 변화로 학군 수요는 강남 및 목동과 같은 교육 특구 지역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며 "이들 지역 집값 상승은 매물 부족에서 기인하는 만큼 재건축 등 정비사업 규제를 풀어 공급을 늘리거나 양도세 부담을 줄여 매물이 나오도록 유도해야 주택시장 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호 기자 sorahosi@

## 3개월 해외 거주해도 분양 우선공급

'주택공급 개정안' 오늘부터 시행 기존 30일 체류서 대폭 확대 개선

앞으로 해외에서 90일간 체류해도 분양 아파트 우선 공급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체류 기간인 30일에서 크게 연장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해외거주 여부 판단 명확화, 입주자모집공고 기간 확대, 분양 대행사 직원에 대한 의무교육 실시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부령) 일부 개정안'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아파트 분양 우선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는 해외거주 여부 기준이 바뀐다. 현재 투기과열지구 등에서는 해당 특별·광역시, 시·군에 일정 기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주요 내용 \*11월 1일부터 시행

입주자모집 공고기간 연장	10일 이상 공고(내년 1월부터 적용)
모집공고 방법 개선	- 일간신문 공고 시 사업주체 및 시공사명, 분양가격, 주요 일정 등 중요 정보만 포함 - 글자 크기 9포인트 이상
우선공급 제외 해외거주 여부 판단기준	- 해외 동일 장소 거주기간 90일째부터 해외거주로 판단 - 1년 기준으로는 해외체류 전체 기간 184일째부터 해외거주로 판단
세종시 특별공급 2주택자 제외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

(투기과열지구,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어야 우선 공급 대상이 된다.

주민등록을 국내에 두고 있으나 장기간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우선 공급에서 제외

했다. 명확한 규정이 없어 민원이 많이 발생했고, 최근 장기 해외여행 또는 업무 출장이 잦은 만큼 개선 요구가 많았다.

현재는 유권해석으로 주민등록법을 준용해 30일 이상 해외의 동일 장소 거주 시 해외거주로 봐 우선 공급 대상자로 인정하지 않는다. 해외 체류 30일까지는 우선 공급 대상이지만, 체류 기간 31일째부터는 우선 공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규칙 개정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출국 후 연속해서 90일까지 체류해도 우선 공급 대상에 포함된다. 체류 기간 91일째부터 우선 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입주자모집공고 기간은 기존 5일에서 10일로 길어진다. 입주자모집공고 기간 변경 시행은 내년 1월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일부터 적용된다. 서지희 기자 jhsseo@

## 동문건설 '문수로 동문굿모닝힐' 이달 분양

'울산의 강남' 옥동생활권 포함

동문건설은 울산 남구 신정동 일대에 들어서는 '문수로 동문굿모닝힐' 주상복합단지(투지도)를 이달 분양한다.

단지는 지상 최고 34층 높이로, 아파트 166가구(전용면적 74~84㎡)와 오피스텔 17실(전용 24~62㎡)로 구성된다.

문수로 동문굿모닝힐이 들어서는 울산 신정동 일대는 옥동생활권에 포함된다. 옥동생활권은 울산의 기반시설이 집중돼 '울산의 강남'으로 통한다. 단지에서 2~3분 거리에 있는 공업탑로터리는 문수로·봉월로·삼산로·수암로·두왕로 등이 만나는 곳으로 울산 시내·외곽 어디든 쉽게 이동할 수 있다. 울산시가 1조3316억 원을 들여 건설하는 총 연장 48.25km의 트램도 2027



년 개통 예정이다. 트램 4개 노선 중 노선1은 신복로터리를 출발해 문수체육공원·공업탑·삼산동·대화강역 등 울산 주요 지역을 통과한다.

교육 환경도 좋은 편이다. 신정초등학교가 도보 5분 이내 거리에 있다. 학성중·울산서여중·학성고·신정고·울산여고 등도 걸어서 통학할 수 있다. 문수로 일대 학원가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이번에 분양하는 문수로 동문굿모닝힐은 동문건설이 울산에서 5번째로 선보이는 아파트다. 견본주택은 남구 달동 일대에 마련된다. 김동호 기자 sorahosi@

**BRAVO My Life**

it's time for tea

재미 공감 행복

**BRAVO My Life**

**브라보, 함께해요!**

**삶이 달라집니다!**

정기구독 안내 | 1년 정기구독료 10만 원(우편발송료 무료). 날권은 1만 원  
정기구독 신청 및 구독 문의 | TEL (02) 799-2680 FAX (02) 799-6700  
이메일 bokyeong@etoday.co.kr 홈페이지 구독신청 bravo.etoday.co.kr

**브라보 짬짬 TV**

시니어만을 위한 소통공간!

'브라보 마이 라이프'가 준비한 다양한 영상 콘텐츠를 유튜브 채널 **브라보 짬짬 TV**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유튜브 검색창에 브라보 짬짬 TV)

구독 문의 (02) 799-2680

# ‘횡령 혐의’ 권성문 항소심도 무죄

〈前 KTB투자증권 회장〉

### 해외 여행 등 7억 출장비 처리 재판부 “업무와 연관” 1심 유지



장, 미술품 구매 등 개인 목적으로 사용한 혐의(특경기법상횡령)로 기소됐다.

그는 2017년 금융감독원이 실시한 현장검사에서 횡령 혐의가 포착됐으며, 수사 의뢰받은 검찰이 지난해 기소했다. 권 전 대표는 당시 이병철 KTB투자증권 부회장(현 회장)과 경영권을 두고 분쟁을 벌였다. 권 전 대표는 2년간 이어진 경영권 분쟁 끝에 보유한 지분 중 상당 부분을 이 회장에 넘기고 지난해 3월 물러났다.

앞서 1심은 “회사의 이익과 연관된 사정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선불리 개인적 목적을 위한 출장이라고 폄하할 수 없다”면서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형벌권이 일방의 편을 들면 정경유착의 폐해가 우려된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업무상 배임 혐의로 권 전 대표와 함께 기소된 최희용 전 KTB투자증권 부사장은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최 전 부사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1심은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한 바 있다.

최 전 부사장은 KTB투자증권이 출연해 설립한 사회복지법인의 운영비가 부족해 지자 자신이 관리하던 법인카드를 내줘 직원들이 사용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김보름 기자 fullmoon@

오후 5시에 제공하는 유료정보서비스 이 기사는 channel FIVE에 게재됐습니다



31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39조5282억 원으로 편성한 내년 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 서울시 내년 예산안 39.5조 편성 ‘역대 최대’ 박원순 “민생 절박... 과감해지겠다”

### 복지 12.8조·일자리 2조 편성 “신용등급 AA로 건전성 탄탄 사람에 투자... 포플리즘 아냐”

“과감하게 확대 편성된 재정은 공정한 출발선을 만드는 일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31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2020년 예산안 기자설명회’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안을 편성한 데 대해 이같이 강조했다.

박 시장은 “누군가는 재정을 걱정하고 포플리즘이라 비난하기도 하지만 예산의 문제에 앞서 결단의 문제”라며 “시민의 삶은 현실이고 절박하기에 서울시가 보다 과감해지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10.6%(3조7866억 원) 증가한 39조5282억 원으로 편성했다. 서울시는 내년 예산을 △신혼부부 등 주거지원 확대 △완전돌봄체계 실현 △혁신기적 청년지원 △서울경제 활력제고 △좋은 일자리 창출 △대기질 개선 △생활 SOC확충 등 7대 분야에 집중 투입할 방침이다. 이로써 사람투자, 소비확대, 경제활력과 일자리창출, 세입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실현할 계획이다.

일반회계 기준으로 서울시민 1인당 예산액은 268만 원, 1인당 시세(市稅) 부담액은 195만 원이다.

박 시장은 “예산은 시민이 가장 아파하는 곳, 가장 필요한 곳에 투자해야 한다”며 “사람이야말로 우리 경제를 다시 뛰게 하고 경제 선순환을 만들 핵심고리”라고 말했다.

이어 “삶의 무게를 줄이는 공공성의 확대야말로 지방정부가, 정치가 져야 할 가장 큰 책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내년 역대 최대인 3조 원의 지방채를 발행한다. 처음으로 행정안전부 승인을 받아 발행한도를 늘렸다.

박 시장은 “시금고가 다소 줄어들더라도 지금 과감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미래에 더 큰 비용을 치러야 할 것”이라며 “지방채를 저렴한 비용으로 빌려 확대 재정을 펴겠다”고 언급했다.

박 시장은 글로벌 신용평가기관 S&P가 서울시의 신용등급을 AA로 매긴 것을 언급하며 재정 건전성을 강조했다.

박 시장은 “지난 8년간 시정을 운영해 오면서 채무를 7조 원 이상 감축하고 재정 역량을 비축해 왔다”며 “내년에 확대 재정을 해도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이 22% 정도로 행안부가 설정한 지방자치단체 채무비율 25%에 못 미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도 건전 재정, 균형 재정을 유지하면서도 일정한 채무를 갖고 사업을 확장해야 지속가능성과 미래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채무) 20조 원이 과하다고 생각해서 그동안 축소는 쪽으로 신경썼고, 8조 원까지 줄어 있는 상태”라며 “내년 3조 원 정도 부채를 지는 건 무리가 없다”고 자신했다.

그러면서 “3조 원에 대한 이자부담보다 시민생활의 편의, 경제활력 효과가 더 크다”며 “340억 원을 들여 2조 원 정도의 실제 금융 효과를 내는 셈”이라고 말했다.

김진희 기자 jh6945@

분야별 예산 규모 (단위: 억 원)  
\*말초 안은 비중(%), 순계예산 기준

사회복지	12조8789(36.5)
자치구 지원	5조2467(14.9)
교육청 지원	3조3246(9.4)
공원환경	2조6148(7.4)
도로교통	2조3762(6.7)
행정운영경비	1조9120(5.4)
재무활동 등	1조4561(4.1)
도시안전	1조4336(4.1)
주택정비	1조3896(3.9)
일반행정	1조73(2.9)
산업경제	8674(2.5)
문화관광	7914(2.2)

※출처: 서울시

라도 지금 과감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미래에 더 큰 비용을 치러야 할 것”이라며 “지방채를 저렴한 비용으로 빌려 확대 재정을 펴겠다”고 언급했다.

박 시장은 글로벌 신용평가기관 S&P가 서울시의 신용등급을 AA로 매긴 것을 언급하며 재정 건전성을 강조했다.

박 시장은 “지난 8년간 시정을 운영해 오면서 채무를 7조 원 이상 감축하고 재정 역량을 비축해 왔다”며 “내년에 확대 재정을 해도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이 22% 정도로 행안부가 설정한 지방자치단체 채무비율 25%에 못 미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도 건전 재정, 균형 재정을 유지하면서도 일정한 채무를 갖고 사업을 확장해야 지속가능성과 미래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채무) 20조 원이 과하다고 생각해서 그동안 축소는 쪽으로 신경썼고, 8조 원까지 줄어 있는 상태”라며 “내년 3조 원 정도 부채를 지는 건 무리가 없다”고 자신했다.

그러면서 “3조 원에 대한 이자부담보다 시민생활의 편의, 경제활력 효과가 더 크다”며 “340억 원을 들여 2조 원 정도의 실제 금융 효과를 내는 셈”이라고 말했다.

김진희 기자 jh6945@



남극으로 출발! 31일 국내 최초 새빙연구선 아라온호가 11번째 남극 탐사를 위해 인천시 중구 인천항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 ‘공기제균기 과장광고’ 삼성, 과징금 소송 사실상 패소

### ‘독감 바이러스 제거’ 소비자 오인... 공정위 과징금 일부만 취소

삼성전자가 공기제균기 과장광고로 인한 과징금 처분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와 벌인 행정소송에서 사실상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문용선 부장판사)는 31일 삼성전자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에서 “공정위가 삼성전자에 한 과징금납부 명령 중 4억 72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삼성전자 측이 “소비자 오인에 대한 입증은 충분하지 않은데도 공정위가 주관적으로 제재처분을 내렸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삼성전자는 2011~2016년 공기제균기

를 광고하면서 ‘독감 H1N1 바이러스 99.68% 제거’, ‘조류독감 바이러스 99.99% 제거’, ‘바이러스, 박테리아, 곰팡이 물질 99% 제거’ 등을 강조했다. 삼성전자는 2017년 해당 제품의 생산을 중단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소비자 오인을 유도하는 등 표시 광고법을 위반했다며 지난해 시정명령·신문 공표명령과 함께 4억 8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삼성전자가 광고에 기재한 ‘본 제거율은 실험 조건이며, 실제 사용 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같은 관행적인 표현으로는 소비자 오인을 해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실험 결과에 대한 제한 사항을 상세히 표시하지 않은 것은 공기제균기 제품의 본질적인 기능인 유해물질 제거 성능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은 은폐·누락한 것으로 봤다.

한편 공기청정기 과장광고로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은 청호나이스도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한 바 있다.

청호나이스는 ‘유해 바이러스 제거율 99.99% 입증’, ‘신종플루 바이러스 99.99% 제거되는 제품으로 검사결과 판정’ 등의 표현을 사용해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1억5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김종용 기자 deep@

오후 5시에 제공하는 유료정보서비스 이 기사는 channel FIVE에 게재됐습니다

## 국세청, 래퍼 ‘도끼’ 세무조사 소속사로 확대

### 더 콰이엇·엠비션 뮤직 등 조사

합창 가수 도끼(본명 이준경)에 대한 과세당국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도끼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일리네어 레코즈의 공동 대표를 맡은 래퍼 더 콰이엇과 엠비션 뮤직 등에 대해서도 국세청이 ‘고강도’ 세무 조사를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31일 엔터테인먼트 업계에 따르면 서울 지방국세청 조사국은 지난달 중순에 합창 가수 도끼 외에도 래퍼 더 콰이엇과 엠비

션 뮤직 그리고 일리네어 레코즈 등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 이번 달 초까지 진행할 방침이다.

국세청이 엠비션뮤직과 일리네어 레코즈 등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나섰다 것은 결과적으로 도끼의 수입과 지출에 따른 자금 출처, 성실납세 및 탈세 여부에 조사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 이들에 대한 세무조사가 일반적인 정기세무조사가 아닌 비정기 또는 기획 세무

조사인 점을 고려할 때 조사 강도뿐만 아니라 향후 (조사) 결과에도 적잖은 관심이 쏠릴 것으로 전망된다.

상황에 따라서는 거액의 추징금뿐만 아니라 고의적 탈세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다.

본보 단독 보도(2019년 10월 30일자) 이후 일부 매체는 도끼 측 관계자의 말을 인용, “탈세 혐의가 있어서가 아니라 고소득층 연예인과 인플루언서 등을 대상으로 한 조사 대상에 포함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면수 기자 tearand76@

## 인보사 허위자료 제출 혐의 코오롱생명 임원 구속심사

물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를 둘러싼 의혹에 연루된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2명의 구속 심사가 이달 4일 열린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종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코오롱

생명과학 임원 김모 씨와 조모 씨 등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4일 오전 10시30분 심리한다.

이들은 코오롱생명과학에서 인보사의 주요 구성성분인 2액 세포에 관해 허위로 기재한 내용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해 임상 승인 및 시판허가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조작된 자료를 제출해 식약처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씨 등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가려질 전망이다. 정수현 기자 int1000@

## 반짝이는 '어린왕자 행성' ...



## 인스타 도배되기 전에 다녀오자

### 올 댓 트립

#### 나만 알고 싶은 토박이 추천 명소

##### ① 옹도·울산대교 전망대

아직 전국에서 관광객들이 몰려오는 곳은 아니지만, 지역민들로부터 많이 사랑받고 있는 곳들이 있다. 장차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명소가 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곳들이다. 현재와 과거를 잇는 시간여행부터 힐링과 휴식, 인생사진 명소까지 저마다의 개성이 담긴 그곳으로 떠나보자.



① 밤에 더욱 빛나는 울산대교 전망대 앞 '어린왕자의 꿈'. ② 울산이 한눈에 내다보이는 울산대교 전망대. ③ 해양 생태계의 보고로 평가되는 옹도 주변 가로림만. ④ 동네 강아지도 마중 나온 강통열차. ⑤ 낚지잡이에 신이 난 아이.

◇바다 위를 걷다 = 반잡한 육지에서 발을 떼고 드넓은 바다 너머로 향하는 길, 떠나보지 않고는 알기 어려운 설렘이고 희열이다. 험한 뱃길 대신 신비의 바닷길 건너라면 더욱 반갑다. 수도권에서 낙낙잡아 두 시간 남짓. 부담스러운 거리는 아니지만, 일상에서 그리 가깝지도 않은 곳에 서산 옹도가 있다.

옹도는 곶을 닮은 섬이다.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곶이 웅크리고 앉은 모양이었는데, 지도로 찾아보니 강아지 꼬리처럼 조도를 달고 있어 꽤 앙증맞다. 그런데 옹도로 들어가는 길목에 독특한 표현이 보인다. '옹도 바다 갈라짐'. 그 유명한 진도와 무장포처럼 이곳 옹도 역시 하루 두 번 바닷길이 열린다.

매일 조금씩 달라지는 바닷길 시간 때문에 가기 전에 국립해양조사원 홈페이지에서 '바다 갈라짐 체험 시간'을 확인해야 한다. 바닷길 너머 섬이지만 옹도와 육지의 거리는 불과 700m. 수심이 얇은 편이라 만조 때도 징검다리를 놓아 건넌다고 한다. 지금은 다리가

옹도어촌체험마을을 사무실 옆으로 난 데크를 따라 천천히 걸어도 좋다.

옹도는 밖에서 바라봐도 아름답다. 옹도를 마주보는 대로리에는 카페와 캠핑장이 자리해 느긋하게 전망을 즐기거나 특별한 하룻밤을 보내기 좋다. 해 질 무렵에는 옹도를 배경으로 붉게 여문 가을 저녁을 눈에 담을 수 있다.

옹도가 속한 대산읍과 이웃한 지곡면에는 안전기념관이 있다. 안전이 세종의 셋째 아들 안평대군의 꿈을 소재로 그린 '몽유도원도'는 당대 최고 산수화로 평가된다. 안평대군의 발문에 김중서와 신숙주, 정인지, 박팽년, 성삼문 등 내로라하는 사대부 20여 명이 칭찬하는 글을 진필로 덧붙여 그 가치는 단순한 예술 작품을 뛰어넘는다. 안타깝게도 '몽유도원도' 원본은 일본에 있어 기념관에는 모사본과 안전의 작품으로 추정되는 그림을 전시한다.

안전기념관에서 자동차로 10여 분 달리면 안전의 후예라 할 만한 예술가들을 만날 수 있다. 폐교한 중앙분교를 리모델링한 서산창작예술촌이다. 현대 서예가 황석봉 관장이 운영하는 이곳은 다양한 장르의 전시가 열리고, 서예아카데미에서 수업을 진행한다. 전화로 예약하면 도자기 만들기 체험도 무료로 참여 가능하다.

◇전망, 그 이상의 재미가 있다 = 울산은 팔색조 매력 있는 도시다. 자동차·조선·석유화학 분야 국내 대표 산업단지과 대왕암공원, 일산해수욕장, 간절곶, 슬도 같은 아름다운 자연경관이 어우러진다. 울산의 젓줄인 태화강과 동해가 만나고, 그 위로 울산대교가 지난다. 낮에는 역동적인 모습을, 밤에는 로맨틱한 풍경을 선사한다. 이런 울산의 매력을 한눈에 담아내는 곳, 바로 울산대교 전망대다.

울산대교 전망대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동구의 해발 140m 지점에 위치한다. 전망대로 가려면 공영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1km 정도 걸어야 한다. 만 65세 이상이나 영·유아, 장애인, 임신부가 탑승한 차량은 전망대까지 올라갈 수 있다. 전망대로 오르는 길은 포장된 넓은 길과 숲속 길이 있다. 숲속 길에는 편백 숲과 평상이 있어 삼림욕하며 쉬어 가기 적당하다. 동네 주민도 가볍게 운동하거나 바람 쐬러 이곳을 많이 찾는다.

15~20분 남짓 기분 좋은 산책 끝, 드디어 높이 63m 울산대교 전망대가 모습을 드러낸다. 1층은 기프트숍과 카페, 매점, VR 체험관, 2층은 야외 테라스, 3층은 실내 전망대, 4층은 옥외 전망대다. 옥외 전망대는 현재 안전상 문제로 운영하지 않는다. 산책로 따라 전망대에 도착하면 2층이다. 야외 테라스에서 울산의 생동감 넘치는 풍광을 눈에 담고, 야외 계단을 통해 1층으로 이동한다.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면

3층 실내 전망대로 곧장 올라간다. 입장료는 무료.

360도 통유리로 된 3층이 울산대교 전망대의 하이라이트다. 문수산, 가지산, 고현산, 대운산 등이 아슬아슬 펼쳐지고, 태화강과 동해가 힘차게 물결친다. 그 사이사이 대규모 산업단지 시설이 자리한다. 울산이라는 도시의 특성을 단번에 설명해주는 풍경이다. 전망대 유리창에는 각 위치에서 보이는 장소가 표시되고, 군데군데 망원경이 있어 내가 바라보는 곳이 어디인지 알고 전망을 즐길 수 있다.

3층에 상주하는 문화관광해설사에게 요청하면 이를 너머에 담긴 이야기를 들려준다. 해설사가 현대중공업 해양사업본부에 설치된 갠트리 크레인을 가리킨다. 2000년대 초반 스웨덴 말뚝에 있는 세계 대표 조선업체 코쿰스(Kockums)가 쇠락하면서 이 크레인을 내놓았고, 현대중공업이 단돈 1달러에 구입했다.

야경도 육신내자. 울산대교 전망대에서 낮과 밤에 바라보는 풍경은 '같은 공간, 다른 느낌'이다. 낮 동안

### 서산 옹도

곶이 웅크리고 앉은 모양의 섬  
하루 두 번 바닷길 열리면  
갯벌서 바지락 캐고 낙지 잡고  
강통열차 타고 마을 한 바퀴

연결돼 바닷물에 잠겼다 떠오르기를 반복한다.

바닷길이 열리면 옹도 주변으로 거대한 갯벌이 모습을 드러낸다. 서해에서도 생태계의 보고로 평가되는 가로림만이다. 풍요로운 가로림만에 둘러싸인 옹도는 예부터 바지락과 굴, 낙지가 마을 날이 없었다. 금세 자루를 가득 채운 바지락을 마을까지 옮기느라 소달구지가 늘어진 장관을 연출하기도 했다.

옹도 여행의 중심지는 옹도어촌체험마을이다. 전국 1위 어업 공동체답게 마을 주민이 주도적으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옹도의 특산물인 바지락 캐기를 비롯해 낚지잡이와 망둑어 낚시, 족대 체험이 가능하다. 가족 단위 여행객도 전화로 예약하면 체험을 즐길 수 있다.

강통열차를 타고 마을을 한 바퀴 돌아보자. 사람이 탈 수 있도록 개조한 드럼통을 사륜 바이크에 기차처럼 줄줄이 연결했는데, 색다른 체험이다. 운전하는 어른신이 해설사 역할도 겸한다. 주민 사랑방인 마을회관과 1952년에 세운 옹도분교, 400년 넘게 제자리를 지키는 소나무까지 마을의 소박한 역사를 고스란히 품은 공간이 강통열차 곁으로 지난다. 여유가 있으면

### 울산대교 전망대

숲길 걸어 오르면 전망대 우뚝  
문수산 펼쳐지고 태화강 물결쳐  
해지면 조명 밝힌 울산대교 장관  
'어린왕자의 꿈'도 반짝반짝

분주하고 강인하던 기운이 잦아들고, 밤에는 은은하면서도 낭만적인 분위기가 흐른다. 야경 중심에는 울산대교가 있다. 주탑과 주탑 사이가 1150m에 이르는 대규모 현수교가 조명을 밝히면 야경의 곁이 달라진다. 9월 28일 발생한 염포부두 폭발 화재로 10월 중순 현재 울산대교 경관 조명이 임시 중단된 상태다. 울산대교 전망대에서 바라본 야경은 울산12경에 든다.

야경 포인트는 1층 야외에도 있다. 나무 한 그루가 반짝이는데, 생텍쥐페리의 소설 '어린왕자'에 나오는 바오바브나무를 닮았다. 진짜 나무가 아니고 광섬유로 제작한 '어린왕자의 꿈'이라는 조형물이다. 밤이면 나뭇잎에서 은은하고 화려한 빛이 나와 신비롭다. 잠시나마 '어린왕자' 속 소행성 B612에 온 듯한 기분에 젖는다.

울산대교 전망대 1층에 울가를 개관한 VR 체험관도 놓치지 말자. 울산을 테마로 다채로운 가상현실(VR) 체험 코너를 마련했다. 4D·VR 상영관에서는 '공룡 대탐험', '뽕슬레이', '사이버 레이스' 등을 시간별로 교차 상영한다. 현재 1일 5회 운영하며, 현장 선착순 접수만 가능하다. 김소희 기자 ksh@

‘현대 도예 거장’ 신상호

예술이 인간을 구원하고 영혼을 인도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건 좀 과한 예언일지도. 사르트르의 말마따나, 굶주려 죽어가는 아이 앞에서 예술이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나 예술은 현실의 벽을 으라차차 걷어치는 행위라는 점에서 위력적이다. 종교, 사상, 철학을 부수거나 뛰어넘는 곳에 예술이 있지 않던가. 그런데 창작이란 지병에 시달리는 것처럼 끔찍한 싸움이다. 도예가 신상호(72), 웅장한 창의적 행보로 ‘거장’이라는 평을 듣는 인물이다. 그는 어떻게 사나. 예술과 맞붙어 무엇을 얻나.

도예란 흙과 불을 다뤄 도자(陶磁)를 만드는 장르다. 그러나 신상호의 작업엔 이미 형식이 없으며, 경계가 없다. 일찍이 전통 도예의 권위자로 부상했던 그는 무적함대, 또는 해적선과도 같은 거침없는 도발과 활보로 혁신적 현대 도예를 구현했다. 그의 작업은 진즉에 조각으로, 회화로, 심지어 건축 영역으로까지 확장됐다.

신상호의 작업실 ‘부곡도방’은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야산 자락에 있다. 45년째 이곳에 산다.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장직을 박차고 나온 2008년 이후엔 이곳에만 틀어박혀 창작에 전념해왔다. 부곡도방은 건물과 공간과 사물 모든 게 작품이다.

45년 전, 이곳에 들어온 이유는?

“어릴 적에 경험한 어머니의 된장찌개 맛을 잊지 못하는 것처럼, 사람에게 자연을 찾는 본능이 있지 않던가. 흙과 불을 다루는 직업적 특성상 적합하기도 하고.”

“끊임없이 새로워야 진짜 예술”

45년째 산야 작업실에 묻혀 조각·회화·건축 등 영역 넓혀

과거 청년기엔 경기도 이전에 작업장을 두었다. 당시의 작업 내용은 어떤가?

“현대 도예와 전통 도예 작업을 병행했다. 그런데 도예로 먹고살기가 쉽지 않다. 나 역시 이전에선 판매 위주의 작품을 만들어야 했다. 그러자 회화가 물려들더라고. 진정으로 내가 하고 싶은 작업을 하자! 그런 생각으로 이전과 작별했다.”

국내외로 신상호는 도예의 첨단을 활주하는 작가로 알려졌다. 많은 작가가 시대의 첨단 트렌드에 전착한다. 그들과 당신은 어떻게 다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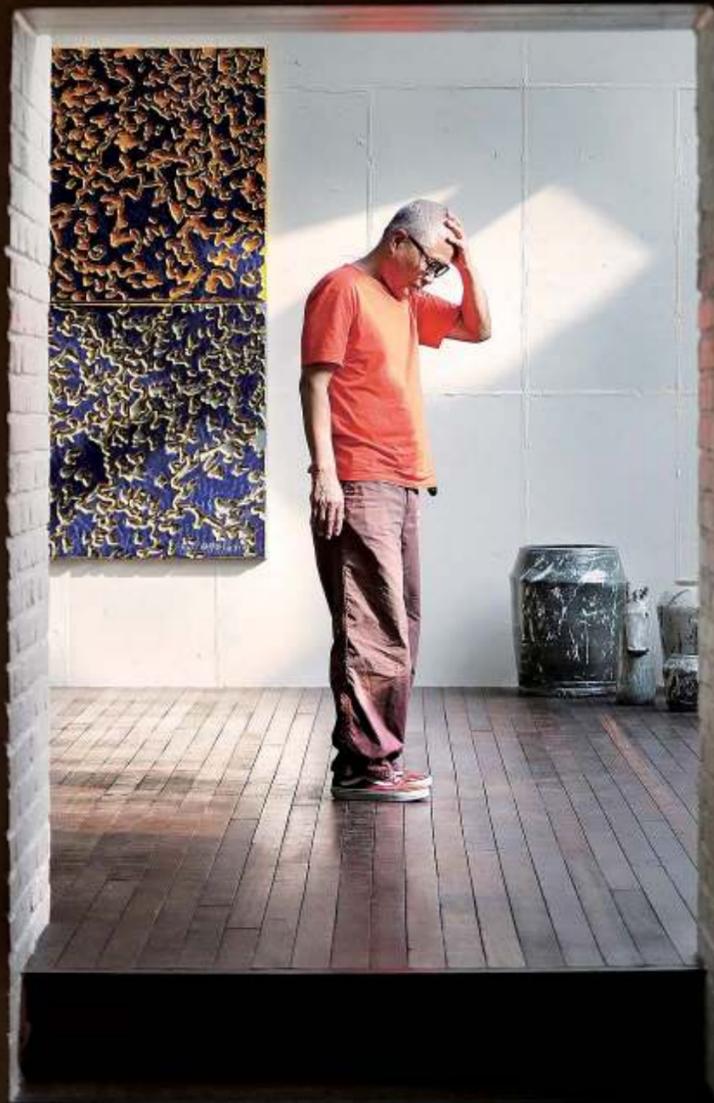
“미술은 새로워야 예술이다. 나는 끊임없이 나만의 새로운 아이디어로 나만의 새로운 작품을 창작하는 데에 주력했다. 남이 이미 시도한 걸 흉내 내는 방식, 난 그런 걸 극단적으로 두려워한다.”

예술에 있어서 새로움이란 시대의 증상을 읽는 안목과, 고도로 발달한 직관과 센스가 합세하지 않고서는 구하기 힘든 질료다. 신상호는 실험정신이라는 갈고리로, 범속한 세상 징후들의 안과 밖에 감춰진 새로운 테마와 소재를 짚어내는 것 같다. 실험정신이라는 에너지의 배양을 위해 그는 많은 여행을 했다. 여행 견본이 안목과 관점을 갱신해주기 때문에. 충실한 독서생활 역시 그의 수칙이다.

예술이 사기라는 말은 진리다

나는 신상호의 작품에 쓰러질 것 같은 충격을 받은 적이 있다. 아프리카 토템 조각상에서 영감을 받아 그가 제작한 동물 두상(頭像) 시리즈물에서였다. 이는 기묘한 추상 도조로 형상의 압도적인 이색, 그리고 관람자에게 즉각 원초적 상상력을 촉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았는데 후회를 왜 하나”



불편에 쫓긴 작가가 빛나는 작품을 건져 올리기도 한다. 그게 신상호의 예술 토대일지도 모른다. ① 널찍한 건물 내부에 조직적으로 부착한 세라믹 작품들. ② 창작에 혼을 빼앗긴 도예가의 관습이 어떤 식의 지독한 양상인가를 한눈에 알 수 있다. 주민욱 프리랜서 minwook19@hanmail.net



발시키는 감염력으로 탁월했다. 전대미문의 도예로 평가된 이 작품들은 그의 이름을 세계에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지금도 장작 가마로 작품을 굽는가? “미술도 과학을 피해갈 수 없다. 특히가마 작업이 중요한 도예엔 과학이 붙어야 한다. 난 나무 가마를 가스 가마로 전환한 최초의 작가였다. 비난이 쏟아지더군.” 해외에서 호평을 받는 반면, 국내에선 오히려 과소평가되는 경향이 있다고들 한다. 정말 그런가? “나는 아웃사이더다. 그게 나의 강점이지. 뭐 국내건 국외건, 평판엔 관심 없고. 나름의 정직한 작업을 계속해왔다는 걸 자족할 뿐이다. 미국과 영국의 대학에서 교환교수를 하면서는 세계의 흐름을 보고 듣고 배웠다. 쥐었던 걸 거둬야만 새로 채울 수 있다는 얘기다.” 비디오 아티스트 백남준 선생은 “예술은

사기”라 했다. 흑세무민이나 착취가 없는 데, 예술이 어떻게 사기가 되지? “예술이 사기라는 말, 그거 진리다. 미술 시장을 보라. 장삿속이 이끌이 난 화상들이 한마디로 사기를 치고 있지 않은가? 이건 세계시장에서도 마찬가지다. 예술작품이 사기 수단으로 전락한 현실 풍토. 그걸 꼬집는 데에 백남준 선생의 뜻이 있었을지도 모르겠다. 뉴욕 소호의 길거리에서 난 자주 선생을 만났다. 그는 늘 말했다. ‘나, 사기 치러 가!’ 하하하. 여하튼, 선생은 한국에서 나온 유일한 세계적 작가였다.” 어떤 기자가 왜 뉴욕을 좋아하느냐고 묻자 “범죄가 많아서 좋다”는 백남준의 답이 돌아왔다. “사회가 썩고 인생이 썩어야 예술이 된다”는 이유에서였다. 그 화통한 백남준은 때로 돈에 시달렸다. “백남준 선생이 값싼 고물 TV로 작업을 한 것도 주머니 사정 때문이었다. 그러나

‘동물 두상 시리즈’ 호평에도 평판 상관없이 작품에 매진 “난 아웃사이더... 그게 강점”

그는 폭넓고 깊이 있는 예술작업을 일관해 성공했다. 특유의 천재적인 쇼맨십과 타협적 기질 역시 그의 강점이었지. 돈 문제에서도 그런 강점을 발휘할 수밖에 없었을 거다. 그런데, 난 그게 안 된다.” 작품이 팔리지 않는가? “안 팔려. 죽겠어.” 왜지? “비싸서.” 화상들이 드나들 것 아닌가? “내가 있어 보여서일까? 아예 접근하지 않는다. 약해 보이는 구석이 있어야 파고들 텐데 그렇지 않아서일 거다. 저놈은 빈

틈이 없다! 그렇게 보는 거겠지. 그러나 내 인생은 허점투성이다.”

작가란 고난을 자양으로 해 성장한다. 불편과 불안을 절호의 찬스로 여기는 게 진정한 자유로운 삶일 테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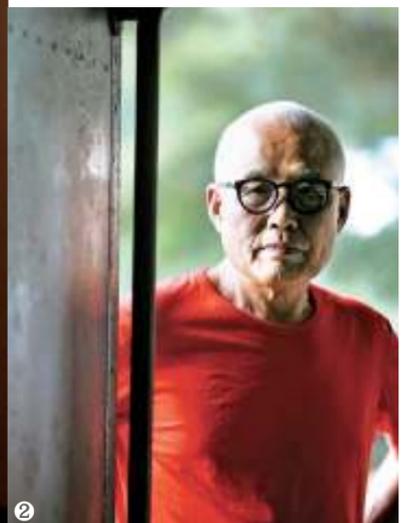
“불편은 맛이 있다. 어떻게든 해결하게 되는 맛도 괜찮고. 그런데 왜 모두들 이악스럽게 돈 하나만 쫓나? 자신을 씹어 고통스럽게 반추해야 한다. 정체되면 씹을 수밖에 없다. 어떤 화가가 그러더군. ‘내겐 돈 버는 게 예술이다’라고. 야, 별게 다 예술이구나.”

후회? 그런 건 하지 않는다

도예 창작이란 왜가리가 유유히 강을 건너는 일과 달리 최후의 기력 한 방울까지 쥐어짜야 가능한 행위다. 정신을 쏟아야 하며, 흙을 움켜쥔 손으로 고강도의 노동을 치러야 한다. 그러자면 강건한 체력이 필수. 신상호 나이 어언 70대. 그에겐 체력 여부를 초월하는 열망이라는 게 있다.

“나이 먹어서도 해낼 수 있는 작업을 찾으면 된다. 작업 외에 다른 것엔 관심도 미련도 없다. 새벽 3시에 일어나 작업실로 들어가 오후 4시까지 일을 한다. 단순한 나날들이 이렇게 흘러간다. 요즘은 친구도 없다. 그게 난 좋다.”

예술가는 창조의 충동에 사는 사람이라는 점으로 다른 사람과 구분된다. 그들은 상식이나 모럴을 넘나든다. 자의식도 강해



누가 뭐라 하건 귀 기울이지 않는다. 자기 스스로 자기에게 내린 명령에 따를 뿐이다. 그들은 세상이 부여한 명예에 취해 스스로 권력이 되기도 한다.

조지 오웰이 말하길, 예술가의 열정은 순전한 이기심, 즉 명예욕에서 추동된다고 했다. 당신을 추동해온 동기는 무엇이라 보는지.

“내게도 그런 게 왜 없겠는가. 평생 자신과의 싸움으로 작품을 해왔지만 강한 명예욕, 그걸 떨치긴 어려웠다. 허욕이고 허영이겠지. 그런 군더더기를 죽기 전엔 다 깎아내고 싶다. 내가 다 옳은 건 아니다.”

이제와 생각하자니 크게 후회되는 일이 있다면?

“후회? 그런 걸 왜 하나.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아온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아닐까. 참혹한 실패의 경험으로 오래 괴로운 적은 있었다. 또 하나 자인할 것은, 나와 주변과의 관계를 객관화해서 느끼기 관조할 만한 거리를 가질 수 있는 교양을 결여한 흠, 그것이다. 난 지금도 싫은 사람과 마주하기를 질색한다. 당장에 쫓아낼 지경으로.”

추방령을 다반사로 내린다는 일. 그건 아마도 내부에 서린 파시즘이라기보다 홀로 생태계를 이룬 사람의 특유의 수비 방식이겠지. 미술작업이라는 믿을 만한 병커에 들어앉은 자존감의 표명일 테고. 신상호가 살기등등한 송골매는 아니지만, 창작에 취한 그의 냉정한 열정엔 으스스한 뿔가가 들어 있다. 박원석 객원기자 bravo@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하나금융그룹

미래금융 위시리스트

- ✓ 국내에서 쌓은 포인트를 해외에서도 쓸 수 있을까?
- ✓ 해외에서도 모바일로 간편하게 결제하고 싶다

# 손님의 기대 하나 하나를 모아 더 세계적인 금융을 만듭니다

손님의 무대가 넓어진 만큼 금융의 능력도 커져야하기에  
하나금융그룹은 더 세계적인 미래금융을 만들고 있습니다

손님의 기쁨, 그 하나를 위하여



해외에서 국내 포인트를 사용해서 결제하는  
글로벌 지급결제 플랫폼



해외에서도 휴대폰 터치만으로 결제하는  
해외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



‘2019 교보교육대상’ 정애경 세계시민교육연구소 대표

“협동·공존·책임의식 갖춘 청소년 육성”

도시답사교실 운영 지역문제 해결  
 삶과 삶 연계 글로벌 교육 보급도  
 창의인재육성 부문에 이기범 교수  
 평생교육 부문은 김동영 교장 수상



교보교육재단은 31일 ‘2019년 교보교육대상’에 정애경(사진) 세계시민교육연구소 대표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참사람육성 부문’ 대상을 수상한 정 대표는 40년간 교직에 종사하며 학생과 교사, 지역사회의 성장을 위해 노력해왔다. 교보교육재단은 “청소년이 협동과 공존 사회적 책임의식을 갖춘 참사람으로 성장하는 데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해 시상했다”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초임교사 시절 서울 구로구 내 취약계층 청소년을 위한 전인교육을 실시하고 학교 적응력을 높이는 교육에 앞장섰다. 또 도시답사교실을 운영해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했다. 이 밖에 세계시민교육 필요성을 인지하고 삶과 삶이 연계된 글로벌 교육을 보급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를 위해, 아시아 교육개발 비영리단체 세계시민교육연구소를 설립해 청소년

세계시민교육 전파에 힘썼다.

정 대표 외에 수상자는 ‘창의인재육성 부문’ 이기범 숙명여대 교수, ‘평생교육 부문’ 김동영 울산시립학교 교장, ‘미래교육 콘텐츠개발 부문’ 초등컴퓨팅교사협회 등이다.

이 교수는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평화 교육을 통해 사회적 상상력을 갖춘 인재 육성에 기여한 공로로 창의인재육성 부문 대

상을 받았다. 이 교수는 1996년 북한 어린이 지원단체인 ‘어린이어깨동무’를 설립했다. 이후 지난 25년간 통일 1세대 남북 어린이 만남과 학교방문 평화교육, 세대별 피스리더 양성, 평화교육센터 운영을 주도했다.

평생교육 부문을 수상한 김 교장은 교육 운동가로 활동하면서 성인을 대상으로 문해교육을 실시했다. 또 전국아학협의회장으로 야학 법인화에 앞장섰다.

선종학 교보교육재단 이사장은 “올해 교보교육대상 수상자들은 남다른 교육철학을 바탕으로 참사람 육성과 국민교육 진흥을 위해 평생을 헌신해왔다”며 “재단은 수상자들의 인재육성 철학과 교육적 가치가 우리 사회에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교보교육대상은 각 부문에서 교육 발전에 기여한 인물과 단체를 선정해 시상하는 종합교육상이다. 대산 신용호 교보생명 창립자의 인재육성 철학을 구현하고 참사람 육성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2015년 제정됐다. 시상식은 8일 오후 서울 중구 코리어나호텔에서 열린다. 각 부문 대상 수상자에게는 3000만 원의 상금과 상패가 수여된다. 정용욱 기자 dragon@

제2회 회계의 날 기념식



3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63빌딩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회 회계의 날 기념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은성수 위원장 “회계개혁, 비정상화의 정상화 과정”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31일 ‘회계개혁으로 기업의 일부 비용 부담 증가가 있는데 장기적인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투자로 보고, 비정상화의 정상화로 변화하는 발전의 과정으로 바라봐 달라’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한국공인회계사회·대한상공회의소 주관으로 이날 오전 여의도 63빌딩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회 회계의 날’ 기념식에서 축사를 통해 “기업 현장에서 여전히 회계처리 적용 등을 둘러싸고 갈등과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은 위원장은 “기업 등이 관련 기관에 회계 기준을 질의하면 전문가적 판단 사항임을 들어 답변에 소극적이거나 늦게 회신을 한

다고 한다”며 “금융위를 비롯해 금융원, 회계기준원은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질의에 대해 회계기준 적용 방법 등을 적극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1부 행사에서는 철탑산업훈장(윤종규 KB금융그룹 회장) 등 정부포상과 표창, 특별공로상(이종남 한국공인회계사회 고문) 등 회계유공자 표창 수여와 회계 분야 정령사회 협약체결식, 주석 외부감사법 출판기념회와 증정식이 있었다. 2부 초청세미나에서는 알렌 존슨 국제회계사연맹(IFAC) 부회장의 ‘4차 산업혁명 시대의 CPA 역할과 미래’를 주제로 한 강연과 토론이 진행됐다. 이신철 기자 camus16@

흉기난동범 제압한 시민 3명에 ‘LG의인상’

LG복지재단은 흉기난동범을 맨손으로 제압해 시민의 생명을 구한 20대 청년 3명에게 ‘LG 의인상’을 수여한다고 31일 밝혔다.

전중현(26·왼쪽 사진) 씨와 변정우(22·가운데) 씨는 6일 점심을 먹기 위해 강원도 강릉시 성남동 거리를 지나다 ‘살려 달라’는 다급한 외침을 들었다. 소리가 난 휴대전화 매장으로 달려간 두 사람은 20대 매장 직원이 50대 남성으로부터 복부와 얼굴 등을 여러 차례 찔려 피를 흘리고 있는 것을 목격했다. 이들은 망설임 없이 범인에게 달려들어 흉기를 빼앗고, 강렬하게

저항하는 범인을 제압한 뒤 출동한 경찰에게 인계했다. 만취 상태로 매장을 찾은 범인은 핸드폰 기능 일부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자며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의 용기 있는 행동으로 생명을 구한 매장 직원은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무사히 수술을 마치고 회복 중이다.

또 다른 수상자인 정규철(27·오른쪽) 씨는 22일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이 ‘신고해 달라’고 외치자 계산대 쪽으로 달려갔다. 아르바이트생이 흉기를 든 범인의 손목을 힘겹게 붙



잡고 있는 것을 본 정 씨는 격한 몸싸움 끝에 범인을 제압하고 흉기를 빼앗았다. 정 씨는 범인이 숨기고 있던 다른 흉기를 꺼내 들고 위협하자 다시 한 번 제압해 결국 경찰에게 인계했다. 범인은 사건 전날 요금 처리 문제로 말다툼을 벌인 아르바이트생이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데 앙심을 품고 범행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영대 기자 yeongdai@

BGF그룹 세대교체...투자사 BGF 대표에 홍정국

BGF리테일 대표엔 이건준 사장



BGF그룹은 편의점 CU의 운영사인 BGF리테일과 투자회사인 BGF의 신임 대표이사를 각각 내정 및 선임했다.

BGF그룹은 31일 이사회를 열고 BGF리테일의 신임대표로 이건준(왼쪽 사진) 현 BGF 사장을 내정하고, BGF의 신임대표는 홍정국(오른쪽) 현 BGF 부사장(전략부부장)을 선임했다.

이건준 신임 대표이사 내정자는 고려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삼성그룹을 거쳐 1993년 BGF그룹에 입사했다. 이후 영업기획팀장, 전략기획실장, 경영지원 부부장 등을 역임했다. 투자회사인 BGF의 신임대표로 선임된 홍정국 신임 대표이사는

2013년 BGF그룹에 입사해 전략기획본부장, 경영전략부부장 등을 역임했다. 차별화된 사업경쟁력을 확보하고, 몽골 등 성공적인 해외진출을 통해 글로벌 역량을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BGF그룹은 “이번 인사로 경영진의 세대교체와 함께 강력한 변화와 혁신을 추진함으로써 급변하는 유통환경에 더욱 신속하게 대응해 지속 성장의 기반을 확고히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미선 기자 only@

한국디지털미디어고에 부영그룹, 우정학사 준공



부영그룹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에 위치한 한국디지털미디어 고등학교 우정학사 공사를 마무리하고 31일 준공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준공식은 부영그룹이 그동안 진행했던 기숙사와 도서관, 역사관 등 교육시설 기증 사업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이날 준공식에는 부영그룹 이종근 회장을 대신해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신명호 회장과 임직원, 이동흡 안산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중현 학교법인 이산학원 이사장, 김승억 법인사무국장, 박주현 한국디지털미디어 고등학교장을 포함해 학생, 교직원, 학부모 등 약 600여 명이 참석했다.

이종근 회장의 아호인 ‘우정(宇庭)’에서 이름 붙인 ‘우정학사’는 학습·편의시설 등이 갖춰진 기숙사로 연면적 약 1320㎡(400평) 3개 층, 33실(1실당 4인), 총 132명을 수용할 수 있다.

신명호 회장은 “우정학사에서 꿈과 재능을 키워나가 훗날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한

훌륭한 인재로 성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중현 이사장은 “우정학사 건립 기증을 통해 학교 발전의 토대를 마련해주신 부영그룹 이종근 회장님 이하 임직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며 “우정학사는 미래 인재 양성을 통한 인류공영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선영 기자 moon@

거래소 상임이사에 임재준·조효제 각각 유가증권·파생상품본부장 맡아



한국거래소는 31일 서울사옥에서 제2차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상임이사와 사외이사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이날 임재준(왼쪽 사진) 현 한국거래소 경영지원본부 본부장보와 조효제(오른쪽)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상임이사로 선임됐고 박현철 부국증권 대표이사는 사외이사로 각각 선임됐다. 이에 따라 임이사는 유가증권시장본부 본부장에, 조이사는 파생상품시장본부 본부장에 각각 임명됐다.

임 이사는 충남대 경영학과를 나왔고 1988년부터 한국거래소에서 31년째 일하

면서 파생상품연구센터장, 파생상품시장본부 본부장보 등을 지냈다. 또한 조이사는 1988년 증권감독원(현재 금융감독원으로 통합)에 입사해 금감원 제재심의국장·자본시장조사2국장·금융투자국장 등을 거친 금감원 출신 인사다.

박 사외이사는 부국증권 영업총괄 상무, 유리지산운용 대표이사 등을 거쳐 현재 부국증권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다.

구성현 기자 carlove@

부음

▲정의한 씨 별세, 김준일·소영 씨 모친상, 박정원(두산그룹 회장) 씨 장모상, 이시은 씨 시모상, 김한주 씨 조모상, 박상수·상민 씨 외조모상 = 31일,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20호실, 발인 2일 오전 6시40분, 02-3010-2631

▲정성보(전 흥국생명 사장) 씨 별세, 박정순 씨 남편상, 정경희(보건사회연구

원 선임연구위원)·상돈(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장)·상태(LG전자 칠러 파트장) 씨 부친상, 이경수(심텍홀딩스 전무) 씨 장인상, 문완숙·박사랑(의정부지법 부장판사) 씨 시부상 = 31일, 서울 아산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2일 오전 9시, 02-3010-2231

▲황창복 씨 별세, 황상섭(서일대 생명화공과 교수·전 한국페링제약 대표) 씨 부친상 = 31일,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22호

실, 발인 2일 오전 5시 40분, 02-3010-2262

▲김창세 씨 별세, 김근영(한국은행 국제경제부장)·근일(GS E&R 팀장)·소연(울산광역시청 사무관) 씨 부친상, 최한철(울산광역시청 주무관) 씨 장인상, 이수현(예일여고 부장교사)·김수연(시립어린이집 교사) 씨 시부상 = 31일, 서울한양대학교병원 장례식장 5호실, 발인 2일 오전 5시, 02-2290-9442

인사

- ◆행정안전부 ◇국장급 전보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사무국장 김성엽
- ◆보건복지부 ◇부이사관 승진 △사회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장 임호근 △인구정책실 보육정책과장 현수엽
- ◆특허청 ◇일반직 고위공무원 전보 △융복합기술심사국장 이현구 △전기통신기술심사국장 최규중 △화학생명기술심사국장 권오희 △기계금속기술심사국장 류동현

- ◆우정사업본부 ◇과장급 개방형 신규 임용 △예금사업단 예금위험관리과장 오창수
- ◆한국관광공사 ◇전보 및 보직 변경 △국내디지털마케팅팀장 김경수
- ◆한국금융연구원 △가계부채연구센터장 임진
- ◆한국천문연구원 △감사부장 신용태 △행정부장 윤영재 △이론천문센터장 조정연
- ◆케이프투자증권 ◇신규 선임 △법인사업본부장(상무) 오창석

문제도의 세상 이야기



서울대 객원교수 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재생에너지가 활발히 보급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전력수송 시스템이 새로워져야 한다. 지금까지 일방적으로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받아 소비자에게 공급하던 것을 쌍방향으로 바뀌어야 하며, 재생에너지 생산 지역별로 송변전망 계획도 바뀌어야 한다. 전기차나 수소차 등 친환경 자동차의 원활한 보급을 위해 충전소에 대한 투자도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

우리나라는 경제발전 과정에서 에너지 전환을 비교적 성공적으로 이룬 나라이다. 경제성이 부족한 무연탄과 땀감 나무에 의존하던 에너지 소비를 석유, 유연탄, 가스, 원자력 등 다양한 에너지원을 활용한 공급 구조로 빠르게 전환시켰다. 에너지 전환이 급속히 이뤄진 시기는 1980년대이다. 1970년대 석유파동을 겪으면서 에너지 사용 편중은 국가경제 안정에 중대한 위협이 되었다. 당시 우리 경제는 소효 에너지의 60% 이상을 석유에 의존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천연가스를 도입하여 가정에서 쓰던 무연탄을 대체하였고, 원자력 발전과 석탄화력을 통해 산업에 필요한 전력을 저렴하게 안정적으로 공급하였다.

이제 우리는 범지구적 과제인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미세먼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화석연료에서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친환경에너지 구조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과거 성공했던 에너지 전략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첫째, 에너지는 다른 산업에 비해 막대한 인프라 투자를 필요로 한다. 도시가스를 보급하기 위해 1980년대 초부터 해외

에서 천연가스를 수입할 인수기지와 전국적인 배관망을 건설하였다. 원자력발전소와 대형 화력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해 발전소 부지를 확보하고 생산된 전력을 수도권 인근의 소비지까지 수송하기 위한 송전망 건설을 대대적으로 추진했다. 여기에 필요한 자원은 국제 원유가격이 안정된 시기에 수입석유에 부과한 석유사업기금(현재는 에너지자원특별회계)에 많이 의존하였다. 더구나, 1980년대 말 시작한 국내 무연탄광의 구조조정도 이 기금을 활용하여 큰 마찰 없이 단기간에 마무리하였다. 석유사업기금이란 공적자금이 없었다면 대규모 투자도 원활한 구조조정도 불가능했을 것이다.

둘째, 정부 주도로 에너지 공급구조의 전환을 시도하는 동시에 민간의 능력을 활용한 기술자립을 통해 연관산업의 생태계를 성공적으로 조성하였다. 해외에서 액화천연가스(LNG)를 수입하는 데 필요한 선박은 국내 조선소를 활용하여 건조함으로써 우리 조선 산업의 경쟁력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린 것이 대표적 사례이다. 또한 원자력발전소와 같은 초대형 설비 건설 과정에 참여하였던 민간 건설회사

와 플랜트 업체의 시공과 품질관리 역량이 여러 단계 올라가 오늘날 플랜트 수출 강국이 되었다.

셋째, 산업이 성숙하면서 정부 규제를 줄이고 시장 기능을 확대하였다. 1990년대 국제 자원시장의 안정세를 활용하여 석유가격 자유화 등 산업에 대한 정부 통제를 점차 줄였다. 원자력발전소 보일러와 터빈을 생산하는 한국중공업을 민영화하여 기기제조 분야의 국제경쟁력을 갖도록 하였다. 정부 독점인 전력과 가스시장도 민간의 참여와 구조개편을 통해 경쟁으로 전환하였다.

이러한 전략은 향후 에너지 전환 추진 과정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우선 재생에너지가 활발히 보급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전력수송 시스템이 새로워져야 한다. 지금까지 일방적으로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받아 소비자에게 공급하던 것을 쌍방향으로 바뀌어야 하며, 재생에너지 생산 지역별로 송변전망 계획도 바뀌어야 한다. 전기차나 수소차 등 친환경 자동차의 원활한 보급을 위해 충전소에 대한 투자도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 여기에 필요한 자금 소요는 매우 크며 초기에 경제성을 갖기

힘든 만큼 공공부문에서 적극적 역할이 요구된다.

이와 함께 시장 기능도 적극 활용되어야 한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국내 부존자원이 빈약하여 에너지 안보를 최우선시해 왔던 일본이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겪으면서 시장과 경쟁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정책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전력시장에 경쟁을 도입하고 전기요금에 대한 규제를 풀 결과, 재생에너지 보급이 확대되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새로운 산업이 많이 출현하고 있다. 매년 2월 말 도쿄에서 열리는 '월드스마트워크전시회'는 전 세계 1600여개의 에너지 기업이 참가하여 4차 산업혁명 진행 과정에서 에너지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보여주는 진열장이 되고 있다.

에너지 미래를 이끌어갈 전환이 순조롭게 이뤄지려면 정부의 의지만으로 되지 않는다. 기업이 새로운 기술을 사업화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정부가 인프라 분야에 선투자(先投資)해야 한다. 이를 위해 에너지 정책을 위한 각종 계획들도 정부 주도의 공급 설비 확장과 보급 중심에서 벗어나 민간의 투자를 끌어들이 수 있는 정책 중심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CEO 칼럼



이영 테르텐 대표

초연결 사회, 프라이버시가 위협받고 있다

며칠 전 나의 시선을 사로잡는 신문 기사가 있다. 인터넷 및 정보보호 분야 전문 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사물인터넷(IoT) 보안 취약점 점검 서비스를 기업과 개인을 대상으로 무료로 제공한다는 내용이였다. 암호학을 전공하고 보안 소프트웨어 기업을 운영하는, 보안 분야 전문가인 나에게도 '벌써! 이렇게나 빨리'라는 놀라움이 일었다. 또한, 동시에 일반인들이 이 제목을 보았을 때 무슨 의미인지 이해할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다.

기사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IoT 기기가 증가하면서 보안사고가 늘고 있다. 이에 10월 1일부터 4세대(4G)·5세대(5G) 통신 등 네트워크에 연결된 가전제품, 모바일-웨어러블 장비 등 다양한 IoT 기기를 대상으로 보안 취약점 점검 서비스를 진행한다. 서비스를 희망하는 기업과 개인은 KISA에 해당 서비스를 신청하고,

적격심사를 거쳐 지원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다.

한마디로 설명하면 가정 내에 들어와 있는 IoT 기기들이 쉽게 해킹되어 우리들의 사생활 정보가 밖으로 불법적으로 유출될 수 있다는 얘기였다. 이렇듯 할 일 많은 KISA에서 이런 서비스를 해주겠다고 하는 것만으로도 문제의 심각성이 먼 미래가 아닌 우리 코앞에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글을 읽는 분들은 어느 정도 실감할지?

우리 가정에는 스마트 TV, 스마트 냉장고, 인공지능(AI) 스피커, 로봇 청소기, 홈캠, 디지털 도어록, 자동 온도 센서기 등 다양한 기기가 있다. 근데 이들 제품을 사용할 때 IP 카메라를 해킹하여 집안의 영상을 무단으로 외부에 공유할 수 있다. AI 비서인 경우 대화 내용을 무단으로 녹음한 후 외부로 유출할 수 있다. 또한 스마트 온도 조절기를 장악하여 온도를 99도까지 올린 후 비트코인을 요구하는 해킹 시연이

얼마 전에 있었고, 스마트 TV를 통한 도청 감청 시도가 가능하다는 걸 위키리크스가 폭로하기도 했다.

세계적으로 이 같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제품들이 하나둘 선보이고 있다.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IPTV용 셋톱박스처럼 가정 내에 개별 설치하여 해킹을 차단하는 방식과 또 하나는 통신망에 설치되어 가입된 기구만 보호하는 방식이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디지털 도어록의 개폐 현황, 원격 접속 제어, 영상 정보 노출 방지 및 집안에서 사용되는 노트북, 스마트폰상의 데이터 해킹도 막아낸다. 이 서비스를 위해 한 달에 1000원 정도 지출해야 한다면 여러분은 사용하실 건지 궁금증이 더해진다.

또한, 기술이 아닌 제도적인 면에서의 보완도 필요하다. 현행법상 사전에 동의를 얻은 기업·개인 사용자 기기는 서비스 사업자가 스캔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서비스 신청 시 그 내용을 읽고 동의하기보다 그냥 기계적으로 동의한다.

따라서 사생활과 관련한 내용이 담길 수 있는 데이터 스캔에 대한 동의 절차를 자세한 설명을 통해 승인받는 절차를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서비스 사업자 또한 개인의 데이터가 뭐 그렇게 중요하겠냐는 안일한 생각에서 벗어나, 대규모 사생활 침해로 넘어가 생명과 직결된 보안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관련 보안 기술조치를 서비스 제공 시 의무적으로 해야 할 것이다.

초연결 사회, 인공지능과 IoT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다. 따라서 이런 큰 파도가 우리 가정 안으로 들어오는 것 또한 막을 길이 없다. 집도 도시도 그리고 모든 교통과 시설물들도 인공지능 기반하에 좀 더 스마트하게 변해갈 것이며, 서로 간에 연결되어 갈 것이다. 이런 편리성 이면에 가려진 프라이버시 침해 및 위협 부분에 지금이 라고 관심을 두고 대비해야 한다. 보안은 우리의 인권과 자유를 지키기 위한 미래 사회의 필수 조건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이투데이, 말투데이

☆ 박은식(朴殷植) 명언 "국교(國敎)와 국사(國史)가 망하지 아니하면 국혼(國魂)은 살아 있으므로 그나라는 망하지 않는다."

독립운동가. '황성신문' 주필인 그는 대동교(大同敎)를 창건하고 신한혁명당(新韓革命黨)을 조직해 항일활동을 전개했다. 상해임시정부 대통령을 지낸 그는 민족해방운동의 정신적 지주를 유지하려면 주체적인 역사 서술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한국통사(韓國通史)' '한국독립운동지혈사'를 남겼다. 오늘 그는 세상을 떠났다. 1859-1925.

☆ 고사성어 / 사자후(獅子吼) 사자가 울부짖는 소리라는 뜻으로, 석가의 설법에 모든 악마가 불교에 귀의하였다는 말. 진리나 정의를 당당히 설파하는 것 또는 크게 열변을 토하는 것을 비유한 말. 원전은 전등록(傳燈錄). "부처는 태어나자마자 한 손은 하늘을 가리고, 한 손은 땅을 가리키며 일곱 발자국 걷고 사방을 돌아보면서 '천상천하유아독존(天上天下唯我獨尊: 우주 속에 나보다 더 존귀한 것은 없다)'이라 하면서 사자후 같은 소리를 내었다."

☆ 시사상식 / 한계부락(限界部落) 실버세대의 비중이 50% 이상인 마을로, 정상적인 사회공동체 유지가 한계에 다다른 곳. 거주하는 노인들이 소득이 없을뿐더러 지역 교류도 소홀하기 때문에 고립되는 경우가 많다.

☆ 유머 / 최후의 후배 설득법 남편이 퇴근 무렵 아내에게 전화했다. "여보, 지금 회사 직원 하나와 집에 가니까 저녁 준비 좀 해줘요." 아내가 어이없어 "당신 미쳤어요? 먹을 만한 반찬도 없고, 집안은 돼지우리 같은데 무슨 초대야?"라고 했다. 남편의 대답. "알아. 바보 같은 후배가 죽어도 결혼을 하겠다고 하길래 내 결혼생활을 보여주려고." 채집/정리: 조성권 국민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맛있는 삶 연구소장

"요즘 같은 때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전략입니다."

최근 영업방향을 묻는 말에 돌아온 대형 보험사 관계자의 대답이다. 공격적으로 영업해봤자 금융당국에 밉보이기 일쑤고, 과거 고급리 상품을 공격적으로 판매했다가 수십 년 후 부메랑으로 돌아온 사례를 빗대어 표현한 것으로 들린다. 그도 그럴 것이 최근 보험시장은 저금리 지속과 인구구조 변화, 경기 부진 등으로 성장동력이 약화됐다. IFRS17 도입과 이에 따른 감독 기준 강화까지 제도 변화에 따른 변수가 산적해 있고, 당국·소비자와의 분쟁으로 보험업계의 피로도는 어느 때보다 올라와 있다.

보수적 성향이 강한 보험업계는 2015년 보험 자율화로 인가제로 운영되던 보험상

기자수첩



서지연 금융부/sjy@

성장동력 잃은 보험업계

품의 사전신고제가 사후보고제로 변경되면서 더욱 신중해졌다. 자칫 상품을 잘못 설계해 판매했다가 추후 책임을 고스란히 안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 사례가 치매보험과 무해지보험 상품이다. 보험사 자율적으로 상품을 개발·판매해 수익을 올렸으나, 당국의 약관 변경 권고와 불완전

판매 논란으로 역풍을 맞고 있다. 보험사들은 '차라리 사전신고제 때가 낫다'는 말도 거침없이 쏟아내고 있다.

그렇다고 움츠러든 채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건 안타까운 일이다. 한국 보험산업은 지난 20년간 높은 성장률로 세계 7위에 안착했다. 경제성장과 함께 커왔으며, 잠재

성장률이 높아 위기가 닥쳤을 때 회복이 빨랐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시장의 변화와 함께 제도적 변화까지 대응하려다 보니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버거운 상황이다. 더 이상의 시장 발전이 없다면 세계 시장에서 도태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보험사들은 지금과 같은 저성장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단순한 외형 성장에서 벗어나 수익성과 자본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경영 패러다임으로 변화해야 한다. 과거 성장 가도를 걸을 때보다 더 바빠 움직여야 한다. 금융당국도 보험산업 규제에만 신경 쓸 게 아니라 대응책 마련에 함께 신경 써야 할 것이다. 당국이 강조하는 금융혁신에 어느 샌가부터 보험은 예외로 치부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

이슈&인물

혁신 vs 규제

유정주 한국경제연구원 기업혁신팀장

# “혁신 장애물 ‘규제’ 이재웅 기소가 실례”

〈타다〉 쏘카 대표〉

바야흐로 ‘혁신의 시대’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유례없이 큰 파도 앞에서 기업들은 생사의 기로에 서 있다. 위세를 떨치는 글로벌 기업도 상황은 마찬가지. 산업 생태계 자체가 뒤바뀌는 상황에서 환골탈태 수준의 혁신과 변화 없이 살아남을 기업은 없다.

이 혼란 통 속 혁신을 바라보는 정반대의 관점이 공존하고 있다. 한쪽에서는 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혁신의 싹이 피어올 수 있다고 말한다. 다른 한편에서는 규제를 강화해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벤처기업들이 도전을 마음껏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야말로 혁신을 위한 핵심요소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이투데이는 최근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 회관 3층에서 유정주 한국경제연구원 기업혁신팀장을 만나 혁신과 규제의 관계에 관해 물었다. 유 팀장이 속한 환경연은 재계 단체인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단체다. 그러나 유 팀장은 정부정책 방향에 대해 일방향이 아닌 합리적, 논리적 비판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 “규제가 혁신 가로막아…를 필요하지만 치우쳐선 안 돼” = “규제조.” 혁신의 가장 큰 장애물이 무엇인지 묻자 유 팀장은 곧바로 ‘규제’라고 즉답했다.

유 팀장은 이재웅 쏘카 대표가 최근 타다에 대한 ‘불법 영입’ 혐의로 기소된 것을 화두로 꺼냈다. 그는 “최근 들어 기업이 정신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가 늘어나면서 혁신을 가로막고 있다”며 “이재웅 대표가 기소된 것처럼 각종 사업을 새로 시작할 때 진입규제가 엄청 높은 것이 한국의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결론은 과감한 규제 개혁이었다. 유 팀장은 “국제 연구 결과에서도 나오듯 한국의 국가경쟁력은 상위권이지만 규제는 최하위권”이라며 “근본적이고 과감한 규제 개혁이 없이는 혁신이 일어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규제 완화’와 ‘기업의 해외 진출’은 배치되는 것이 아닌지 묻자, 유 팀장은 어떤 이유로 해외로 나가는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한국 기업의 매출에 80~90%가 수출인 상황에서 외국에 투자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문제는 전략적 투자가 아닌 경우”라고 말했다. 국내에서 할 수 있는 사업까지 해외로 넘기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어 “비용 절감 차원에서 나가는 것은 막아야 한다”며 “규제가 많아서, 일하기가 힘들어서 국내 사업을 접고 외국으로 가는 경우는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삼성이 스마트폰 제조를 중국에 맡긴다고 선언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유 팀장은 꼭 짚어 말했다. 업계에 따르면 삼성이 연간 스마트폰 생산량의 20%를 중국 업체에 넘기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삼성의 ‘탈(脫)한국’ 움직임은 각종 규제 등으로 국내에서 가격경쟁력을 더 확보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유 팀장은 혁신을 ‘양날의 검’으로 규정했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정책적 지원만을 받고 벤처기업들이 아무런 준비 없이 난립하는 경우를 언급하면서다. 그는 “최근 정부가 혁신에 대해 정책자금을 많이 쏟고, 투자를 많이 하지만, 그런 걸 약육하는 경우도 많다”며 “성실한 사람들도 많지만, 일부에서는 ‘공돈’인 정책자금을 받고 창업하는 경우도 많다”고 지적했다.

이런바 ‘도덕적 해이’다. 대안으로 대기



유정주 한국경제연구원 기업혁신팀장은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인터뷰실에서 이투데이와 인터뷰를 갖고 “성실한 사람들도 많지만 일부에서는 ‘공돈’인 정책자금을 받고 창업하는 경우도 많다”고 지적하며 “혁신이 양날의 검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사업 새로 시작할 때 진입 규제가 정·혁신 가로막아 삼성 스마트폰 ‘脫한국’도 비수

대기업 나쁘고 중소기업은 옳다? 시장에 일정한 틀 필요하지만 건전한 경쟁 만드는 게 중요

정부, 하위법령 통한 규제강화 법률로 답아야 할 핵심 사항 시행령으로 하려는 건 문제

기업의 인수합병(M&A) 활성화를 유 팀장은 제시했다. 그는 “대기업은 투자할 때 해당 기업에 대해 치밀하게 평가를 한다”며 “대기업 등 민간이 벤처시장에 투자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유 팀장의 생각과는 반대로, ‘규제야말로 혁신의 근간’이라는 주장을 펼치는 목소리도 있다. 최근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혁신을 위해서는 공정경제가 바로 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공정한 관계가 형성돼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회가 형성될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유 팀장은 이에 대해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규칙을 정해둘 필요는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지금 상황에서 공정경쟁이라는 것은 대기업 규제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 정부가 엄격하게 중소기업의 편에만 서는 것은 되레 시장경제의 효율성을 해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어 “최근 정부의 규제 강화 정책에는 대기업은 나쁜 놈, 중소기업은 착한 놈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며 “올바르고 건전한 경쟁 상태를 만들어주는 것이야말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하위법령 통해 규제강화, 문제 소지 있어…소부장 국산화 쉽지 않을 것” = 애기는 자연스럽게 최근 정부의 정책 방향으로 넘어갔다. 유 팀장은 “올해 상반기 들어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공정경제나 경제민주화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최근 공정위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과 ‘공시 대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행정 예고한 것이 대표적

이다. 지주회사 체제에서 여러 자회사의 손자회사 공동 출자를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자·손자회사 등과 50억 원 이상의 대규모 내부거래를 하는 지주회사에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도 담겼다.

유 팀장은 “기업에 출자를 금지한다는 것은 굉장히 근본적인 사안에 대한 규제”라며 “출자를 못 한다는 것은 투자를 못 하게 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회사에 대한 부동산 임대료 수익을 공개하는 것도 정당성이 없다”며 “배당으로 100% 받아야 하는 건지, 몇 퍼센트를 배당으로 받아야 하는 건지 등 기준이 있을 수도 없는데 여론을 이상한 쪽으로 끌고 가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 맥락에서 유 팀장은 하위법령을 통한 정책 집행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기업경영의 핵심 사안을 규정하면서 법률로 하지 않고 시행령에 담아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유 팀장은 “국회가 공전하는 중에 정부에서는 하위법령으로라도 정책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이런 경향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른 여파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견해를 밝혔다. 일각에서 이번 사태를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국산화 등 기초산업 혁신의 가능성과 연결짓는 시각이 있다. 최근 김택중 OCI 대표도 자사 콘퍼런스콜에서 “한국과 일본의 분쟁에 따른 영향이 나쁘진 않은 것 같다”며 “최근 반도체 실리коны를 늘려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유 팀장은 “참 어려운 문제”라면서 “소재 부품 산업이 1~2년 사이에 따라잡을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렇게 쉬울 것 같았으면 더 일찍 했을 것”이라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밝혔다. 이어 “소재 부품 분야가 특허도 특허지만, 그것보다 노하우가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며 “요새 중국이 반도체 사업을 한다고 돈을 쏟아붓지만, 단 시간에 따라잡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는 것도 이런 노하우의 여부 차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소부장의 국산화는) 낮은 순도의 여러 화학제품 정도는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고순도 제품들을 단시간에 쫓아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러면서 “한국과 일본은 과거 문제로 얽힌 게 많긴 하지만 가까이 있는 이웃”이라며 “외교의 정상화나 한일 관계의 정상화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김배리 기자 kimstar1215@

사설

## 세계 최대 제조업 삼성전자 50년, 미래 어둡다

삼성전자가 11월 1일 창립 50주년을 맞았다. 1969년 종업원 36명으로 출발해 겨우 3700만 원의 매출을 올렸던 삼성전자의 현재 국내 본사 인력만 10만여 명, 글로벌 고용은 30만 명을 넘는다. 매출은 234조7700억 원(2018년)으로 635만 배 늘었다. 국내 최대 기업을 넘어 세계 최고의 제조업체다.

삼성의 반세기 성장사는 신화(神話)다. 처음 일본의 3류 전자업체 산요(三洋電氣)로부터 어렵게 기술을 배워와 싸구려 흑백TV를 만들어 수출했다. 도약의 첫 계기는 이병철 선대회장의 1983년 ‘도쿄 선언’을 통한 반도체사업 진출이었다. 미국과 일본에 이은 세 번째 반도체 생산국에 도전이 오늘날 초(超)격차 기술로 글로벌시장에서 독보적 위상을 굳힌 출발점이었다. 이후 이견희 회장이 1993년 ‘프랑크푸르트 선언’으로 ‘신경영’ 시대를 열었다. 양(量)에서 질(質)로의 혁신이었다. 지금 삼성이 메모리반도체와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TV 등 가전에서 세계 1위의 종합 전자업체로 우뚝 선 것이 그 성과다.

삼성의 성공을 일군 원동력은 항상 절박한 위기의식으로 무장한 끊임없는 혁신이었다. 강력한 오너십의 빠른 의사결정, 과감하고 지속적인 투자, 제품과 서비스의 세계화 전략으로 다각화와 전문화를 동시에 달성하는 시너지를 창출했다. 삼성경영의 모델인 혁신DNA다.

삼성전자를 빼놓고 한국 경제를 말

할 수 없다. 삼성이 우리나라 수출과 투자, 고용, 부가가치 생산 등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다. 제조업 전체 매출의 10% 이상을 떠맡고, 수출의 20%를 차지한다. 올 상반기 법인세만 9조5449억 원을 냈다. 전체 법인세수 54조 원의 18%에 달한다. 주식시장 시가총액 비중도 20%를 넘는다. 한국 경제의 가장 큰 자산이자 버팀목이다.

그러나 삼성은 지금 어느 때보다 큰 시련과 위기에 직면해 있다. 지난 50년의 성공 이후 앞으로 미래는 어둡기 짝이 없다. 스마트폰의 퇴조가 뚜렷하다. 글로벌 경쟁업체들과 생사를 건 ‘치킨게임’을 이겨내고 승자의 자리에 올라선 반도체도 흔들리고 있다. 이견희 회장을 이은 이재웅 부회장은 5세대(5G) 통신과 인공지능(AI), 바이오 등에서 100년 기업의 비전을 세웠다. 전자적 역량을 집중해 투자를 쏟아붓는 성장전략도 제시했다. 향후 투자규모는 수백조 원이다. 그러나 출발이 늦은 데다 앞으로의 시장상황을 낙관하기 어렵다.

삼성을 둘러싼 정치·사회 환경도 걸림돌이다. 경이로운 성공이 축색이 된 상황이다. 경영권 편법 승계, 정경유착 등 적폐청산의 굴레가 씌워져, 이 부회장은 지금도 사법적 재판의 대상이다. 최악의 오너리스크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창외와 혁신의 기업가정신이 설 자리가 없다. 삼성의 더 나은 미래를 기대하기 힘들면 나라 경제에도 심각한 위협이다.

한 킷



도시의 숨통

여의도 빌딩 숲 사이에 푸르른 자연이 자리 잡고 있다. 국내 최초로 자연환경 보존을 위해 조성된 여의도 샛강 생태공원에는 천연기념물 황조롱이를 비롯한 여러 희귀 동식물이 살고 있다. 동식물들의 휴식과 수면을 위해 가로등도 설치하지 않았다. 도심 속 지친 몸과 마음을 6km의 시원한 산책로 속에서 치유해 보는 것은 어떨까.

고이란 기자 photoeran@



뉴스를 풀어줍니다, 경제가 쉬워집니다.



SAMSUNG

# 감사드립니다

삼성전자 50년

여러분의 성원과 격려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모두가 꿈을 이루고  
행복한 내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나누고 성장하며  
사랑받는 기업이 되기 위해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